



건축사

2001 **04** vol.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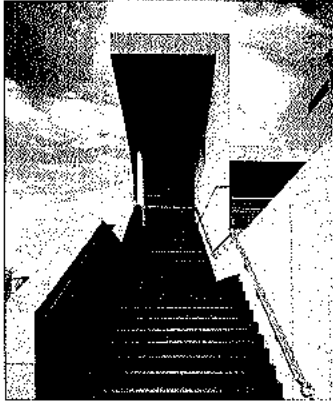
칼럼 부활

작품리뷰 인삼랜드(상/하)휴게소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2)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8)

차례 2001 4 384호



인삼랜드(상/하)휴게소(이충기 作)



칼럼	부활	김영섭	14
회원작품	동주대학 체육관	박 건	18
	광혜원 성세실리아 성당	조구현	24
	@트윈	박병철	28
	대한사회복지회 게스트하우스	최동규 · 조영학	32
	기아자동차 인재개발원 기숙사	김선양	36
작품리뷰 / 인삼랜드(상/하)휴게소		이충기	40
	비평 : 인간 중심의 휴게소	이관석	52
	대답 : 경관과 공간의 관계맺기	이주연	56
해외잡지동향			62
현상설계경기	경기도립 국악당		68
	연천우체국		74
	천안시청사		78
	주상해충영사관		84
작품노트	교원그룹연수원 게스트하우스	조남호	86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2)	김석환	92
연구	계획적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최찬환	100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8)	한동수	105
건축미당	협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4
	전시리뷰		120
	회원현황		121

발행인: 우남용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hsjo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Woo Nam-Yo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Column

Resurrection	Kim Young-Sub	14
--------------	---------------	----

Works

Dongju College Gymnasium	Park Gun	18
Kwanghyewon St. Cecilia Catholic Church	Cho Ku-Hyun	24
@TWIN	Park Byeong-Cheol	28
Guest House	Choi Dong-Kyu & Cho Young-Hag	32
Kia Motor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Dormitory	Kim Sun-Yang	36

Review / Insamland Service Area

critique	Service Area Oriented to Mankind	Lee Chung-Kee	40
interview	Communication with Landscape and Space	Lee Ju-Hyeon	52

Overseas Journal

Competition

Classical Music Hall of Kyeonggi Province		68
Yeoncheon Post Office		74
Cheon-an City Hall		78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anghai		84

Works Note

Kyowon Group Training Center & Guest House	Cho Nam-Ho	86
--	------------	----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92
---	--------------	----

Study

District Plan of Urban Planning Arrangement	Choi Chan-Hwan	100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Han Dong-Soo	105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11
Archi-Net		114
Exhibition Review		120
Members		121

전국시도건축학회 및 건축심판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학회/(02)581-5715~8

강남구건축학회/517-3071 · 강동구건축학회/486-7475 · 강북구건축학회/903-3425 · 강서구건축학회/661-8899 · 관악구건축학회/884-0046 · 광진구건축학회/446-5244 · 구로구건축학회/864-5828 · 금천구건축학회/859-1588 · 노원구건축학회/938-5781 · 도봉구건축학회/054-1253 · 동대문구건축학회/923-6213 · 동작구건축학회/815-3026 · 마포구건축학회/323-5251 · 서대문구건축학회/333-6411 · 서초구건축학회/3474-6100 · 성동구건축학회/232-5955 · 성북구건축학회/922-5117 · 송파구건축학회/423-9158 · 양천구건축학회/694-9040 · 영등포구건축학회/632-2143 · 용산구건축학회/717-6607 · 은평구건축학회/388-1486 · 종로구건축학회/737-3030 · 중구건축학회/231-5748 · 중랑구건축학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학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학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학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학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학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학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학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학회/(031)363-8902 · 평택건축학회/(02)684-5845 · 구로 지역건축학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학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학회/(031)755-5445 · 수원 지역건축학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학회/(031)694-4121 · 안산건축학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학회/(031)449-2688 · 외성부지역건축학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학회/(031)635-0546 · 평택지역건축학회/(031)657-6149 · 오산건축학회/(031)315-8648 · 용인지역건축학회/(031)338-0140

■ 강원도건축학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학회/(033)052-0126 · 삼척지역건축학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학회/(033)833-8163 · 영월지역건축학회/(033)374-2859 · 원주지역건축학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학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학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학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학회/(043)732-5152 · 세천지역건축학회/(043)643-3588 · 충주 지역건축학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학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학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학회/(041)834-3367 · 백제지역건축학회/(041)835-2217 · 서산 지역건축학회/(041)881-4295 · 천안지역건축학회/(041)551-4651 · 홍성지역건축학회/(041)632-2155

■ 전라북도건축학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학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학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학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학회/(062)385-9944 · 354-7567

목포지역건축학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학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학회/(061)852-7023 · 나주 지역건축학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학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학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학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학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학회/(054)432-8688 · 문경지역건축학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학회/(054)535-8975 · 안동 지역건축학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학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학회/(054)334-8258 · 철곡지역건축학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학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학회/(055)245-4530~1

거제지역건축학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학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학회/(055)334-8644 · 마창지 역건축학회/(055)245-9737 · 밀양지역건축학회/(055)255-1323 · 시천지역건축학회/(055)833-9779 · 양산시 건축학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학회/(055)741-6403 · 진해 지역건축학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학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학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학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학회/(064)733-5501

부활

Resurrection

김영섭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ub

올해는 유난히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춘삼월(春三月)이면 어김없이 피는 우리집 한옥 마당의 백매(白梅)도 4월이 되어서야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동안 무척이나 봄소식을 고대하였던지 지난 3월의 눈보라가 훑날리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잠시나마 매화나무 높은 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매화우(梅花雨)로 착각하였다.

춘래불이춘(春來不而春)이라고 잔인한 날씨 탓을 하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새로운 부활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어두운 갈색의 산하에 봄기운이 찾아들어 연한 연두색으로 변하는 아른 봄의 사랑스러운 정경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도로변의 죽은 나무 가지에 노오란 물이 오르고 이윽고 그것이 개나리 꽃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외침 부활로 이어지는 극적인 장면은 매년 보아도 새롭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춘래무처불개화(春來無處不開花)-봄은 왔으나 아무곳에도 꽃들이 피어 있지 않은 꿈속에서 이 땅의 건축인들은 아직도 추운 세파속에서 부활의 봄을 무작정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이가 "자연이 가르쳐주는 부활이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대편 쪽에서 그렇다면 건축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이야기해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우선 주위를 한 번 둘러보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예언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건축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온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지난 세기의 이 땅의 도시와 건축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거대도시가 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닌 역사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조상들이 물려 준 도시의 역사환경을 이토록 단 시간 내에 철저히 파괴하여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흔재라는 이름으로 대체시킨 예 또한 흔치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지고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와 농촌 어디나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 년에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의 미완의 건축을 펼쳐 놓은 것은 그대를 비롯한 이 땅의 건축사들의 손이 빚어낸 결과인 것이다. 어디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는냐고 항변하기 전에 이렇게 되기까지,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망하게 되기까지 건축인들 스스로 전문인으로서 직능과 직분에 충실하였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특히 시간 많은 요즈음은 반성하기에 너무도 좋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도 그는 말하였다. 좋은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이 삶을 이어갈 터를 만들려면 좋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관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축인들은 지난 수십년 간 시도 때도 없이 공허한 목소리로 외쳐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건축인들은 자신들의 눈 속의 들보를 걸어내지 못하는 주제에 주위 여건과 남의 탓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고 물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겸허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아무나 건축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건축사 자격시험에만 합격하고 나면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럴리아 없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막된 말로 하기 싫은, 해서도 절대 안되는 건축주의 요구와 집장사들의 농단에 그대들의 손을 빌려 주었던 것은 아닌가? 공동체적 삶의 가치는 말뿐이고 길거리에 면한 공동성조차 철저히 외면한 체 지적도라는 땅금 안에서 최소 투자와 최대효과라는 경제성 우위의 논리로만 건축을 다루어서 급기야 이 땅의 건축은 곧 부동산이라는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닌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데 일조를 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권유하고 주도하기조차 한 것은 아닌가하고 그는 건축인들에게 물었다.

그 많은 설계경기를 통하여 세계적 건축문화 유산을 만들기는 커녕 후손들에게나마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있는 부끄럽지않은 건축 유산을 만드려는 정당한 노력보다 심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다가 급기야는 앞으로 있을 설계 경기의 심사위원이 될 만한 대상 교수 모두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주선해서 편법으로 대부분의 관공서 설계경기를 독식해 보려는 파렴치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비도 실력이다 라고 우기면서 자신마저 설득하거나 고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계획설계와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에 따른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해외에 발주하였지만 건축허가서에 자기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각종 건축상을 얹치없이 수상하는 것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때로는 권장사항이 되어 주위 동료들에게까지 차례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미덕이 어느덧 보편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을 주는 쪽에서조차 그런 일은 신경 꺼버린 외국 같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의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는 물었다.

동강 댐이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목학회 일이고 그린벨트가 대책없이 해제되어도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니 시민 단체나 국회 같은 곳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러브호텔로 온 사회가 떠들어도 그것은 지방자치제와 해당 학교 정화위원회가 해결 할 문제이며, 다세대 다가구 건축으로 도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건설 200만호라는 6공화국의 위대한 주거 정책이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명운을 함께 하겠다고 건축인들이 미움을 드잡았기 때문인지 물었다.

계속해서 예언자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의 도시와 건축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 그대들의 손으로 빚어진 이 도시와 건축을 그대들의 아이들이, 아들과 딸의 자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시건축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마땅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건축인들이 모두 죽어 도시와 건축이 새롭게 되살아난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예언자는 '감히 그대들에게 말한다'고 사람들 속에서 외쳤다. 건축설계를 먹고 사는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건축계를 떠나라. 건축은 건축사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도 떠나라. 입으로만 건축문화를 외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정체불명의 배껴내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을 그만 두어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건축의 선무당들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기생해서 살아온 로비스트들은 그냥 하루종일 골프장에

서만 살아라. 차리리 프로골퍼가 되는 것이 자식들 보기에 더 떳떳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 건축설계를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교수들은 설계경기심사 제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사절하라. 그래도 발주처에서 제의를 계속 부탁해오면 심장수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심장수술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짐작게 충고해 주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 건축인들이 죽고 도시와 건축이 부활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일만명 남짓되는 건축사들이 그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나라 이 강산을 요절내어 정체불명의 어지럽고 혼돈된 도시와 건축을 양산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새로 부활하는 건축대학은 건축을 하고 싶고 건축할 자질이 충분히 있는 새싹들만 뽑아라. 설계도 하다가 사세 부득이하면 사공회사도 갈 수 있다는 눈치 보는 쪽정이는 뽑아내어라. 건축설계 비전공 교수들도 1,2학년 정도 설계는 내가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좋은 실무경험을 가진 건축기만이 건축설계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에 임하여라.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면허대여라도 해 보려고 불필요하게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라. 건축사 자격이 생활을 보장해 주던 좋은 시절은 끝이 났다. 일단 벌려논 판이니 어찌 되던지 간에 끝까지 기보자고 모두가 무한경쟁을 벌인다면 공멸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목소리를 높혀 갔다.

큰 일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의 뛰어난 건축사들도 1년에 주택 작품 서너개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과 도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작은 건축 일에 혼신을 다하여 정진하는 모습과 도시 사회문제와 환경파괴에 분명하게 전문 집단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큰바위 얼굴과 같은 태도야말로 부활한 건축인들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덤핑하거나 남의 아내 탐내듯 동료의 일을 탐내지 말라. 건축계를 물 없는 사막으로 내모는 짓이 되리라. 예언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렇듯 예언자의 말은 하나 같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활 없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죽음과 같은 몰락의 길이 그대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면서 말을 거두었다. 예언자는 죽은 나무에 상수를 뿌리는 시늉을 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 창 밖을 바라보니 가느다란 세우(細雨)가 매화나무 검은 가지들을 적시고 있어 올새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 맹 추위에 흑 나무들이 뿌리까지 얼어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비를 맞으며 마당에 나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보았다. 검은 피부 속에 얼핏 초록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나무는 아직 살아있었으며 찬란한 부활의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

동주대학 체육관 Dongju College Gymnasium

박 건 / 건축사사무소 G.A
Designed by Park Gun

건축개요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점동 산15-1외 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일반거주지역, 학교부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대지면적	60,524.00㎡
건축면적	2,416.28㎡
연 면 적	5,886.03㎡
규 모	피로터 2층, 지상 5층
구 조	R.C조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물갈기, 벽 - 화강석물갈기, 천장 - 스페이스 후레임, 텍스마감
외부마감	바닥 - 화강석 잔다듬, 벽 - 화강석물갈기, 노출콘크리트, 지붕 - SRC페널
구 조	본구조 연구소
전 기	(주)세종전기 기술사사무소
설 비	(주)삼보설비엔지니어링
시 공	(주)삼경종합건설
감 리	건축사사무소 G.A
건 축 주	학교법인 석파학원 장학영

이 건물은 지하철 당리역 동측입구에서 보
도로 15분 거리의 동주여자전문대학에 부속한 건물로 부지
조건은 서북측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은 수림대
로 둘러 싸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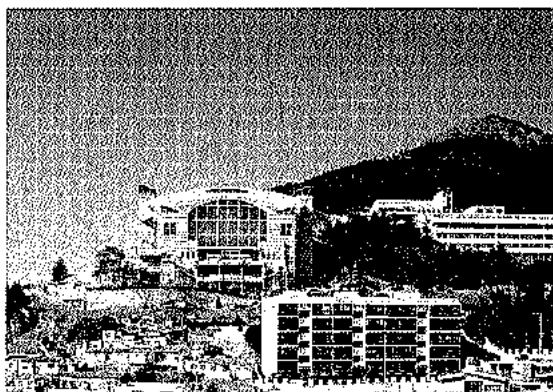
체육관이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주위 전
망도 확트인 상태이고, 여러 곳에서 다방면으로 볼 수 있어
대지 조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접근성 및 진입의 편리성 등
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디자인에 있어서 편리, 율
동성, 유려함 등 건축에 있어서 미적인 요소를 부여하는데
좋은 조건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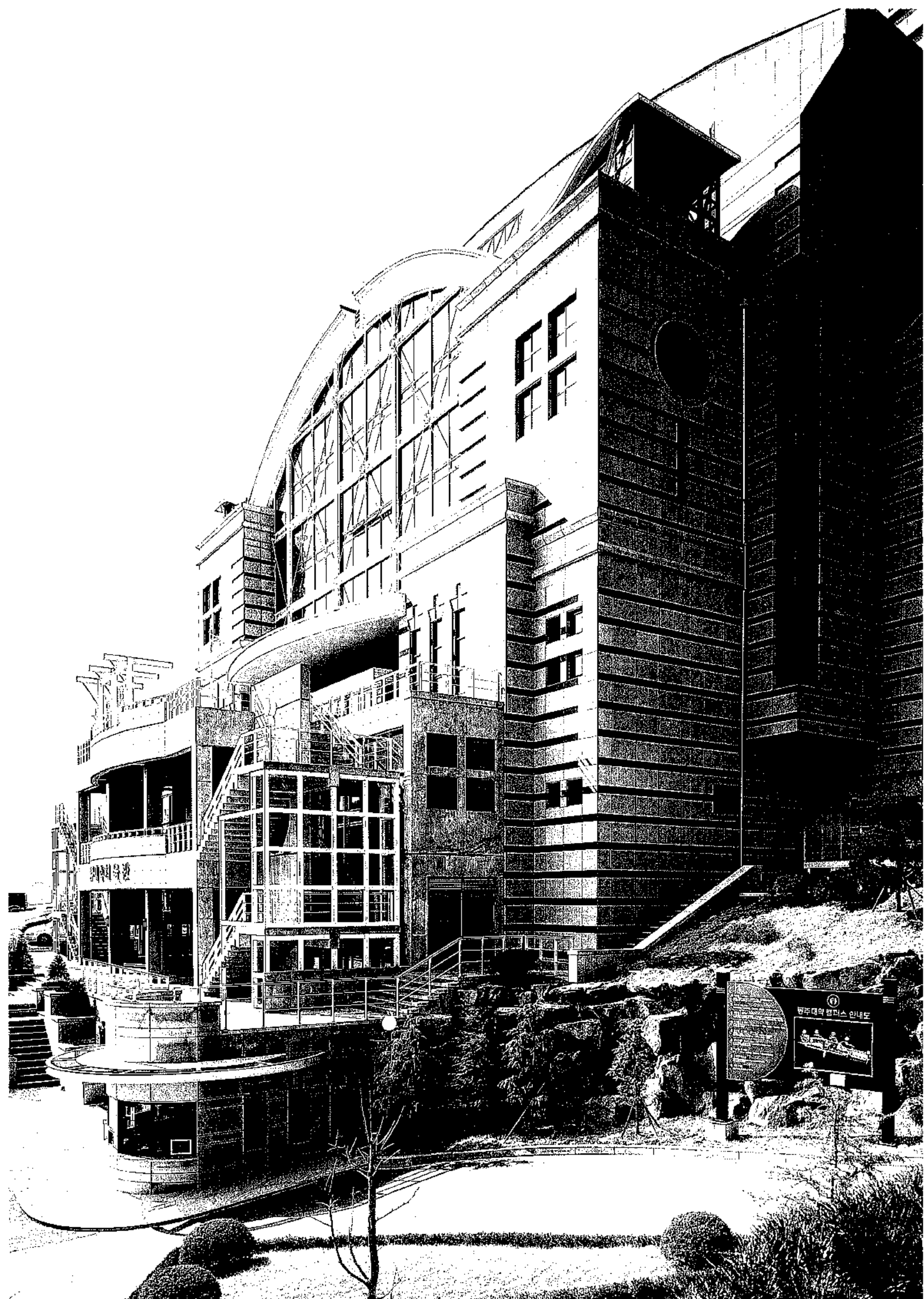
이 계획은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자연
훼손의 최소화, 주위 경관과의 조화 유도를 위해 가장 경제
적인 형태를 기틀로 건축주의 요구 사항인 시민 체육 시설
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장치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 국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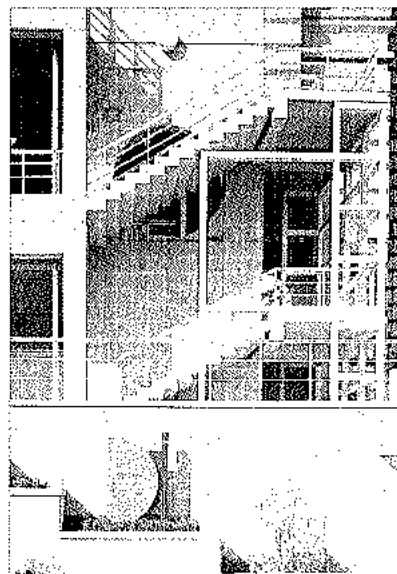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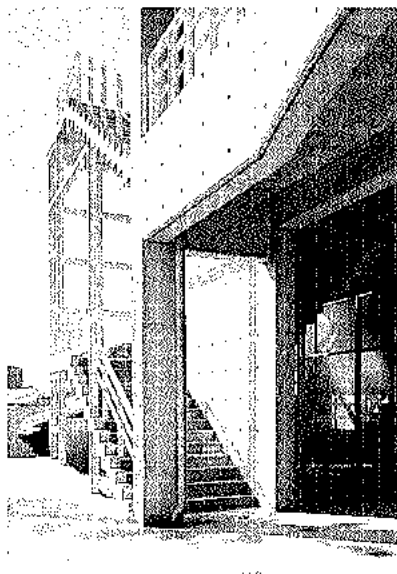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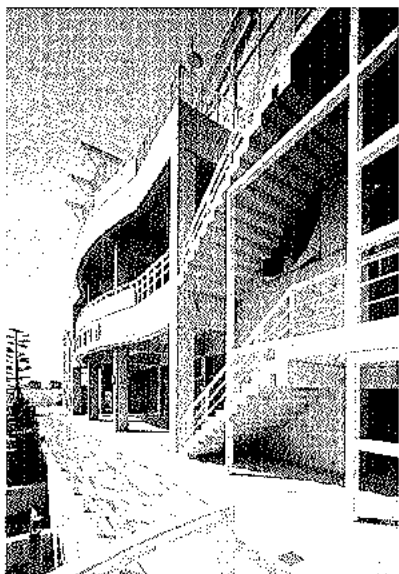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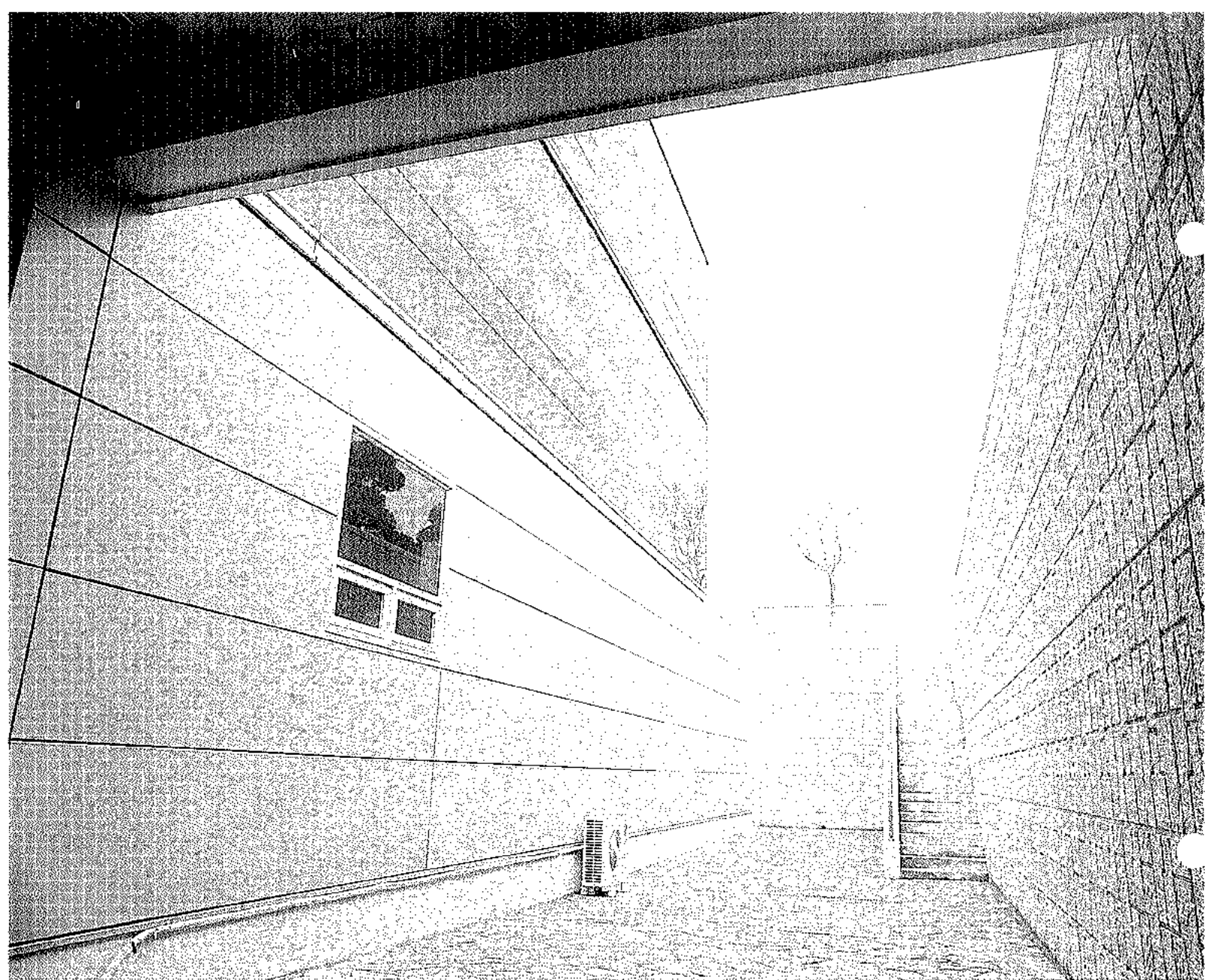
경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는 전시장,
2층에는 식당 및 스낵 코너, 3층에는 최신 설비의 스쿼시
코트 3곳과 90평 크기의 헬스 클럽을 두어 현대적인 조형
미와 창조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였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본 형태를 갖춘 체
육관의 기능적 배치보다 경사진 지형 자세의 상승적인 이미
지가 매스에서 계속 연계되어 자연과 인위가 조화되는 형태
로서, 주위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매스를 형상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1층부터 2층까지 뚫린 중앙 로비 홀과 이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양측 계단으로 기본 형태를 갖추
고 외벽은 커튼월로 하여 차단감을 없애고 개방적인 공간
으로 만들고자 했다. 관객 및 귀빈, 선수, 관리 동선을 기능
적으로 분리 타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배치하였고,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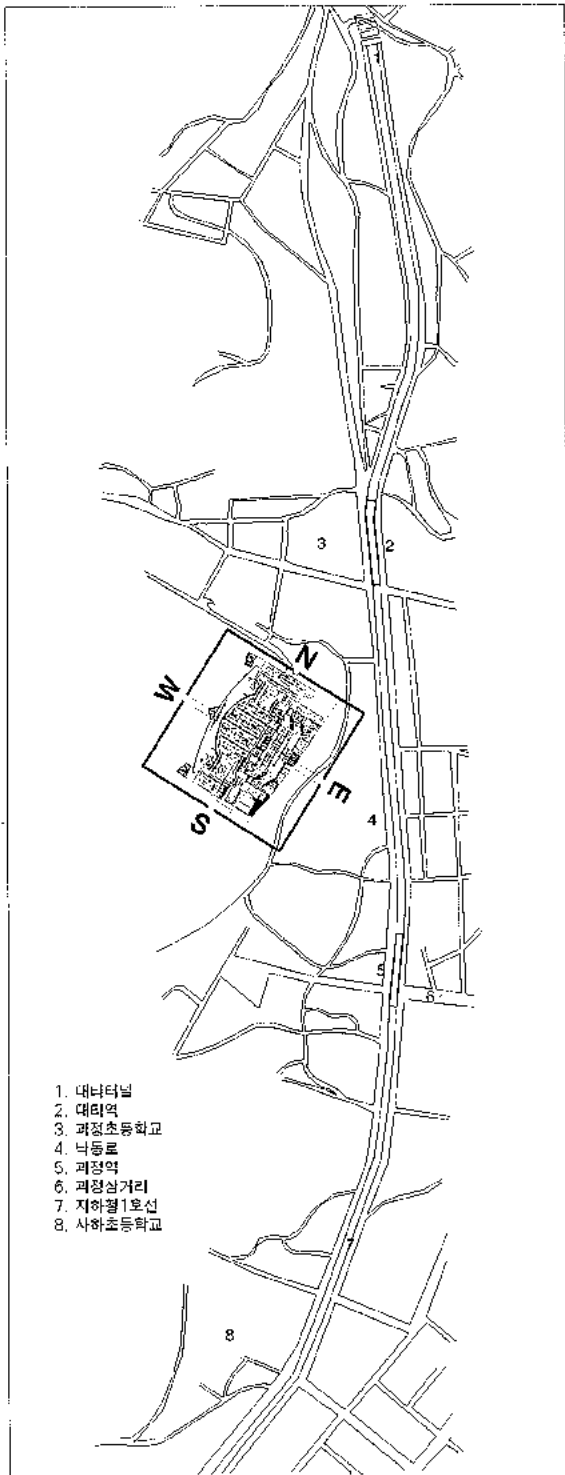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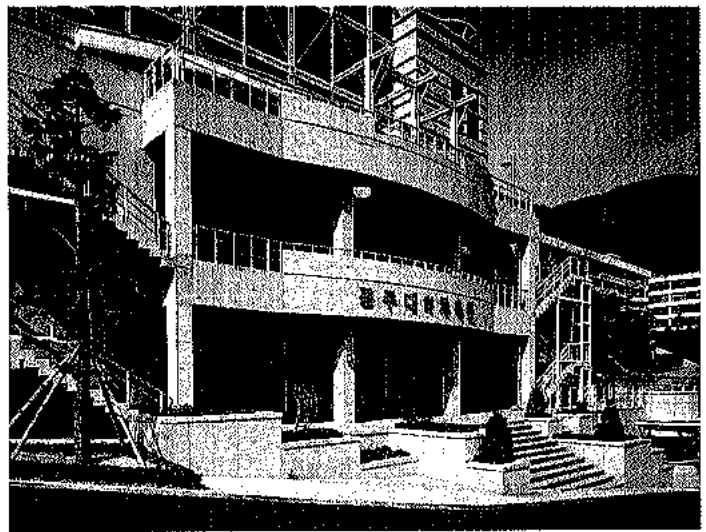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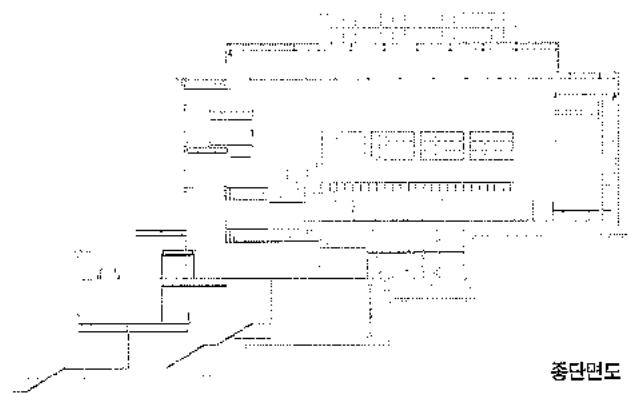
색채는 체육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생각, 노출콘크리트의 사용 및 밝은 색의 재료를 기본 색채로 하고 창틀, 철골부재 등 강조하는 곳에 적, 청, 녹색의 다채로운 색의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이 체육관이 학교 체육시설로서의 모든 것은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체육과 문화의 장소로서 시민 생활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체육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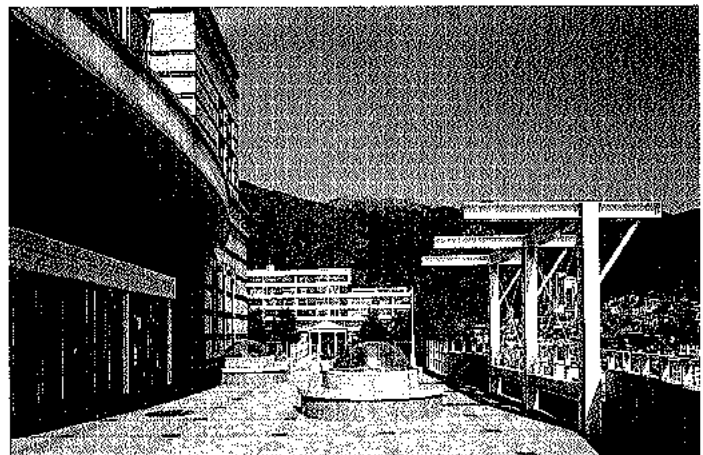


1. 대덕터널
2. 대덕역
3. 괴정초등학교
4. 낙동로
5. 괴정역
6. 괴정삼거리
7. 지하철1호선
8. 사하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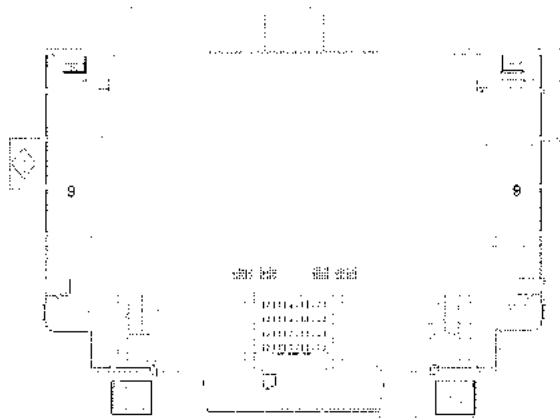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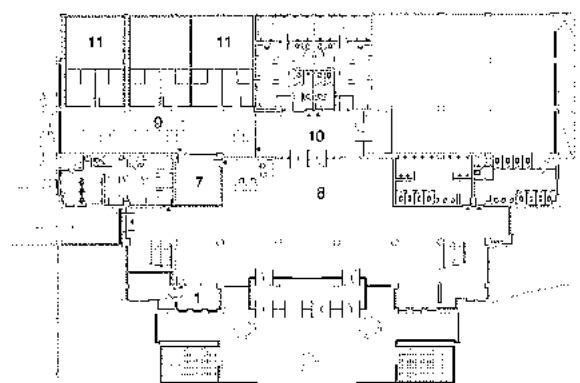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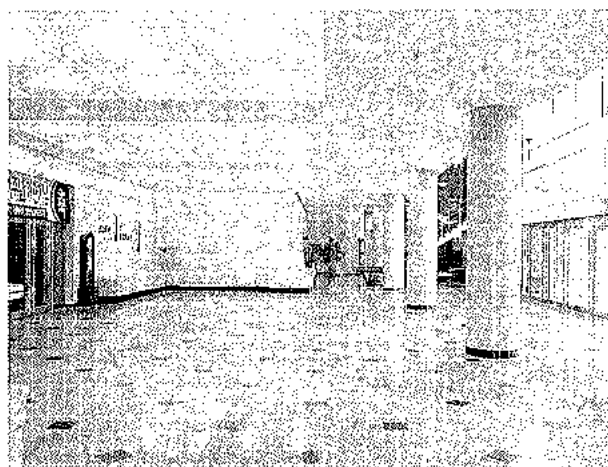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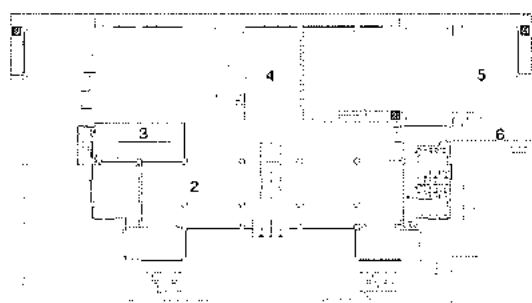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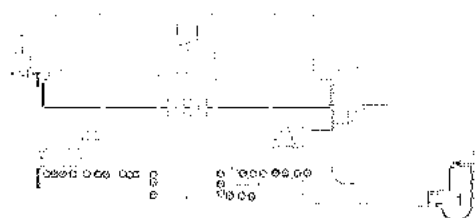


피로타 옥상층 평면도 및 지상2층 평면도



피로타 2층 평면도 및 지상1층 평면도

1. 경비실
2. 학생휴게실
3. 주방
4. 기계실
5. PIT
6. 연결다리
7. 사무실
8. 로비
9. 관할식
10. 공
11. 스위치



피로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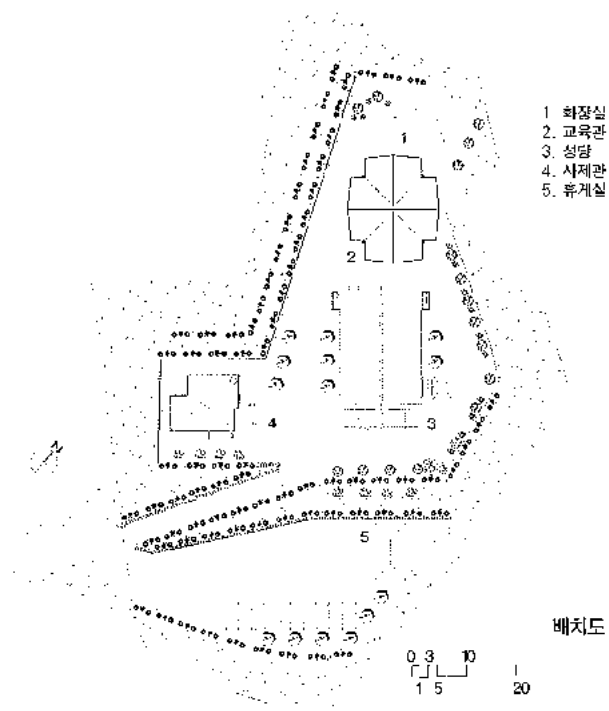


광혜원 성세실리아 성당 Kwanghyewon St. Cecilia Catholic Church

조구현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Ku-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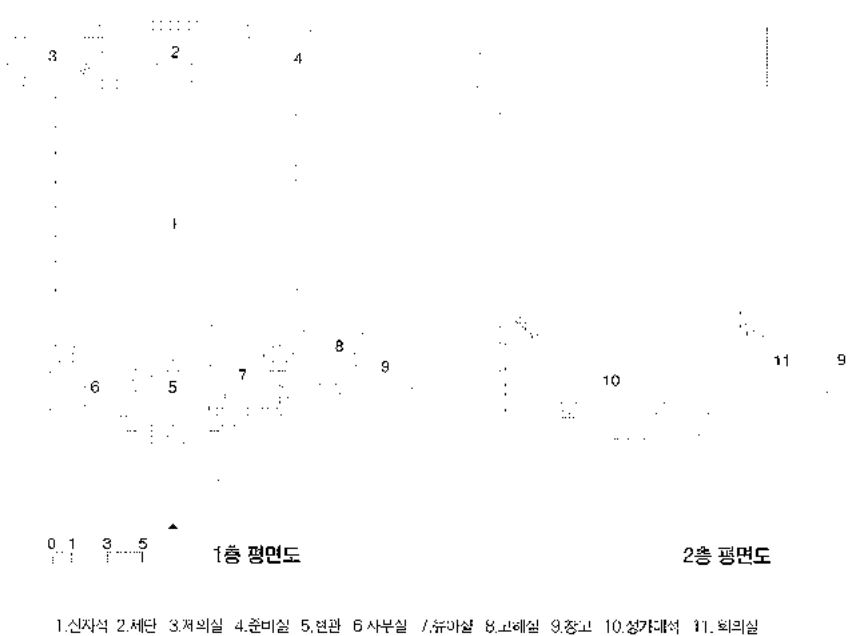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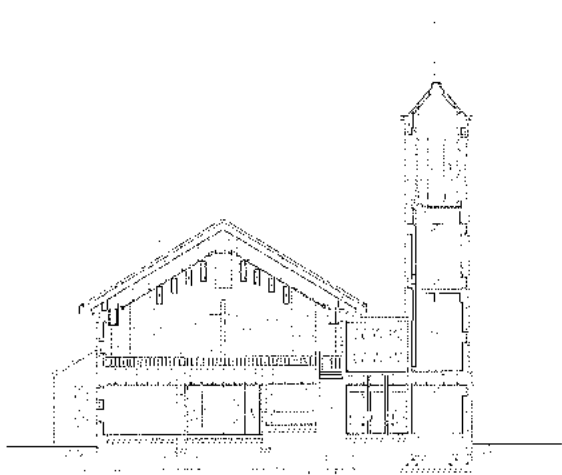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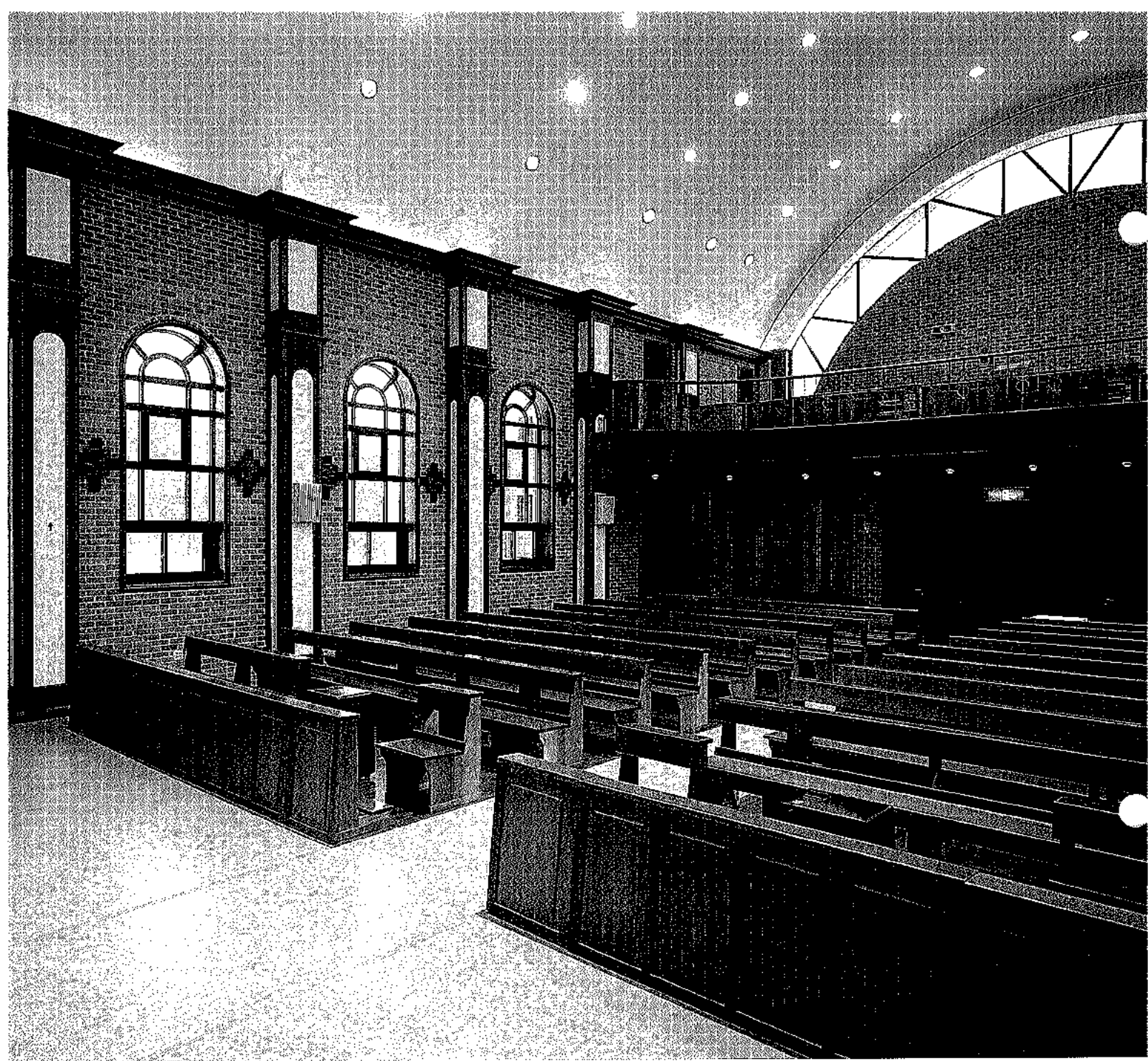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진천군 민송면 광혜원리 산24-1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종교시설(천주교회)
대지면적	8,611㎡
건축면적	829.63㎡
연면적	960.25㎡
건폐율	9.63%
용적률	10.7%
규모	5개동,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9.65m
주차대수	10대
외부마감	벽돌치장쌓기
설계담당	윤정현, 한철, 조용상, 김남성, 강구혁
전기	화인전기
기계	화인설비
건축주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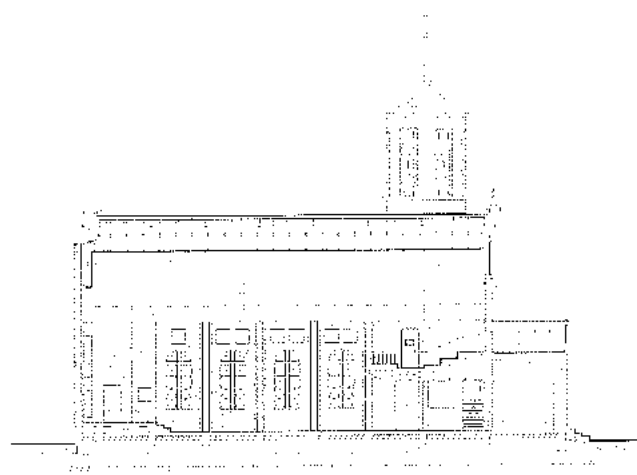


진천 광혜원에 위치한 성세실리아 성당은 외부와의 격리된 조용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설계수주를 받을 당시, 본당 신부님은 부지를 정리해 놓고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설계를 의뢰했고, 기본설계가 진행되던중 한번의 설계보류가 있었다. 그리고 1년 쯤후 신부님은 '산'과 '시골'이라는 조건에 어울리는 소규모지만 아담한 성당의 이미지를 부탁했고, 톱으로 나무를 베고 포크레인으로 흙살을 깎아 자연을 해친 것에 미안함이 많았다면서 작은 것에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기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매스가 주는 질량감에 부담감을 느껴 전체적인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게 되었다. 본당의 위치 및 평면계획은 조망과 부지 정리형태에 순응하여 정방형으로 배치하고





원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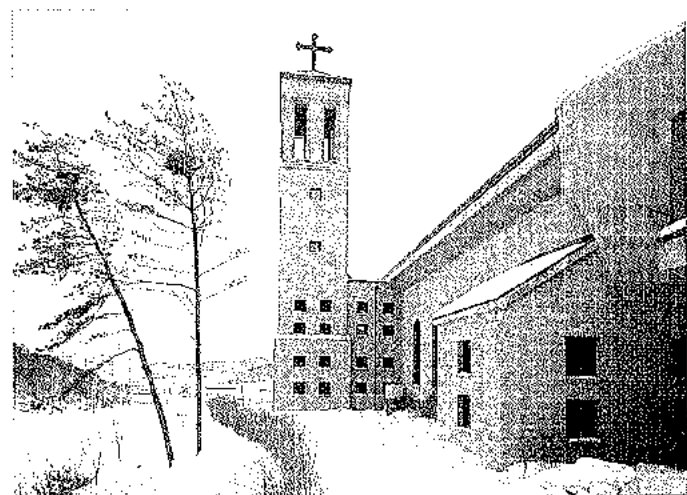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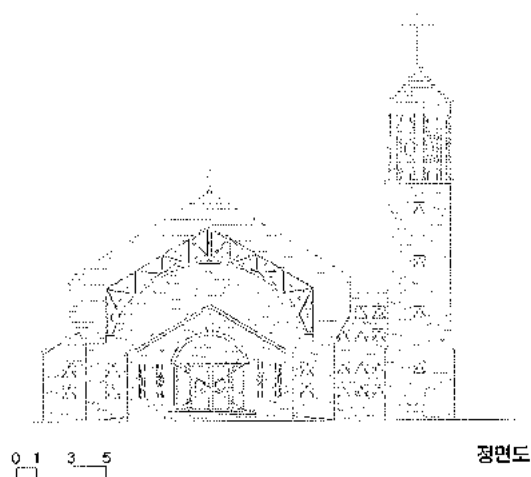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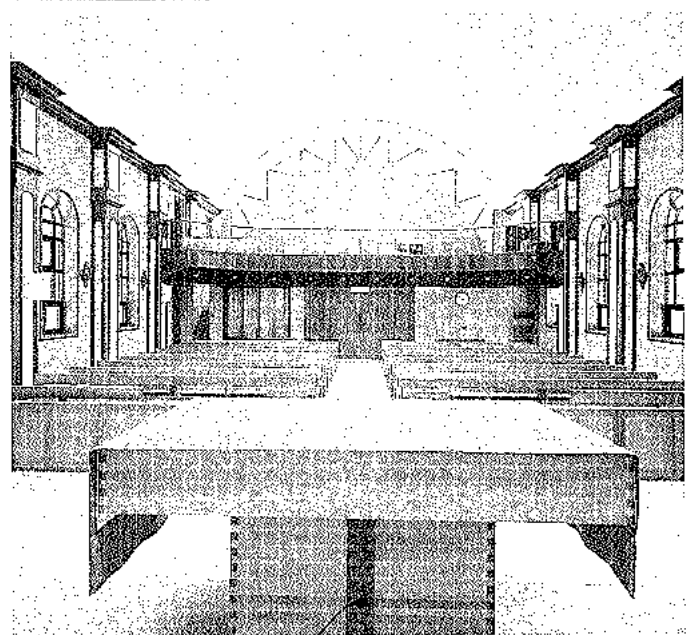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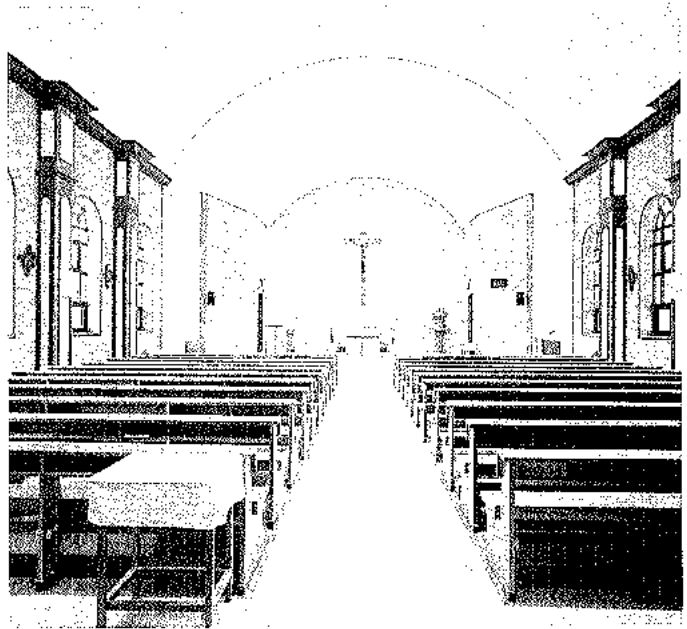
종단면도

0 1 3 5

전체적으로 심플(Simple)하면서도 매시브(Massive)한 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건물외관은 입면의 모티브(Motive)인 삼각형의 지붕선과 반원형선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매스(Mass)가 주변산의 스카이라인에 동화되도록 너무 높지 않게 계획하려 하였으며 우측에 종탑을 두어 좌.우 대칭인 본당의 이미지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외부 마감재로는 주로 토석로즈벽돌로 사용하였고, 지붕선에 평행하게 사자형 유리창을 두고 그 위에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여 지루한 느낌을 완화시키도록 의도하였다. 또 노출콘크리트면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전면으로 기울게하여 두터워지며 균형감과 무게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하였다.

본당의 내부는 밝은색 벽돌의 온온함과 라운드된 천정의 유백색의 깨끗함이 전면창의 채광과 어울려 자연과 친화하는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였다. 圖



@트윈

@TWIN

박병철 / 건축디자인그룹 이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Byeong-Cheol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창원시 웅호동 53-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98.4㎡
건축면적	217.1㎡
연면적	323.2㎡
건폐율	
용적율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벽: 베이스패널/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지붕: 동판
내부 마감	바닥: 우드 플로링, 보타치노 벽체: V.P, Wall Paper 천장: V.P
시공자	하우·빌 (How·vil) / 이병명
설계참여	이병명, 홍인기, 이기훈, 양영훈, 김정호, 박해민, 엄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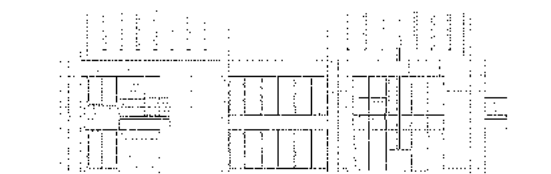
건축주와의 만남

건축주는 나와 첫 만남이 있기 전 이미 웹 사이트를 통해 그간의 작업들을 이미 둘러본 후였다. IT 사업가이자 3D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자인 건축주에 대한 첫 생각들: 첨단분야 사업가로서 전문가 이상의 까다로운 주문을 할거라는 짐작들과는 달리 건축주 부부의 만남은 '두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란 명료한 한가지 목적만을 던져주었다.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건축주 부부와 나눈 소박한 이야기들은 건물이 완성된 지금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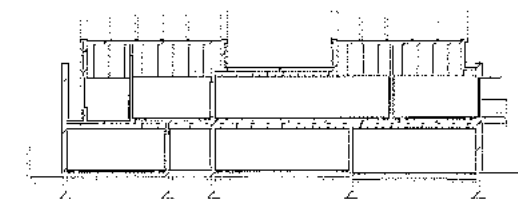
가로와 또다른 풍경

대지 앞 건너편에는 자그마한 잔디마당이 있어 여름날 산책하는 동네 사람들이 해질녘의 바람을 즐기는 곳이다. 이 대지에 들어설 집은 이러한 이웃에 대한 풍경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노출콘크리트 담장과 대문의 추상적 구성,



정면도



측면도



그 너머로 가만히 뻗어 올린 노송과 백일홍 가지의 천연스러움, 콘크리트패널과 그 속에 가만히 들어앉은 황토색 벽돌의 소박한 집 두 채, 그를 연결하는 투명한 내부 공간과 텃마당까지 들여다보이는 집의 깊이, 시멘트패널을 뚫고 오른 연통의 긴장감들, 이러한 것들이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림들로 기억되고, 우리 것의 자연스러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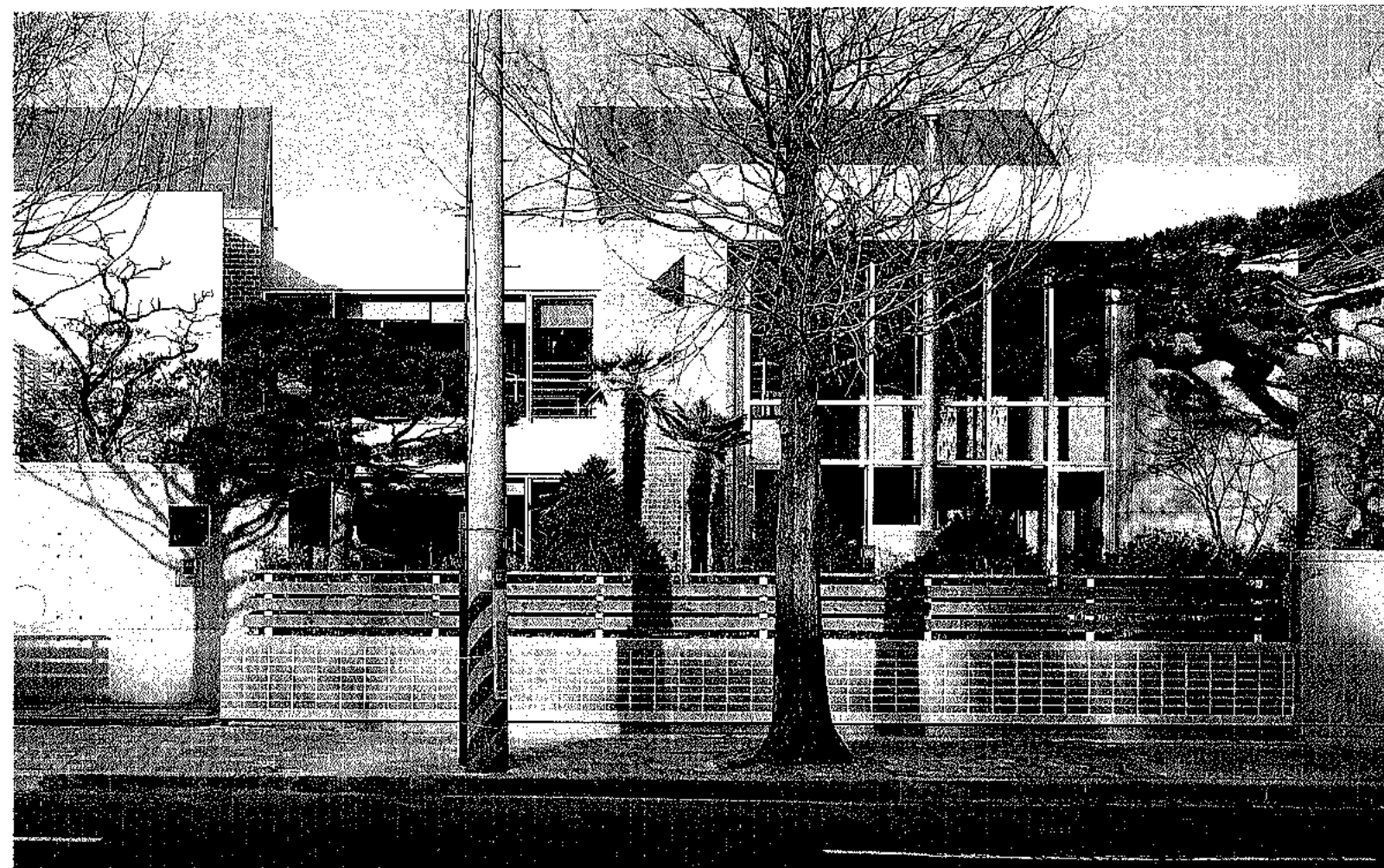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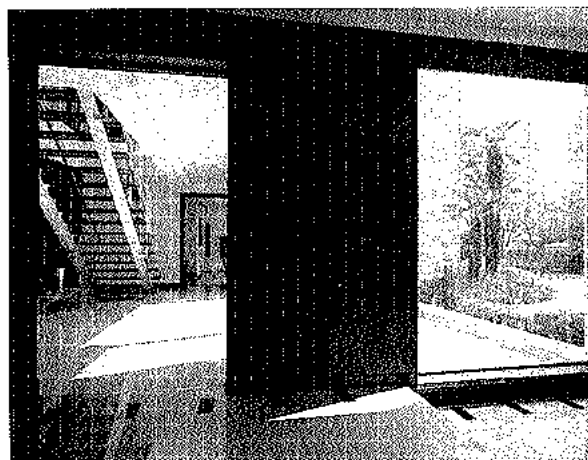
돌아들기

콘크리트 벽의 굳건함에 끌려 집안을 돌아들면 마당과 집의 풍경이 문득 다가선다. 현관까지의 길지 않은 밝음이 산책 나왔다 돌아가는 여운의 느낌으로 남고, 바닥에 놓인 폐목의 오래된 느낌이 해질녘 산책길의 너그로움으로 발바닥에 느껴지겠다.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의 행복한 풍경이 연못너머로 보이고 미중 나오는 주인의 손흔드는 모습이 있다. 현관과 복도를 타고 앞마당에 늘어선 연못의 하얀 조약돌, 그리고 바깥결이 살짝 걷어올린 잔잔한 물결이 이 집에 사는 이를 손님들에게 말없이 전해 줄 것이다.

살아기는 풍경

식당에서 바라보이는 텃마당의 풍경은 창 가득





그림이 된다. 깊은 바다의 파랑을 가진 벽과 가을의 잘 익은 감색 그리고 계절마다 변하는 뒷마당의 푸르름이 식당에 가득하다.

2층 작은 거실에 앉은 딸아이가 1층 거실의 엄마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그러한 행복함이 반투명 스크린의 저녁 불빛으로 스며들어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오르는 길은 담장 저 너머 잔디마당의 사람들도 보이고 뒷마당 너머 동네의 집들도 보인다. 그러다 마주치는 엄마의 숨겨 놓은 전시물이 하얀 벽면 한켠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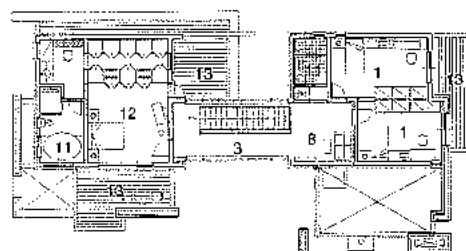
부부가 있는 침실에는 콘크리트패널 벽의 무덤덤함이 저 너머 나무 풍경들 한 부분을 가려 숨을 곳을 만들고 발코니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그들만의 공간이 된다. 나이가 들고 애들이 떠났다 돌아올 때 대문까지 손 흔들며 마중할 수 있는 발코니의 풍경이 있을 법한 곳이다. 침실문을 열면 아적도 같이 자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공간, 딸애들의 작은 거실이 보인다.

두 딸아이의 방에는 문 하나가 서로 연결하고 있어 언니와 동생의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친구들이 놀러와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발코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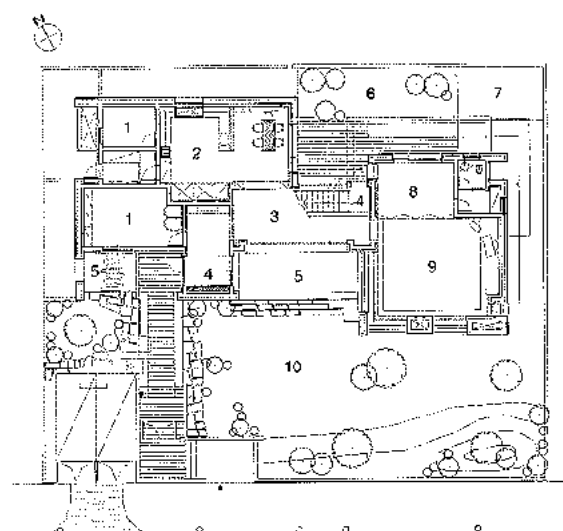
따라다니는 생각

매번의 주택디자인이 그러하듯 건축적 해석과 FUSION, CROSS OVER, ZEN과 같은 유행적 코드만으로는 가족의 바람에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대지를 보고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을 공유하는 것, 그러한 작업들을 전문적 코드로 치환하여 내외부공간과 재료의 물성, 소품과 가구를 코디네이션하는 작업, 그리고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길면 길수록 가슴 한쪽에 오래 남아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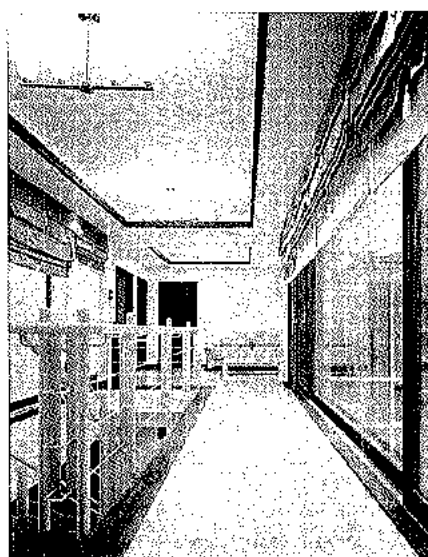
- | | |
|--------|--------|
| 1. 방 | 8. 가족실 |
| 2. 주방 | 9. 거실 |
| 3. 욕조 | 10. 정원 |
| 4. 현관 | 11. 욕실 |
| 5. 수공간 | 12. 안방 |
| 6. 화장 | 13. 테크 |
| 7. 뒷방 | |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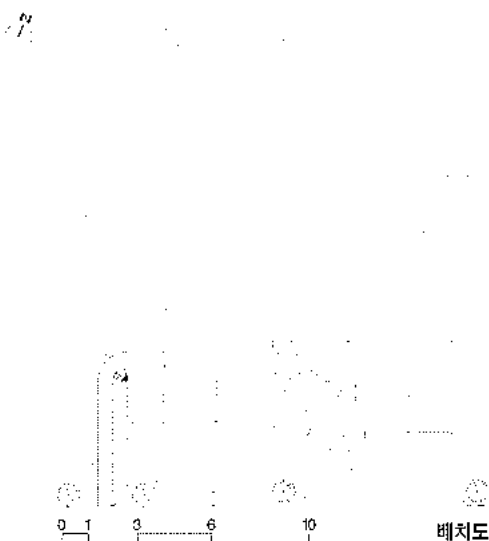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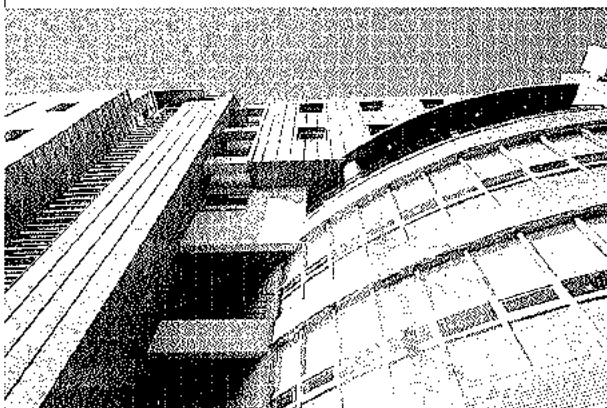
대한사회복지회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최동규 · 조영학/(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 Cho Young-Hag

건축개요

위 치	강남구 역삼동 718-32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356.16㎡(107.74평)
건축면적	203.87㎡(61.67평)
연 면 적	1797.36㎡(543.70평)
건 폐 율	57.24%(법정:60%)
용 적 륜	362.86%(법정:1000%)
주차대수	4대(제한대수)
규 모	지하2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비닐쉬트, 마천석 물갈기 벽/천연수용성페인트, O.A.K무늬목 천장/석고보드+천연수용성페인트
외부마감	VM ZINC, 드라이비트, 24MM복층유리
설계담당	김 우 경, 정 순 원, 김 종 원
설계기간	1999. 2.~1999. 5
공사기간	1999. 10.~2000. 12.
인테리어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구 조	산아구조
기 계	기한엔지니어링
전 기	성일엔지니어링
시 공	대륙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곽 영길
감 리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건 축 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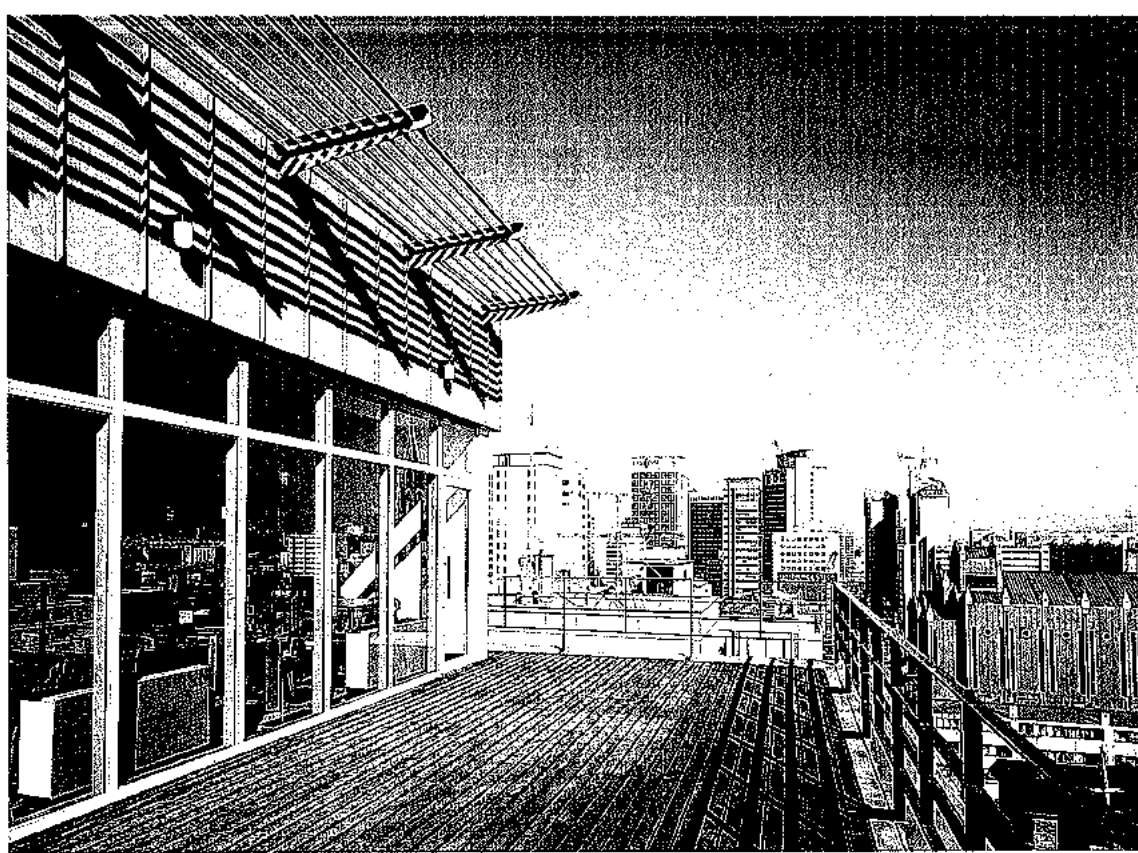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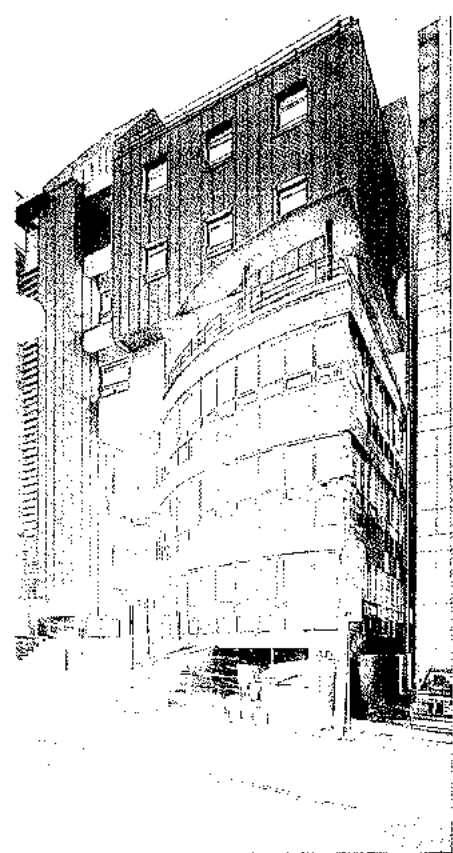
손님의 집(GUEST HOUSE)

「몇 년전에 “스잔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국내영화를 보았다.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어린이의 성장과정을 실화를 토대로 만든 것인데, 성공적이지 못한 이야기들로 표현되어 있어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듯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스잔브링크는 이 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중의 일부는 영화로서의 재미를 주기위해 실제와 다른 상황설정도 많은 부분 도입되었다고 한다. 준공식때 대거 참석했던 스웨덴, 미국, 캐나다에서 온 이 기관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후원자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정말 이들이 고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보내준 돈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기관은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국내 및 해외입양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당초에 건축주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맡겨진 아이들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또 입양했던 아이들이 지라서 다시 귀국할 때 잠시 묵을 수 있는 저렴하고 편한 숙소공간과 또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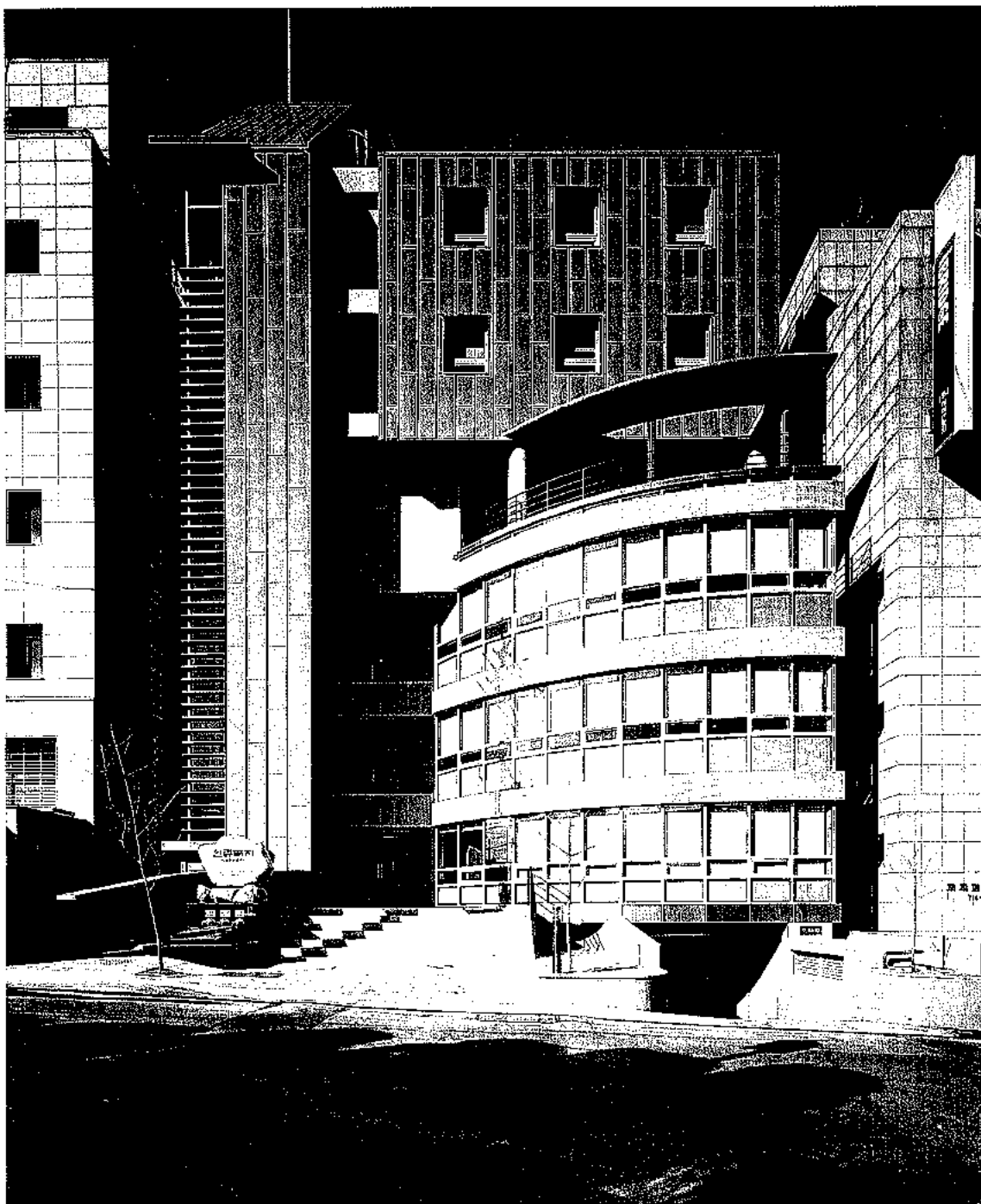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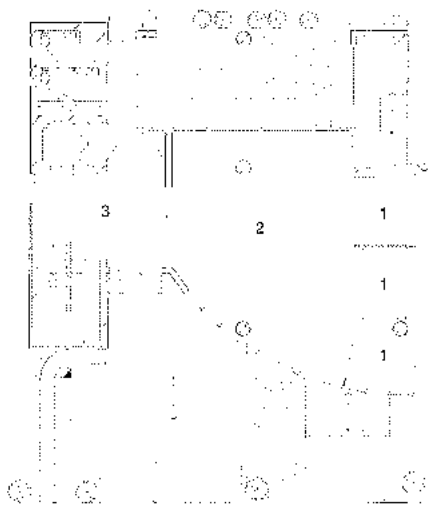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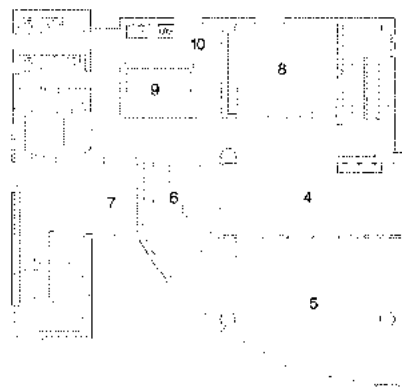
0 1 3 6 10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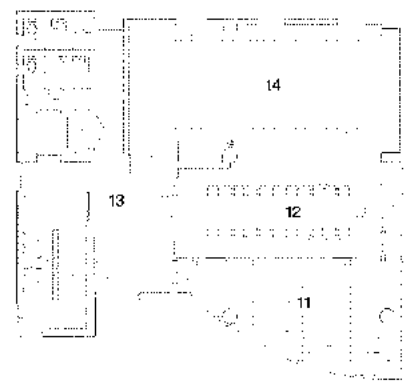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1.상당실 2.사무실 3.홀 4.보통실1 5.보통실2 6.관찰실 7.홀 8.적리실 9.양호실 10.조리실 11.여객유식공간
12.대회의실 13.휴게실 14.집회실 15.주방 16.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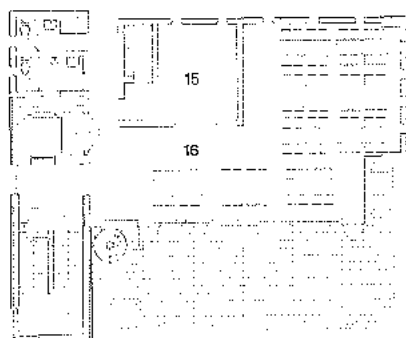
부모와 같이 올 경우 한가족이 일정기간 체재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떠한 기능의 건축이든, 건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최근의 나의 생각은 마치 여객선 같은 모습의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대개의 건축물과 건축 공간이 공간을 구속하는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런 공간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려다보니 여객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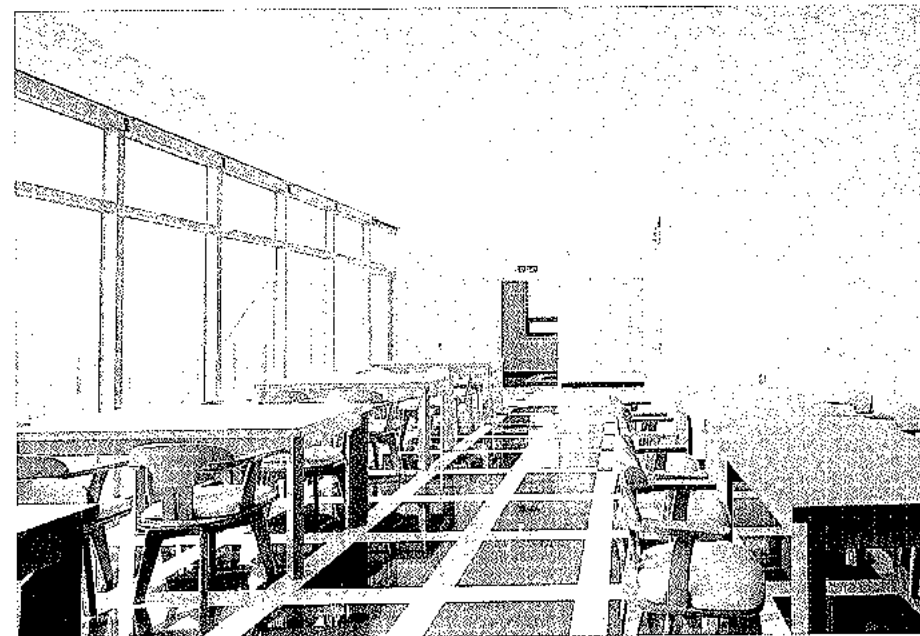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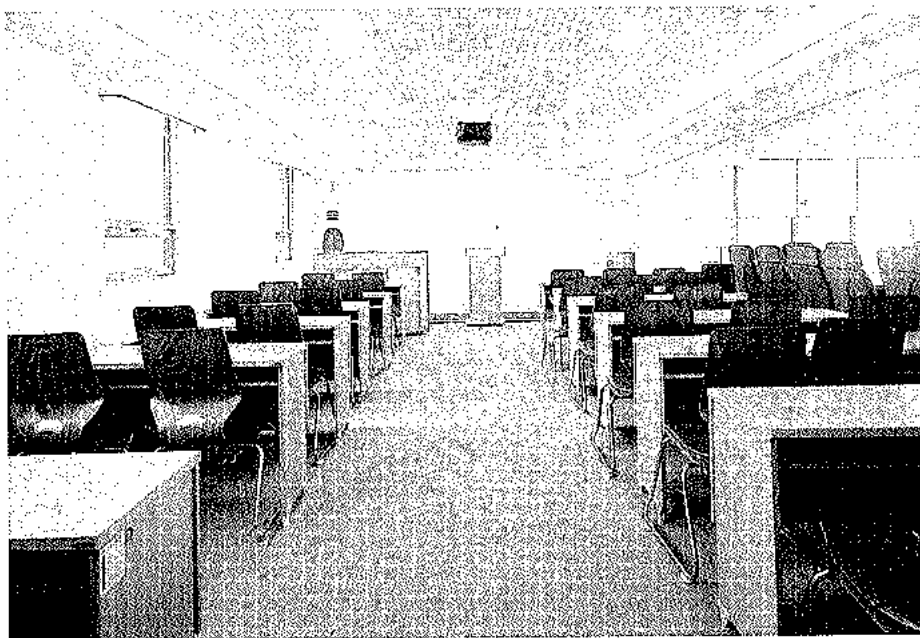
여객선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는 주로 갑판 위의 오픈스페이스가 주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배는 바다에서 더 고립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고립감을 갑판 위의 오픈스페이스가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칠층 높이의 건물에서 사층에 옥외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또 칠층 식당에 테라스가 있는데 칠층 식당의 테라스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배의 갑판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계획하였다.

완공 후 사층 테라스에서 도로를 내려다 보며, 또 건물의 윗부분을 보며 사용자들이 건물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겼고, 이것이 실제로 건물과 사용자들에게 여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칠층 식당 앞의 테라스에서 보이는 전망은 도심의 바다의 원경과 근경이 다 보임은 물론 남향받아서 이 건물에서 최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떠있는 배와 같은 건축 그것이 바로 의도하였던 바다. 



7층 평면도



기아자동차 인재개발원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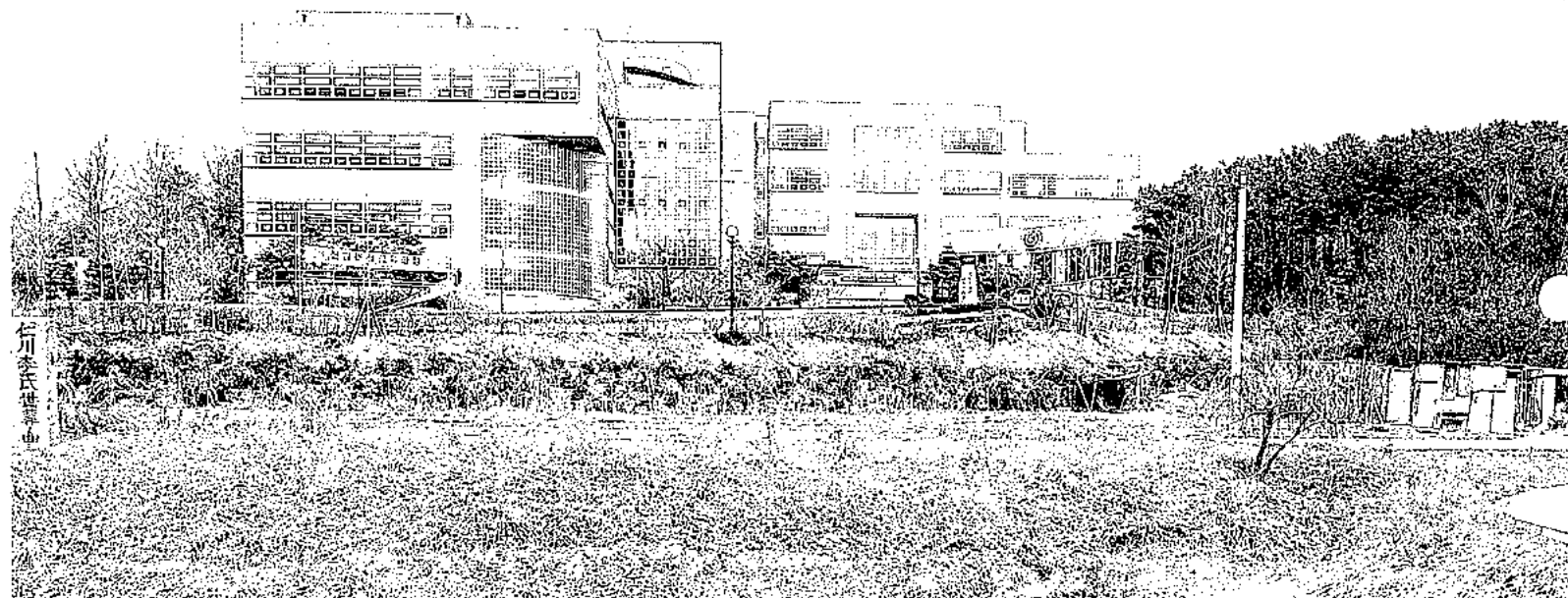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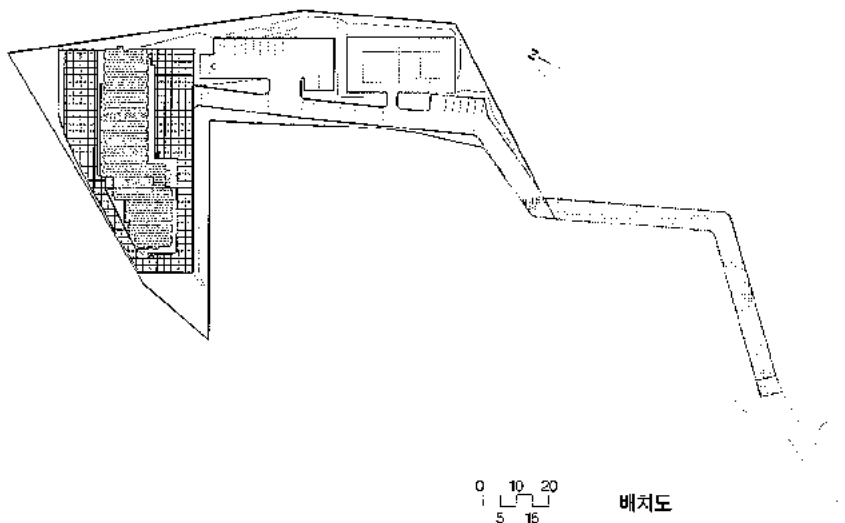
Kia Motor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Dormitory

김선양 / (주)한중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n-Yang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44-6
지역지구	준 농림지역
대지면적	7,340.00㎡
건축면적	873.66㎡
연 면 적	5,291.08㎡
건 폐 율	11.9%
용 적 륜	58.88%
주요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와 맨조
설 비	판넬히팅+냉방 F.C.U
외부마감	적벽돌차장 쌓기, 12mm칼라 복층유리
시 공 자	H LAND(주)
공사시간	2000. 3~2000.10
기 계	성일이앤씨
전 기	보우타앤씨
인테리어	디자인 바우하우스
구 조	정원구조
건 축 주	기아자동차(주)





직장인의 재 충전을 위한 연수시설에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의 계획

답답한 도시에서, 작업장으로부터 해방감과 자연의 신선함을 제공해 주기위해 선택한 부지위에 기존 연수원과 연계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대지는 L자 형상으로 기존 연수원 부지 뒤편 약 1.5m정도 높은 2,200평 대지로 주변은 야산지대이며 기존 연수원 시설의 정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시 우리는 세가지의 주요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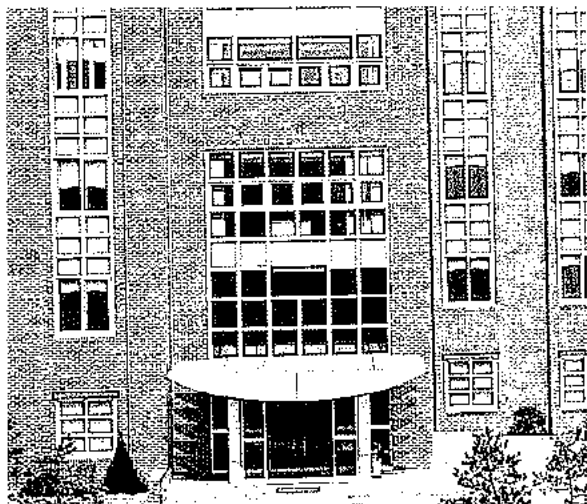
첫째, 기존 연수원과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현 대지 형상에 순응하는 안. 둘째, 일반 기숙사의 단조로운 형태를 보다 변화 있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안.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안.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계획 요소들이 설정되었으며 건축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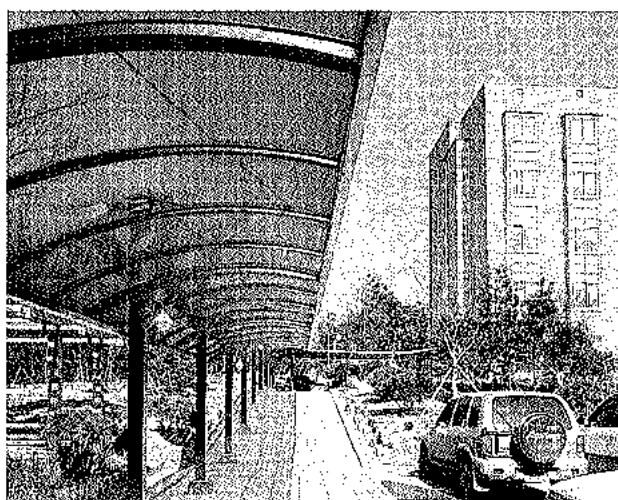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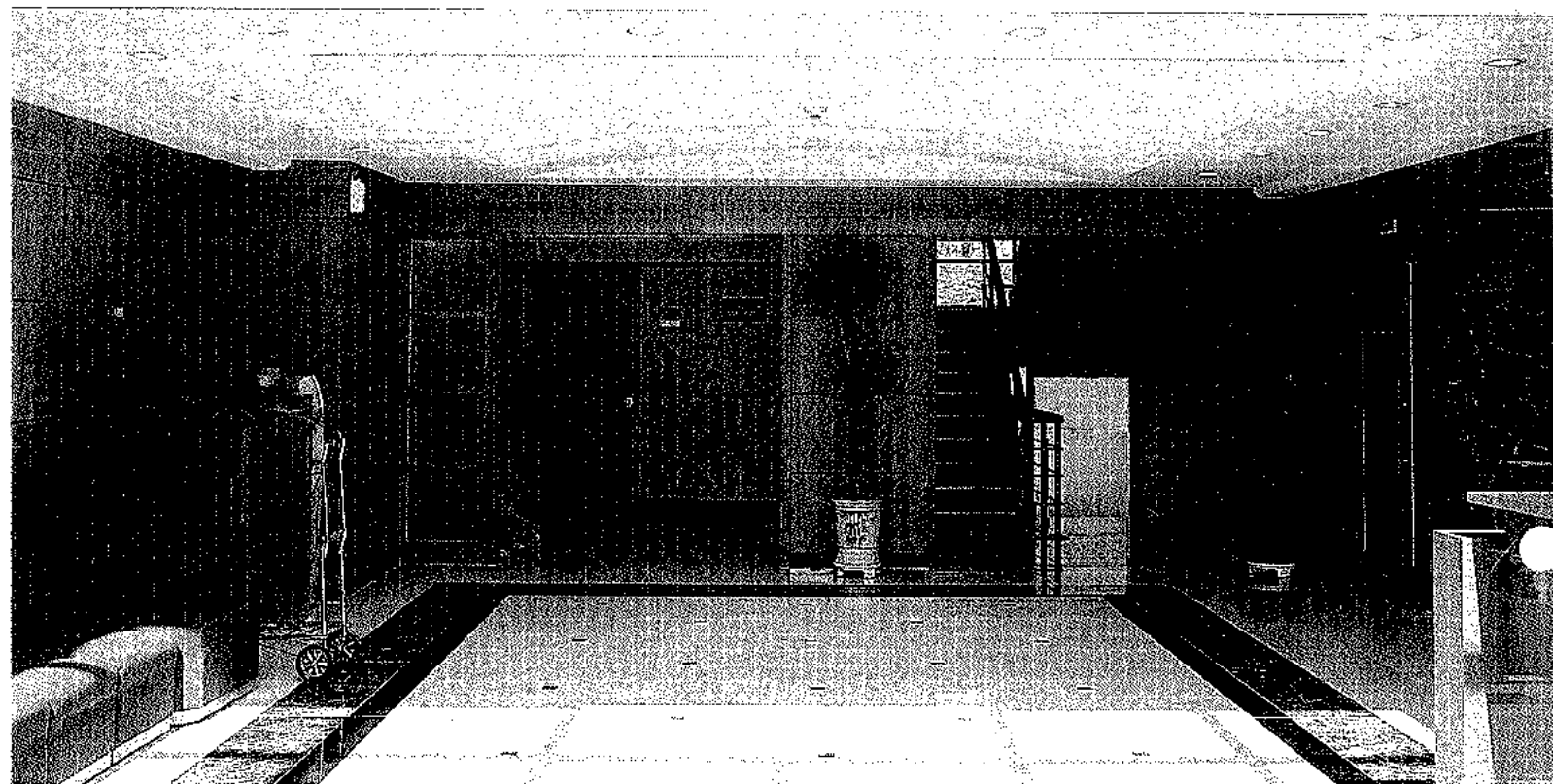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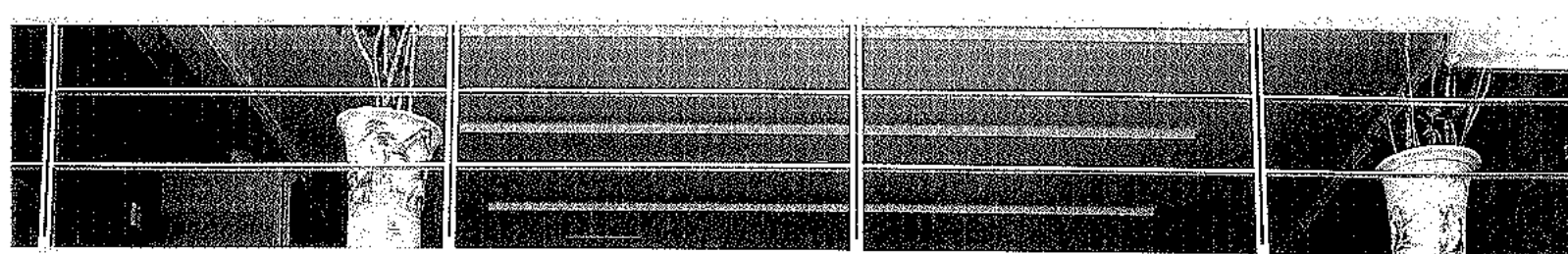
배치 계획은 L자형 형상의 대지를 잘 활용하면서 필요한 주차장과 충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연

수원의 측에 나란한 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동선 계획은 기존 연수원에서 진입되는 주출입, 연결 통로의 우측 계단실과 연계된 부출입구의 3개 보행자 동선 및 구별하여 우측 하부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스럽게 처리된 진입까지의 차량동선으로 분리하였다.

평면 계획은 2인 1실도 각 개인의 프라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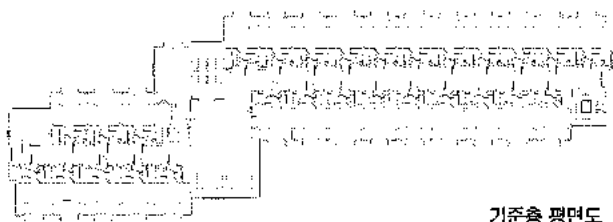


시를 최대한 존중한 동질화된 기본 UNIT에서 중앙홀의 휴게 공간 및 모임 방이 있는 중심축으로 각 층별 변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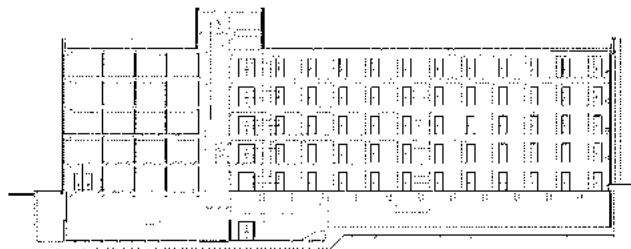
입면계획은 기존 연수원과 동일재료인 적벽돌을 사용하였고 단조로움을 탈피하면서 기능적으로 유리하도록 불박이창을 계획하여 입면에 멋스러운 요철을 연출해 냈다. 또한 캐노피는 입면에서의 규칙적인 단조로움 대조를 이루도록 변화있는 디자인을 추구 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계획된 기숙사는 이제 정문 진입 시부터 각실 내부 침실에 도달하기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대찬 분위기를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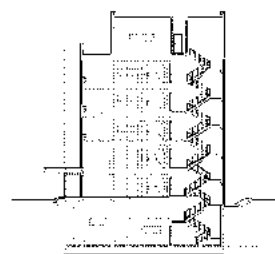
“자연과 조화되면서 영원히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 이기를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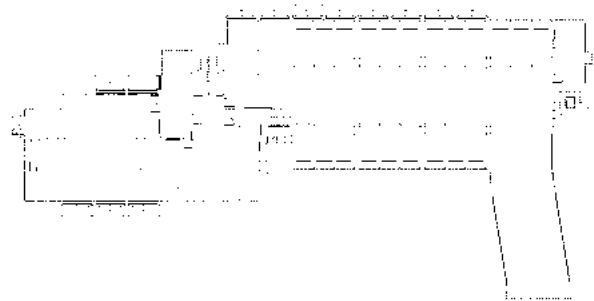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0 5 10 1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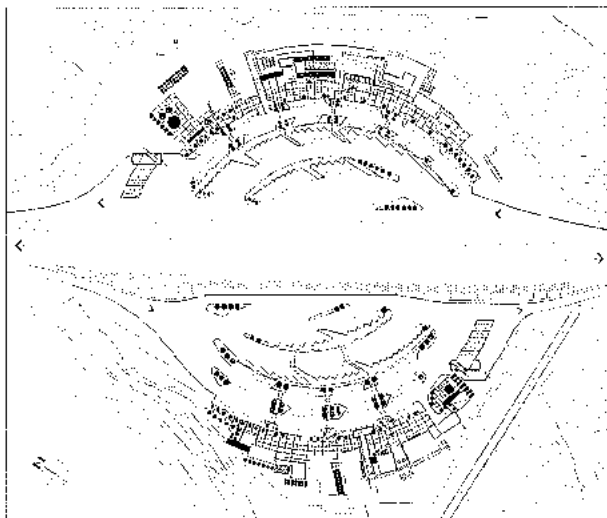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이충기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Kee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북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지 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대지면적	상-51,171.55㎡ / 하-48,436.23㎡
건축면적	상-2,216.75㎡ / 하-2,905.77㎡
연 면 적	상-3,087.50㎡ / 하-3,809.63㎡
건 폐 율	상-4.33% / 하-6.00%
용 적 률	상-5.29% / 하-7.86%
규 모	지상 2층, 지하 1층
구 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자기질타일, 비닐페인트 탈라락카, 적송후로링, 무늬목
외부마감	알루미늄 쉬트패널, 노출콘크리트, THK24컬러 목층유리
구조설계	세원구조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세종기술주식회사
기계설계	(주)범창종합기술
인테리어	(주)ATM인테리어,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시 공	(주)두산건설, 범양건설, 벽산건설
건 축 주	한국도로공사
설계담당	도성열, 서유찬, 이종원, 김미, 이광석, 남기종, 이상복



상/하행선 배치도

路·道·Road·Way·Mean·Street·길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길이 있다. 눈에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보이는 길은 우리는 道, 혹은 路라고 하며, Road, way, Street라고도 한다.

보이는 길은 길 위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으며, 물 위에도, 물 속에도 있다. 보이지 않는 길은 방법이라고도 하고 Mean, Way, Method라고도 하여 인생이나 추억의 뒤에 불기도 하고 책 속에도 들어가 주로 거창한(?) 의미로 쓰인다.

길에는 살아가는 행위가 있고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이 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위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러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떨리는 눈시울로 시간 속에 묻히기도 하고, 더러는 길 위에서 감추지 못할 기쁨과 힘겨운 삶의 시위가 긴 행렬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길은 인생 그 자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언제나 현명할 수는 없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숲을 벗어나야 숲을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침표를 찍듯이 한 번씩은 기던 길에서 벗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가야할 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길 위의 침터로 말이다.

길 위의 건축, 건축 속의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도로상의 속도경쟁에 걸맞게 재빨리 주차하고 서둘러 화장실에 들러 배설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 우동 한 그릇, 아니면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임시 주차장 정도일까? 그래서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고속도로 문화의 'episteme'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휴게소 인삼랜드는 분명 길 위의 건축이다.

그래서 길에서 길로 연장되는 건축이다. 길 위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 나그네의 여유를 위해 “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 길은 고속도로가 주는 Image인 속도와 선 그리고 그것들에서 느끼는 방향성에 대응한다. 아울러 여유를 두지 않은 기존 휴게소들의 주차장과 이용시설에 대한 종적동선에서 벗어나 이용시설과 이용시설을 연결하는 횡적 동선으로 강조된다. 그것은 외부에서의 동선이 내부로 연결되고, 레벨을 달리하며, 다시 외부로 연결되는 건축 속의 길인 것이다.

상·하행선 휴게소는 하나의 큰 원을 중심으로 한 선들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연결되고 순환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 안의 작은 다심원들의 선상에 주차장과 녹지 공간 보·차도 분리, 횡단보도, 점자블록, 휴게공간 등이 배치된다. 그리고 내·외부로 연결되는 길 사이사이에는 주변의 경관을 위한 막고 트임의 장치들이 계획되고 자연채광을 극대화하여 밝은 이미지의 쉼터가 되도록 한 것이다.

변명-일상으로 건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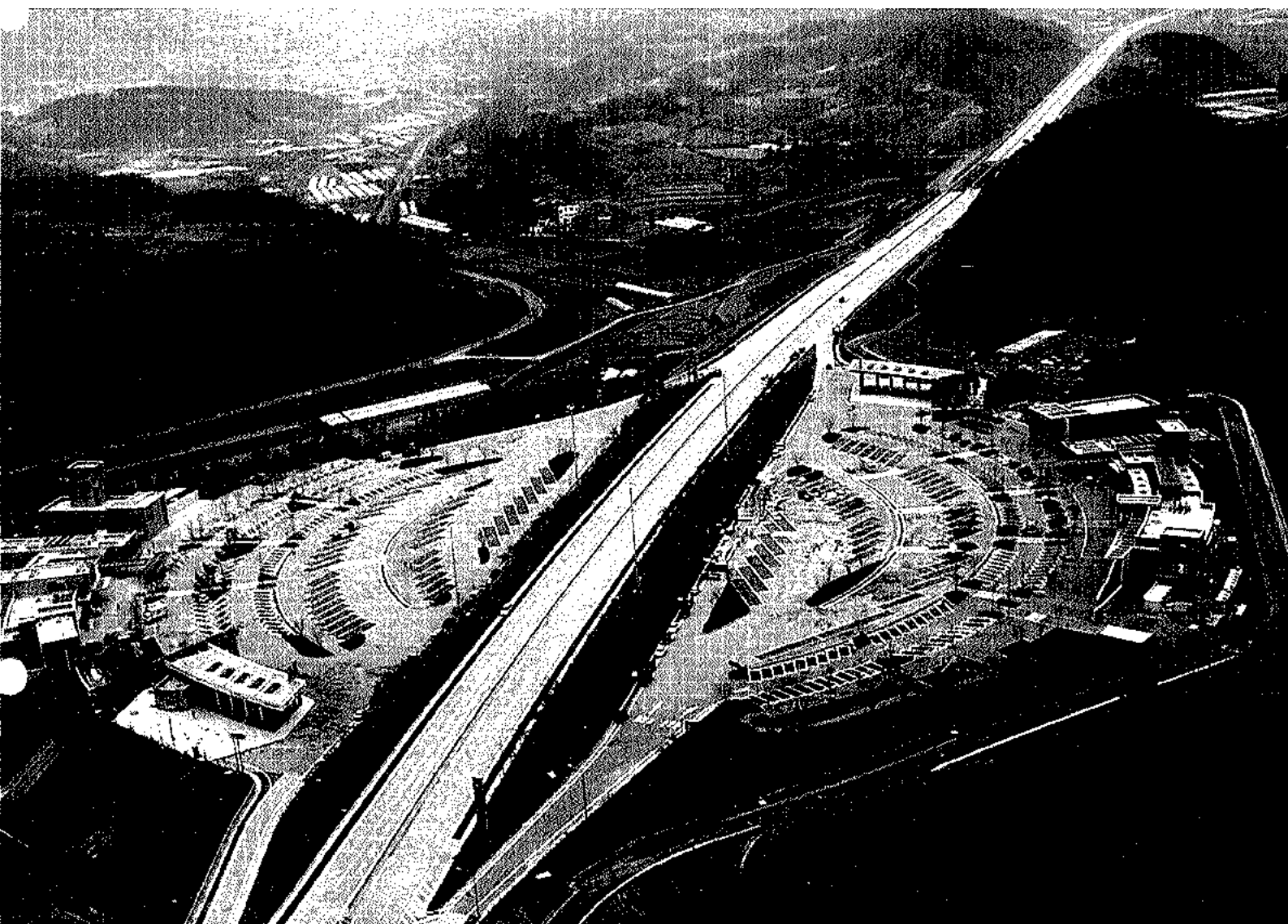
많은 제한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수용하고 더 나은 휴게소를 위해 수고해준 건축주(한국도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해도 부족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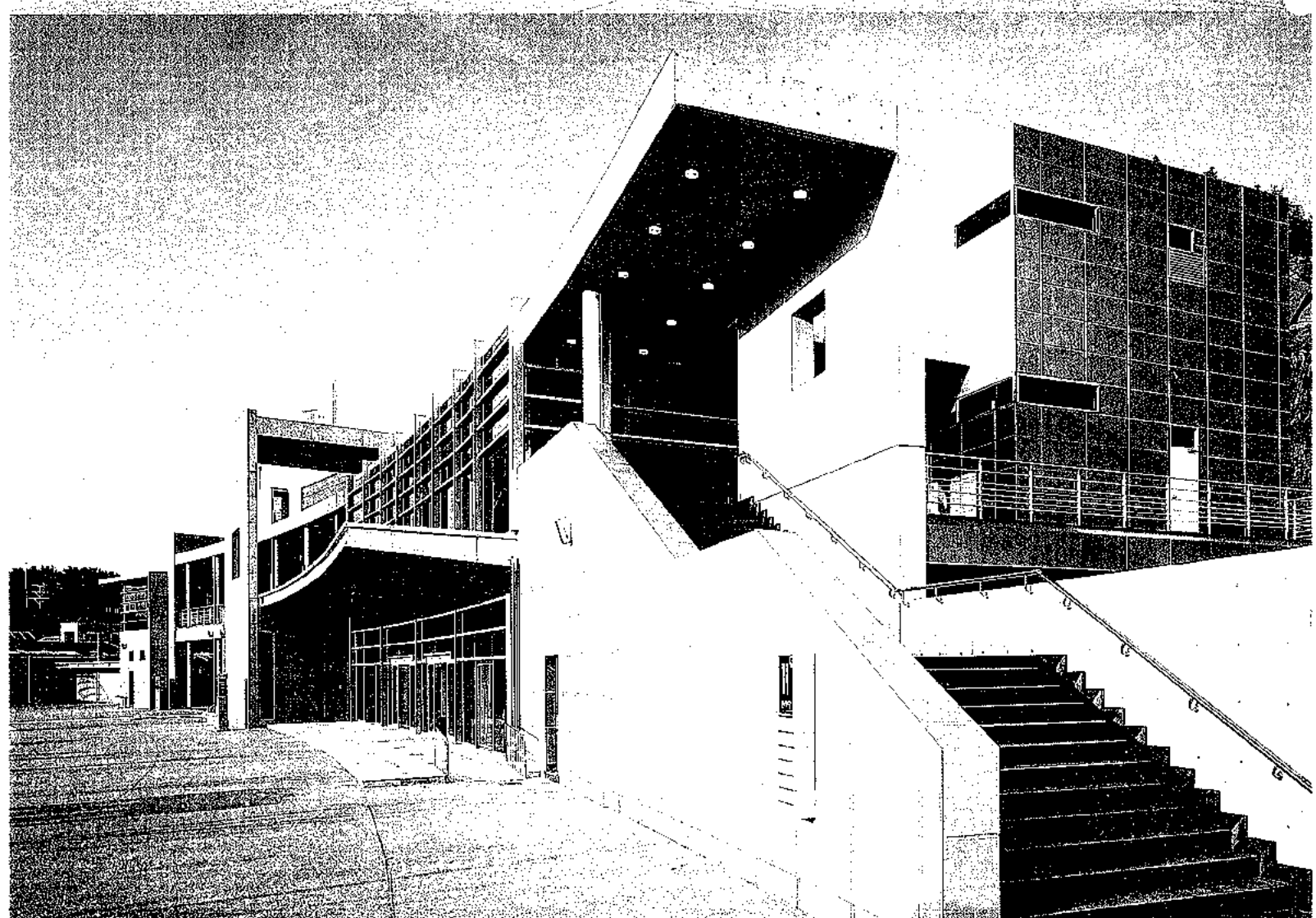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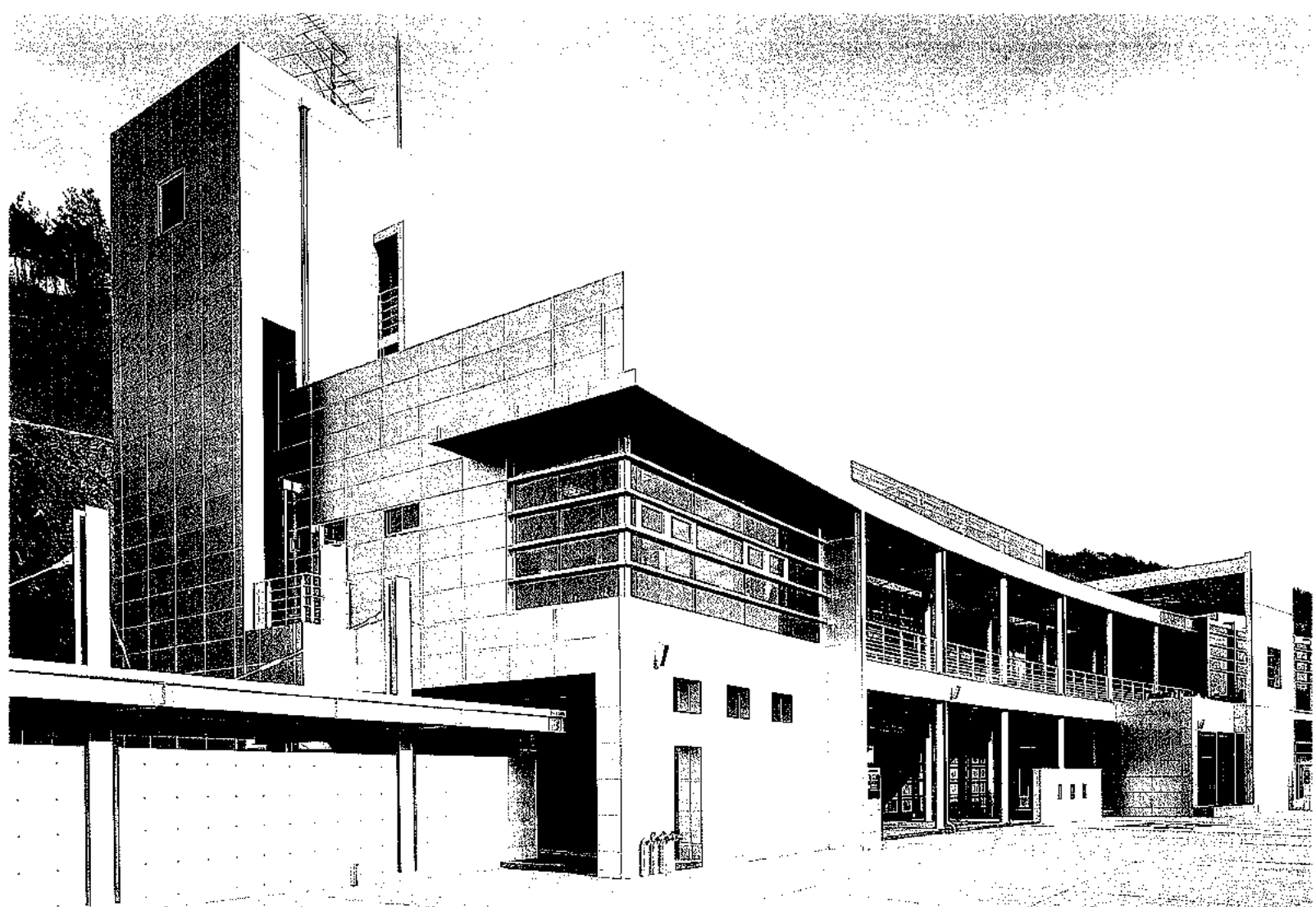
분은 그래도 남는다. 이번 휴게소 인삼랜드는 시간을 타기에는 나의 노력과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고 해도 다음에는 이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었지라는 각오가 사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듯이 나의 작업도 한꺼번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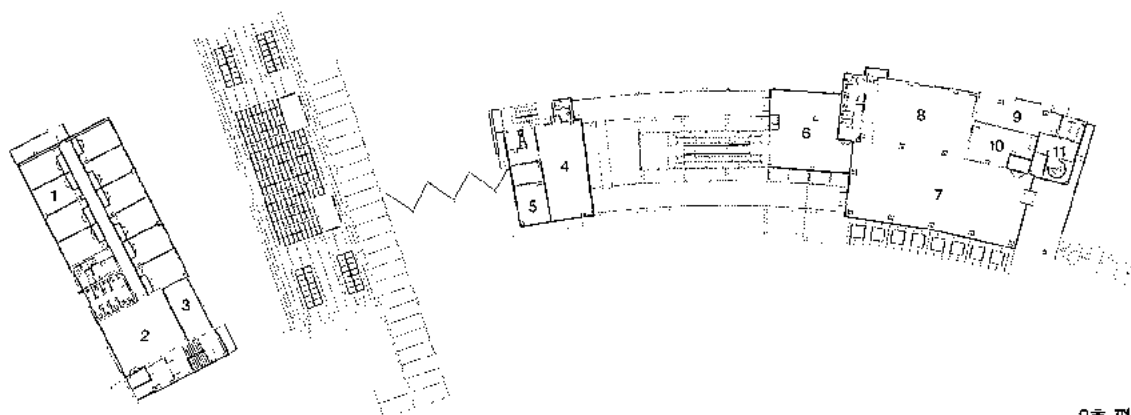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수많은 작업의 반복과 시간의 적층 속에서 발생하는 조금의 차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부족하고 아쉽고 서운함에 가슴이 아려도 그것이 나의 평소 실력이며, 일상적 작업이기에 다소의 차이와 변화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나의 건축적 주장과 논리가 나의 작업과 동떨어진다면 일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건축작업은 나의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 속에서 시간의 여유와 부족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고 있어서 쉽게 동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건축작업은 나의 “생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나의 일상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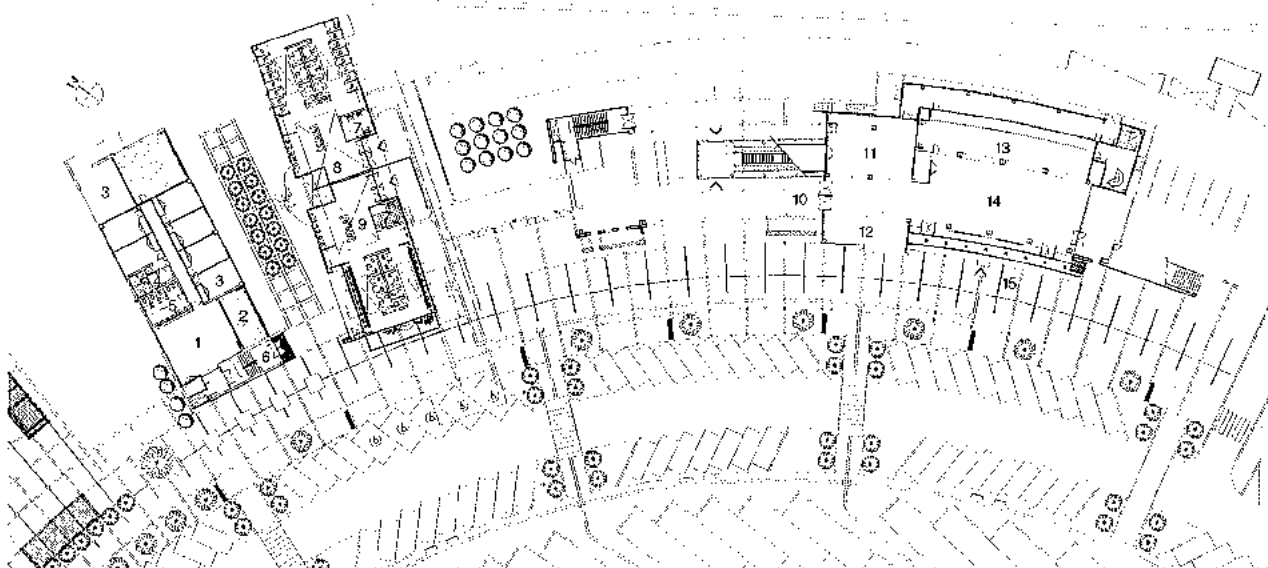






2층 평면도(상)

- 1.숙소(여) 2.휴게실(여) 3.발코니 4.사무실 5.소장실 6.커피숍 7.식당주인 8.식당주방 9.직원식당 10.주방상고 11.엘리베이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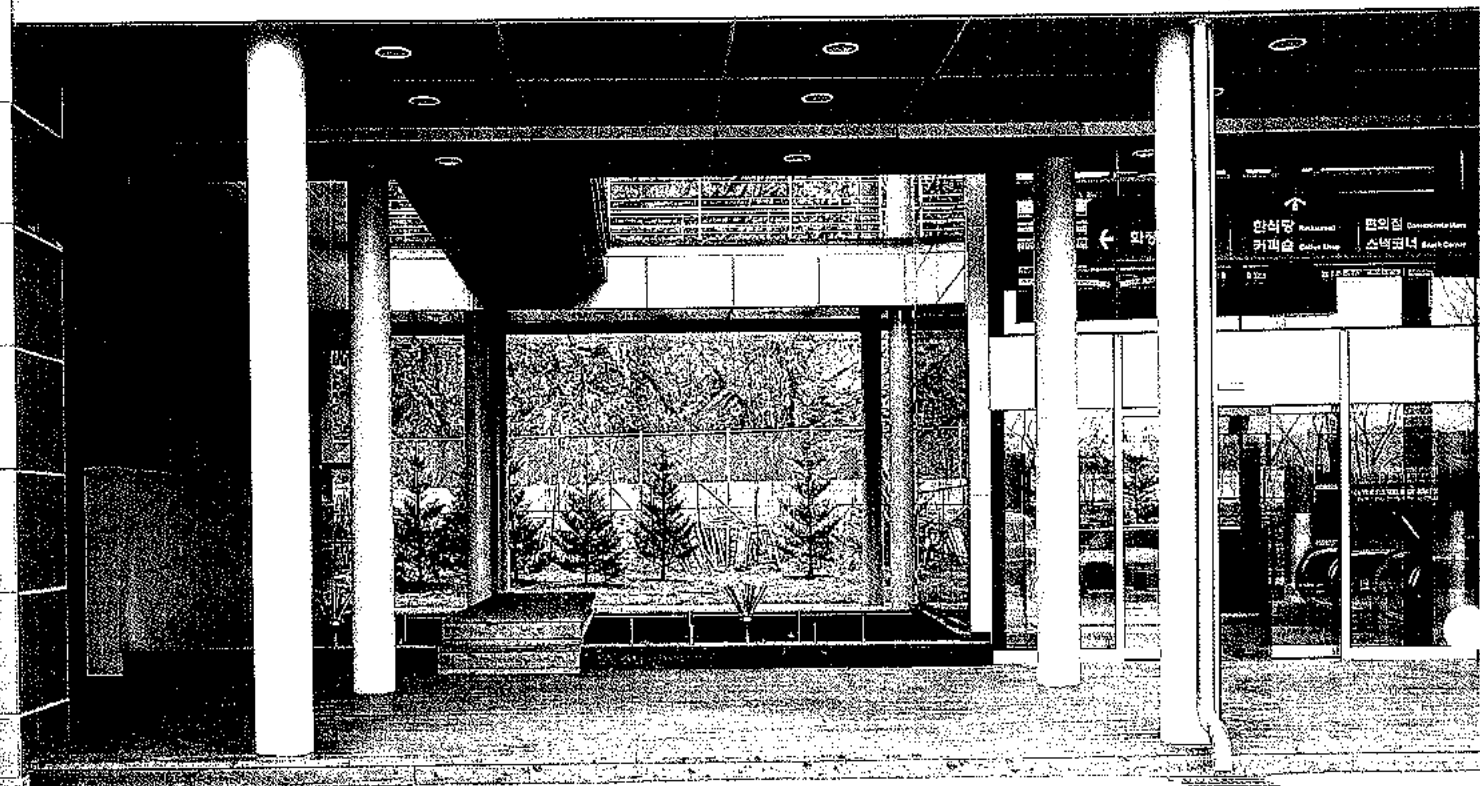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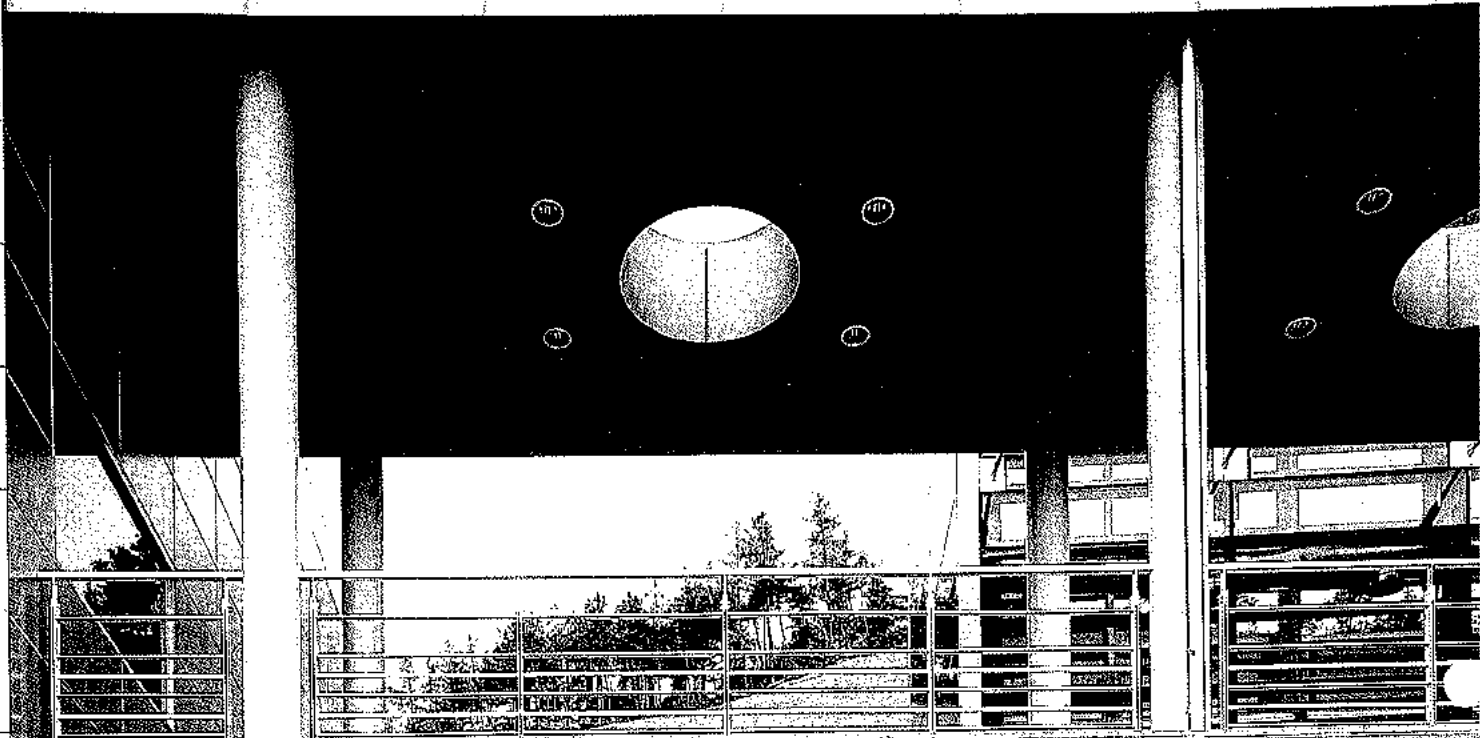
1층 평면도(상)

- 1.휴게실(남) 2.발코니 3.숙소(남) 4.사원실 - 팀의실 5.화장실 6.계단실 7.장애인화장실 8.화장실(여) 9.화장실(남) 10.내부계단 11.편의점 12.안내실 13.매점주방 14.매장 15.매장 출입구



0 3 10
1 6

지하층 평면도(상)



Road, Way, Means, Street

There are a lot of paths in this world - some visible, some not. We call the former road, way, or street; they are either above or below ground, over and under water; some roads are even over another one.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usually implies meanings of way, method, and means, and comes after grand expressions such as life and memory in books.

Human actions and vestiges of time are present on the path.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traces of numerous people as I walk the path: silent outcries and moving tears are concealed under the blanket of time, while irrepressible joys or painful objections are at times imprinted upon the road. Perhaps this is why many refer to road as the ultimate metaphor for life itself.

And a Place to Rest

We are always on the road, but our choices are not always wise. There seems to be an apparent destination, but often we forget how and why we lead our lives. It is said that we can only see the forest when we come out of it. This will also be true to the path of our lives, and what we need is a space of interval - a resting place on the road.

Architecture on the Road, Road Insid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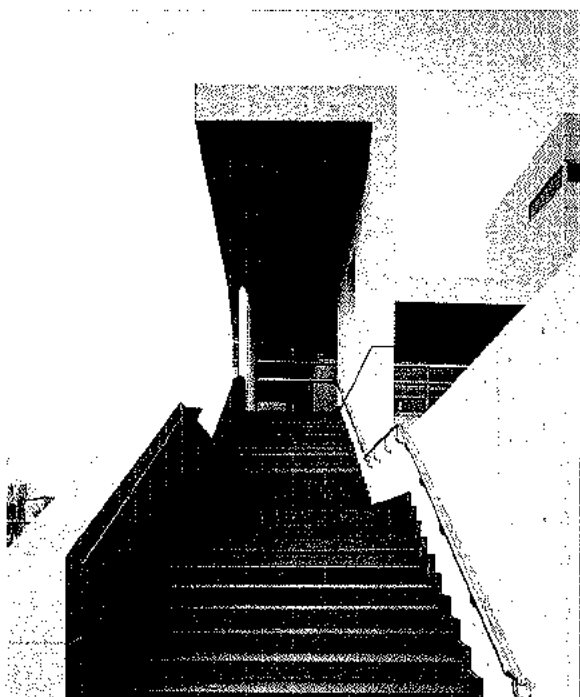
What is the generally accepted idea of a highway service area? It is perhaps a temporary parking lot, a place of excretion and maybe some small snack at best. It is the episteme of the highway culture, where the importance of velocity comes second to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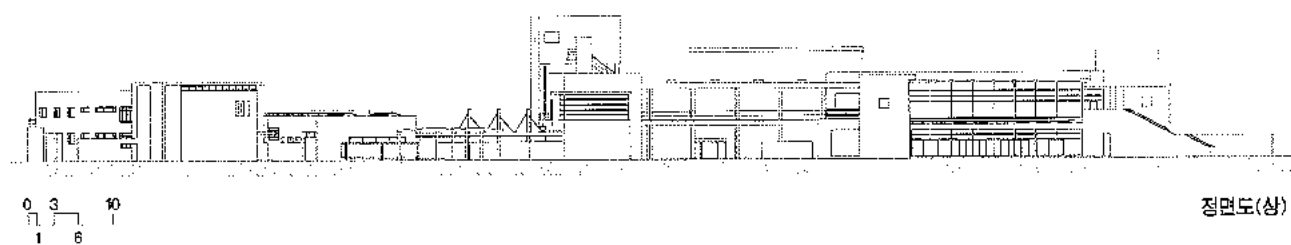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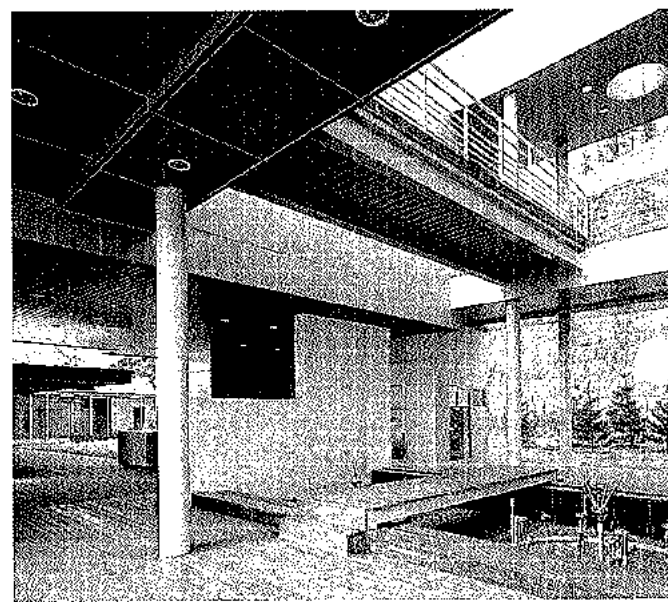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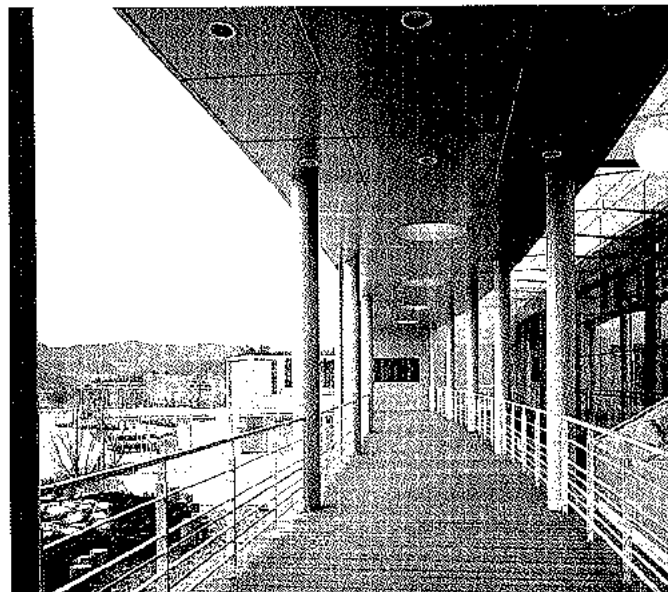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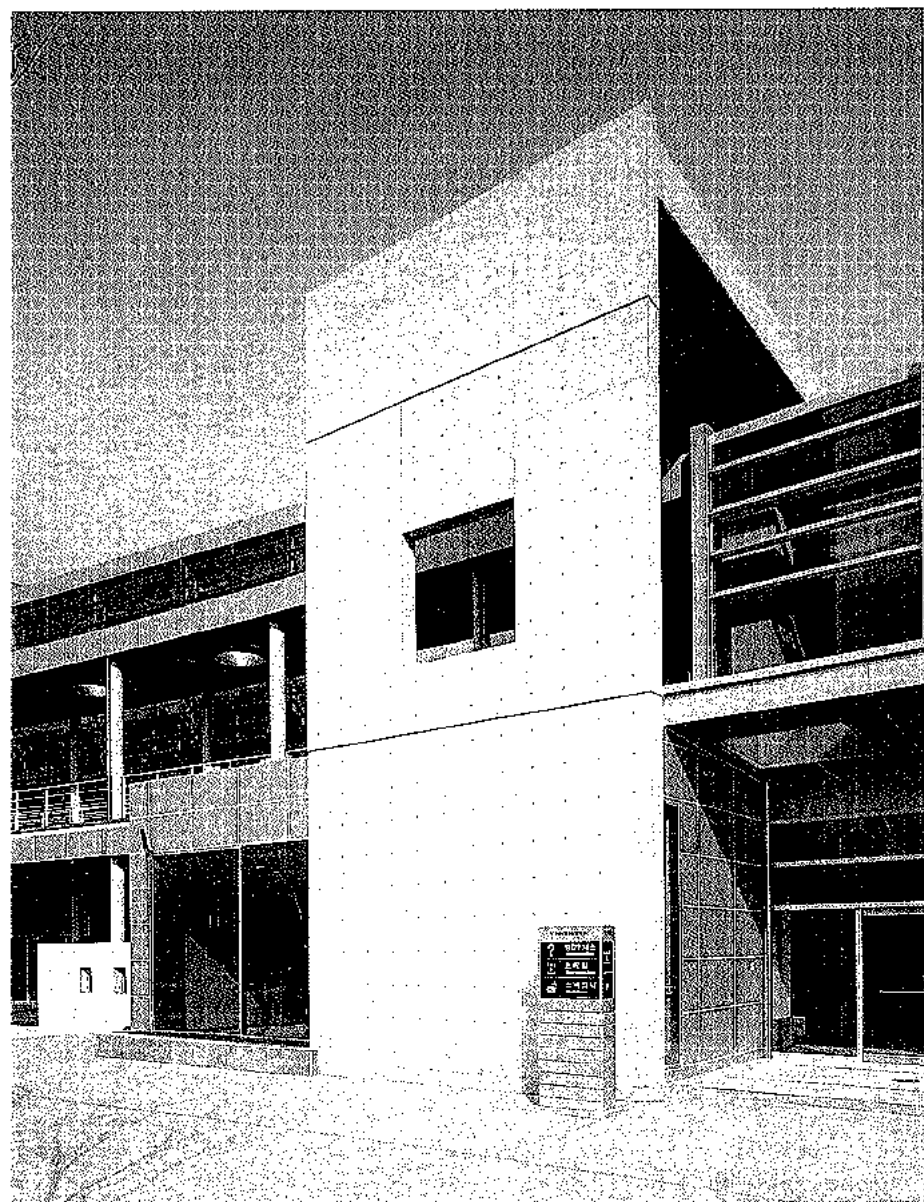
The service area of Insamland is no doubt a work of architecture on the road. It is also an extension from the road, where the traveler can enjoy some sound peace from the speeding highways. The place is against the image of linear velocity the road successfully provides, and tries to set itself apart from the other service areas that only provides horizontal linkage between parking spaces and the facilities. The circulation is invited indoors, shifts levels, and is connected to the outside again - it is a road inside architecture. The building emphasizes the image of link and cycle, and positions the parking lot, garden, pedestrian way and rest area along the line of small circles. Devices of opening and closing toward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e planned between the paths that link the indoor and outdoor spaces, and add to the bright atmosphere of the natural-lighted service area.

An Excuse - Building With Everyda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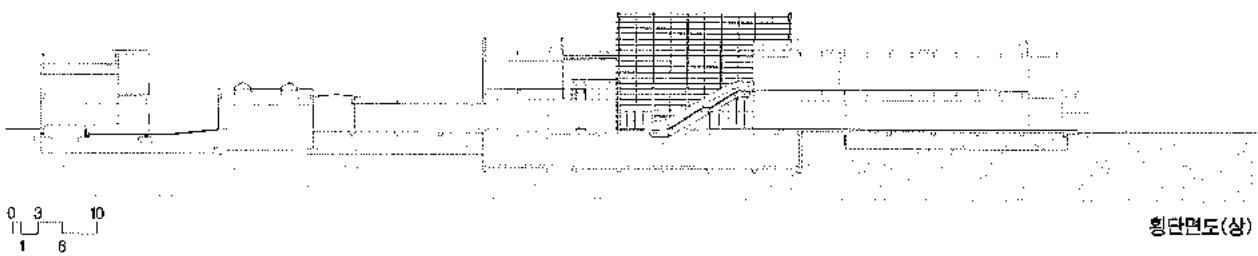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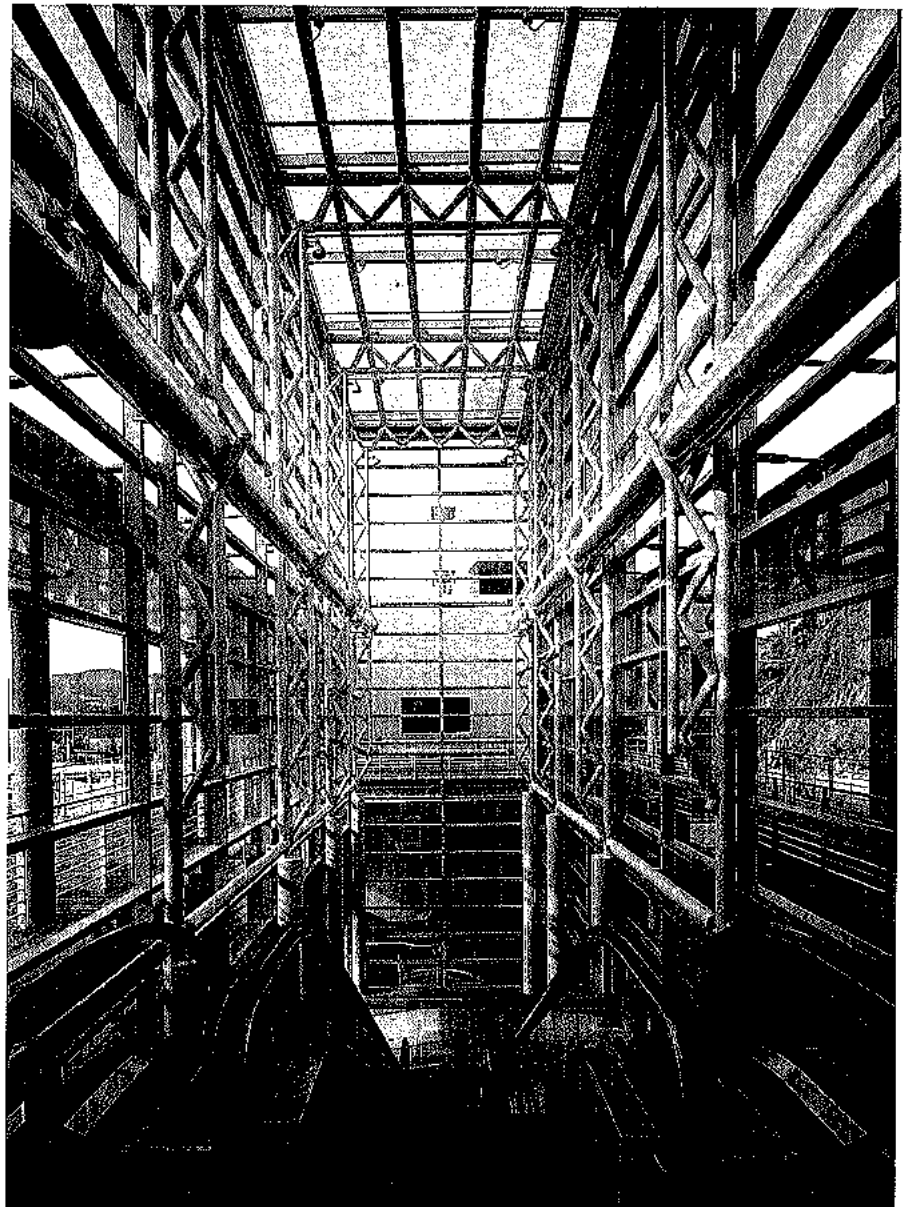
In this project I thank the client Korea Highway Corporation - for allowing new experiments under the weight of so many restrictions. In such great circumstances, however, I cannot say the best result was produced. More than the constraints of time, lack of effort and attention on my side was crucial for the shortcomings of the work. I always promise to do a better job next time, but who am I trying to fool? People simply do not change in such short period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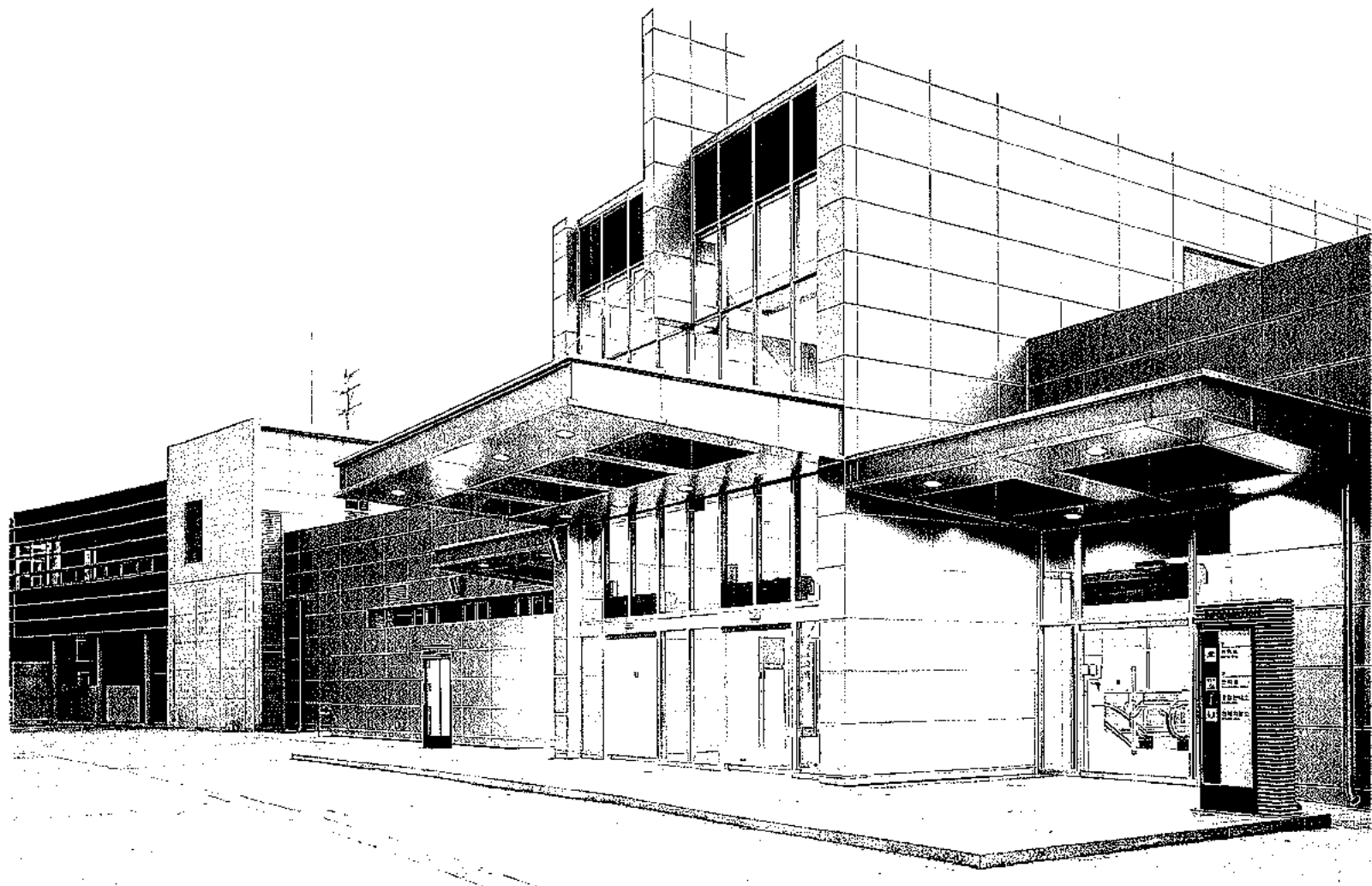
History has taught us that small changes in the accumulation of repetitions make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I may have failed to deliver anything new with this project, but accepting that this is my capacity as an architect, I'd be more than glad if the work has little but apparent difference from other similar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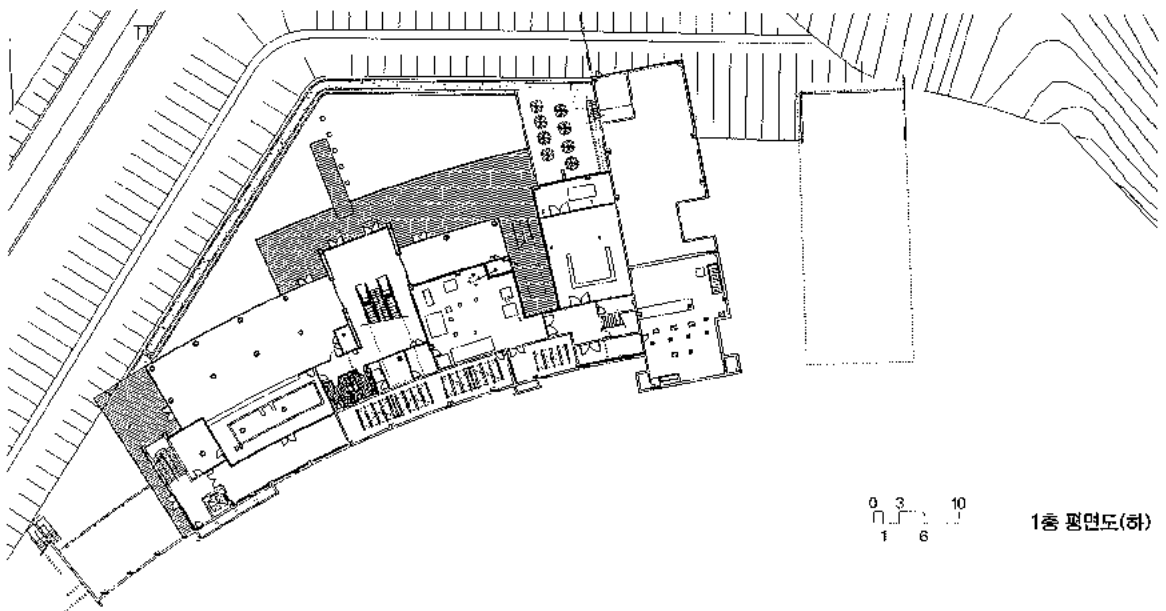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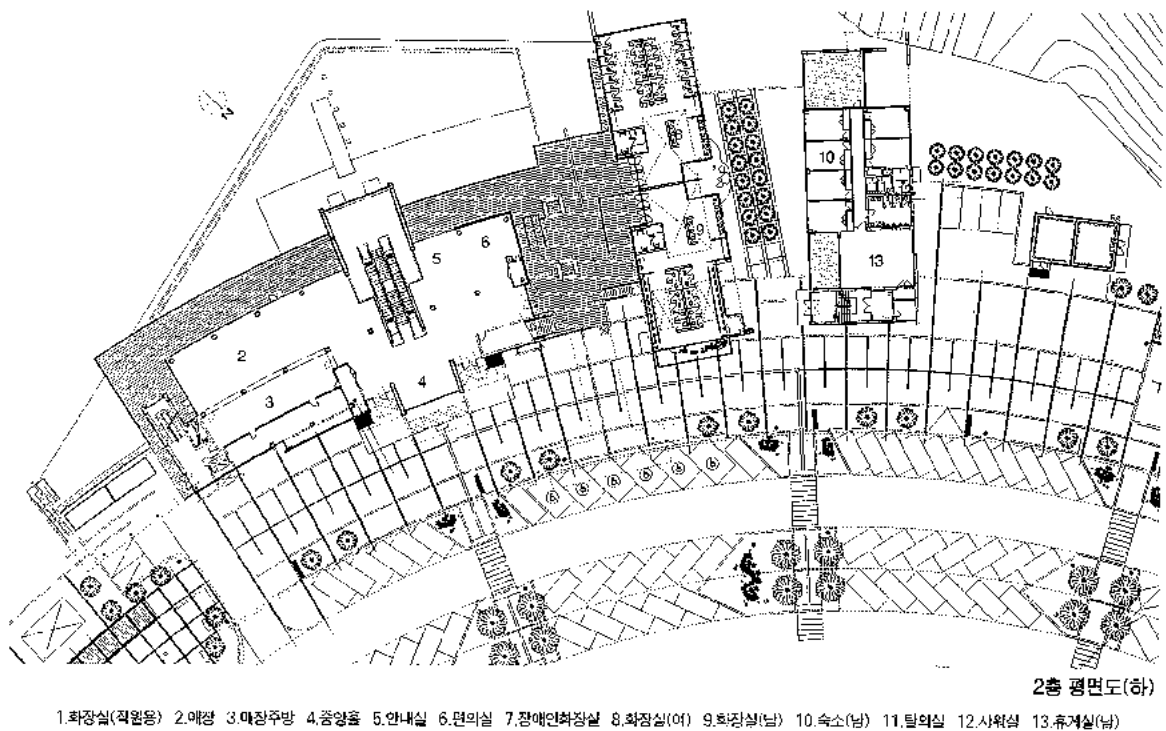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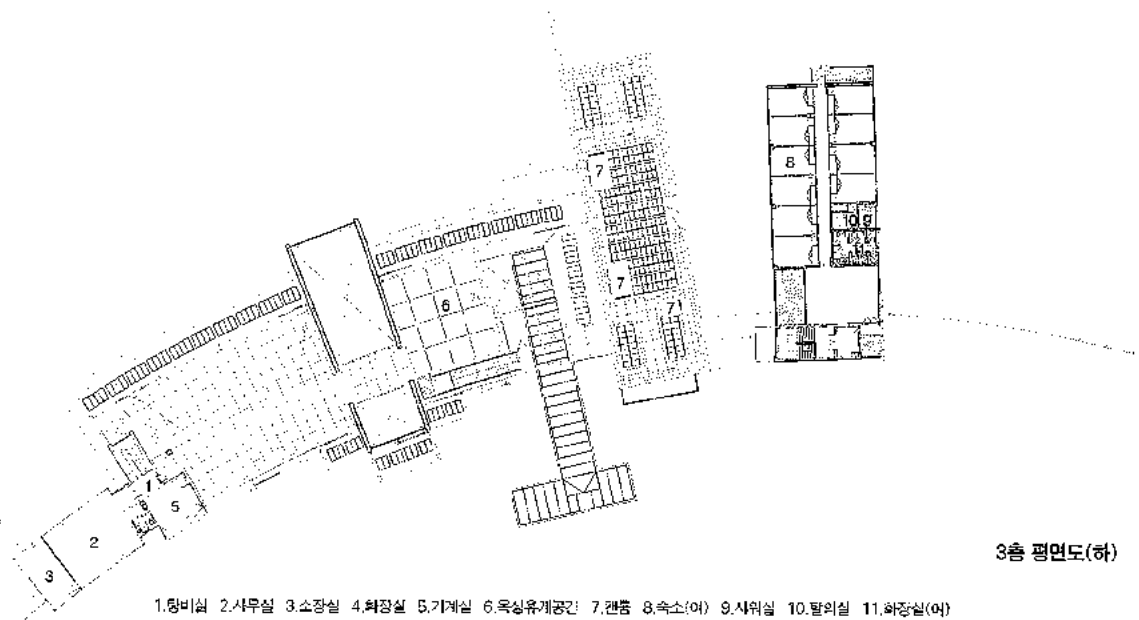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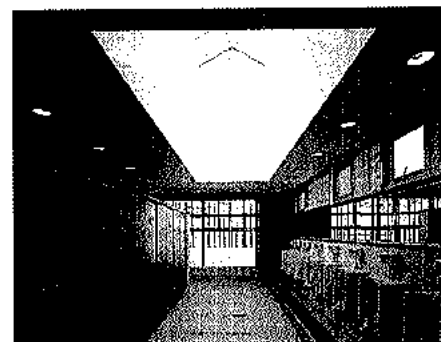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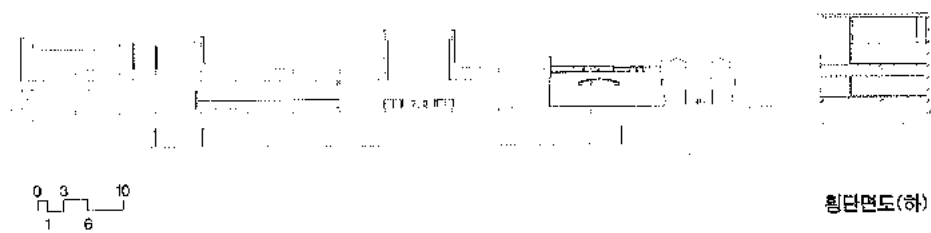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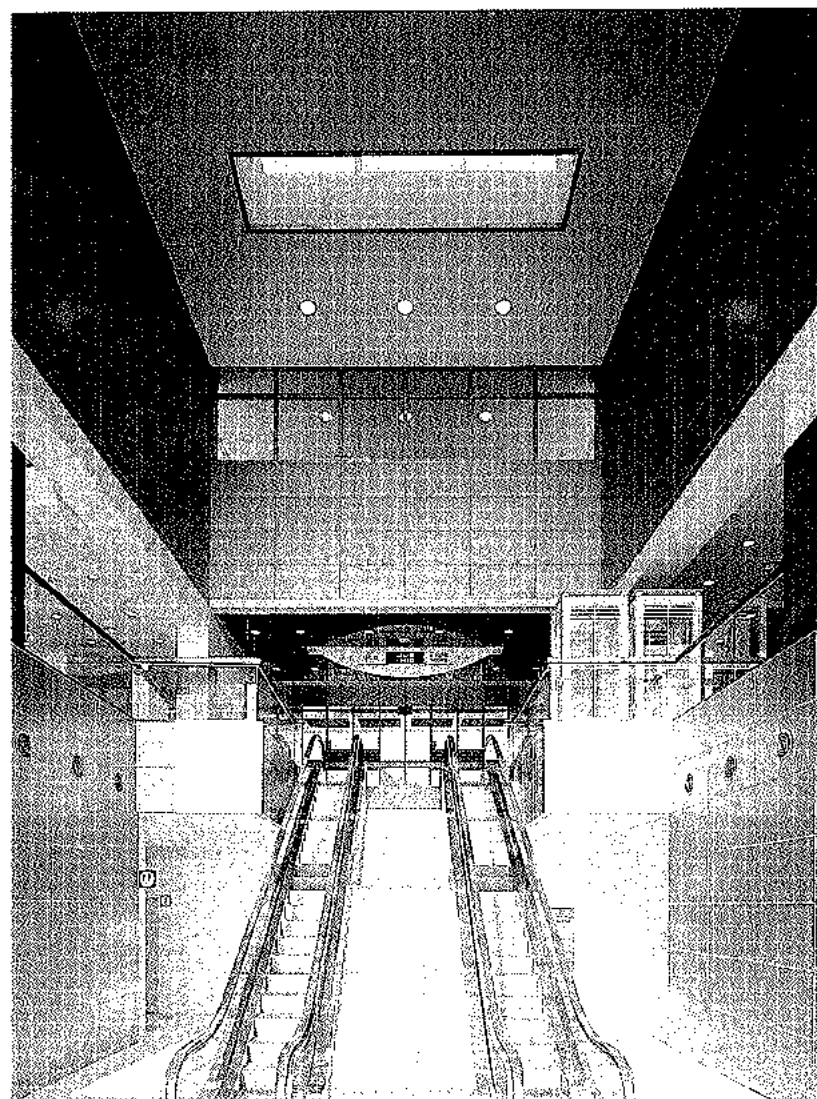


정면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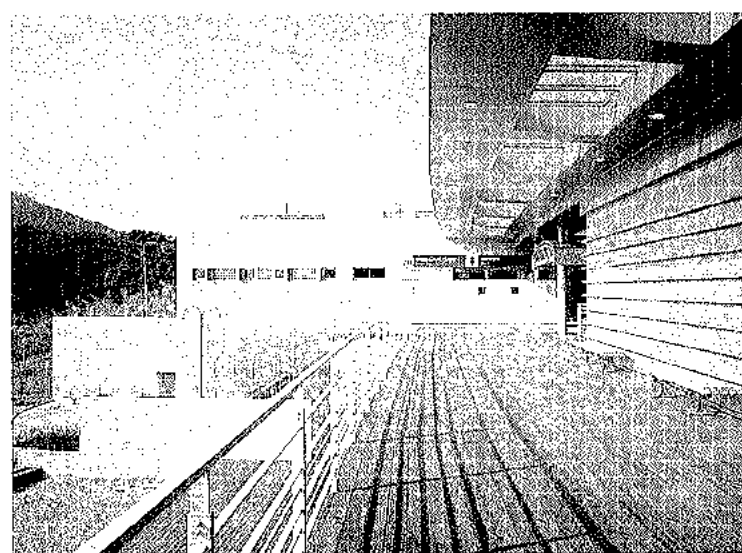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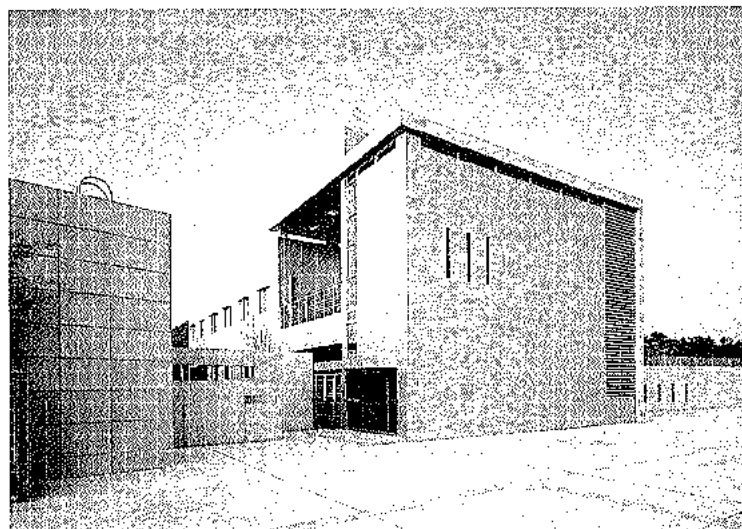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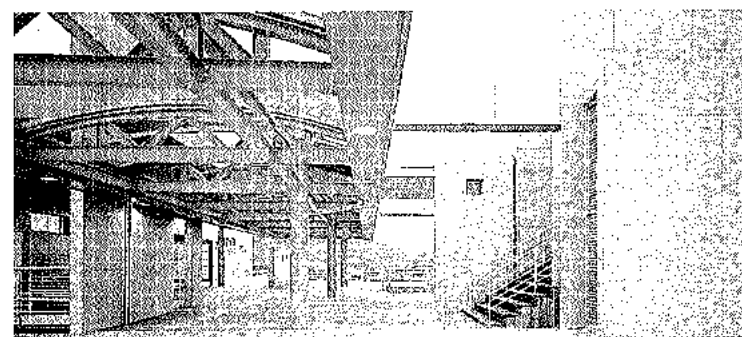




Location	Waebu-ri, Gunbok-myun, Kumsan-gun, Chungbuk Province, Korea
Area Specification	Semi-Agriculture Area, Agriculture Area
Site Area	To Seoul - 51,171.55m ² From Seoul - 48,436.23m ²
Building Area	To Seoul - 2,216.75m ² From Seoul - 2,905.77m ²
Total Floor Area	To Seoul - 3,087.50m ² From Seoul - 3,809.63m ²
Building Coverage Ratio	To Seoul - 4.33% From Seoul - 6.00%
Gross Floor Ratio	To Seoul - 5.29% From Seoul - 7.86%
Number of Floors	Three floors including one basement
Structure	Steel + Reinforced concrete
Interior Finishing	Ceramic tile, Vinyl paint, Wood flooring, Patterned wood
Exterior Finishing	Aluminum sheet panel, exposed concrete, THK24 color double glass
Structural Engineering	Saewon Structur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Saejong Techniques
Mechanical Installations	Bumchang Techniques
Interior Design	ATM Interior, Hanmae Architecture
Construction	Doosan Constructions, Bumyang Constructions, Byuksan Constructions
Client	Korea Highway Corporation
Design Team	Do Sung-yui, Suh Yu-chan, Lee Jong-won, Kim Mi, Lee Kwang-suk, Nam Ki-jong, Lee Sang-bok



본동종면도(하)



인간 중심의 휴게소 Service Area Oriented to Mankind

이관석 /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 Kwan-Seok

'티'를 벗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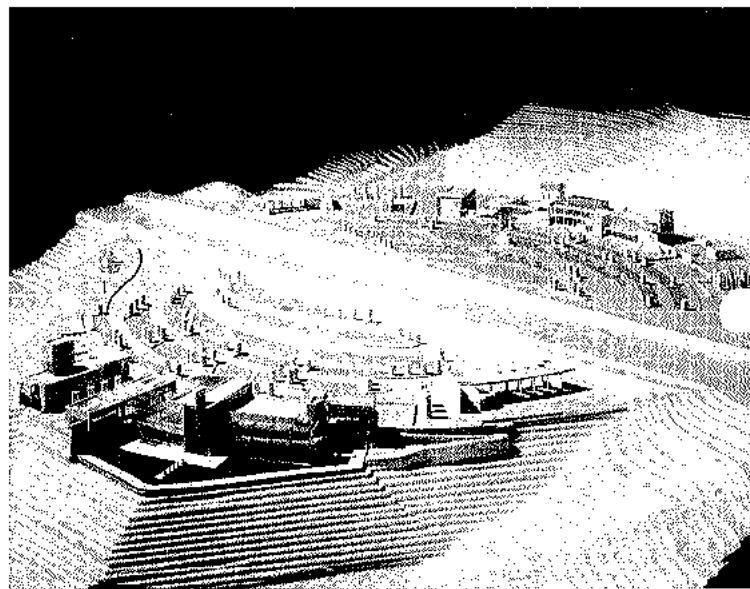
우리는 건축물에서 흔히 어떤 '티'를 발견하곤 한다. 이 말은 동일한 유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습관적인 양태가 포착될 때 붙이는 접미어이다. 이 '티'는 '끼'를 상실한 무감(無感)한 이들이 배설해 놓은 사회적 퇴적물이다. 개성을 보편화시켜야 하는 건축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순간 느슨해진 팔악근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보편화시킬 개성과 아울러 그 개성을 보편화시킬 능력을 겸하지 못하면 이 '티'는 평생 벗기 어려운 굴레가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발독재시대에 시작되어 이후 소위 민주화되었다는 근래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습과 쓰임에서 건축의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이 '티'를 우리에게 집요하게 강요하여왔다. 넓은 주차장을 앞둔 긴 건물이되 건축하기를 포기한, 휴식이 아닌 짜증을 안겨주는 곳. 공휴일이나 명절이면 이곳에서 인간은 숫제 노략의 대상이 된다.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워낙 저렴

Building Outside of 'The Look'

We often come across buildings with a certain 'look,' which is a result from the habitual repetition of fixed forms. They are social accumulation of senseless building devoid of design instincts, works of architects who have failed to generalize their personal preferences. The absence of the ability to render individual tastes universal, along with the lack of individual taste in the first place, build up the trap of 'the look' that is seldom overcome.

The service area of highways is a typical case in this respect. From the age of dogmatic economic developments to the present era of the so-called democracy, they have almost never failed to provide us with that tiresome look. Facing a large parking lot but denying itself as a work of architecture, what they actually 'serve' is discomfort and annoyance. Users, already grateful for the low highway toll, are content with whatever space is given, never quite conscious of their right as customers.



인삼랜드 상/하 휴게소 모델

한 까닭인지 심터의 권리를 상상도 못하는 주눅든 이용자들은 비집고 들어설 틈만 있어도 요행으로 여겨야 한다. 참 오래도 이 '티'에 갇혀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네는 마음이 여리고 눈시울에 열(熱)이 많은 민족인지라 이 끈질긴 '티'가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기꺼이 감동될 준비가 되어 있다. 건축가 이충기가 설계한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는 '고객 최우선주의'의 정신이 엿보이는 배치와 평면, 단면과 형상에서 지금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녔던 언짢은 자태를 씻어주는 덕목들이 여럿 보여 마침내 시대가 바뀌어 감을 실감하게 된다.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된 깨끗한 화장실 가구나만으로도 흐뭇했던 서민들의 소박한 기쁨이 이 휴게소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 존중 요소들로 인해 좀 더 환한 미소로 커질 소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여유

We have been under this look for so long that a small instance of change will move us. That wish is fulfilled in Insamland Service Area, the recent work by architect Lee Chung-kee, which manifests the spirit of best service in its all aspects - from layout to plan, and section to form. The days have indeed changed: those who were glad to see clean rest rooms within the frame of past service areas will be further excited by the building's respect for human values.

Allowing for Human Values

Apart from the commercial facilities of restaurants, cafeterias and convenient stores, the service area has a large portion of public spaces: even the most careless eye can at once notice the bulk of spacious rest rooms, atrium space with escalator hall, galleries and decks, and dormitory for workers. With a limited number of present users, it almost makes us feel guilty to be provided with such luxurious amount of space. On both sides of the highway, a three-level-high escalator hall

금산안삼랜드 휴게소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매장, 편의점 같은 수익성 있는 장소와 비교해 전설까지 갖춘 넓은 화장실, 아트리움 공간이 된 독립적인 에스컬레이터 홀, 상행선의 회랑과 하행선의 데크, 직원숙소 건물 등이 일반인들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율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 특징을 보인다. 아직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보이는 서비스하는 면적이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평면상의 넉넉함과 아울러 체적상의 아낌없는 투자 또한 이채롭다. 상·하행선 휴게소가 모두 가지고 있는, 휴게소 본동 위로 솟은 세 개 층 높이의 에스컬레이터 홀은 절전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 세워놓아야 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제성에 대한 염려를 증폭시킬 정도이다. 향후 진주까지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얼마나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것으로 계산한 지는 모르지만, 진정 건축주인 한국도로공사가 사용자를 왕으로 알고 환대하기를 원했다면 그 동안 당한 것을 감안하고 사용빈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정도 낭비(?)에 일단 눈감아주기로 한다. 장기적으로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났을 경우 이러한 여분의 공간이 임의적으로 점용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변용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려와 함께 설계의 정도(精度)는 금산안삼랜드 휴게소에서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풍겨나는 값싼 상업적 냄새를 지워준다. 특히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된 까닭에 수준차는 있지만 건축적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고급 호텔의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상·하행선 휴게소 화장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벼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눈앞에 보이는 창을

통해 펼쳐지는 정원, 중앙에 위치한 고급 수목의 조경, 세련된 세면대 처리, 한쪽 구석에 자리잡은 양증맞은 크기의 아기대·소변기, 천창을 통해 충분히 유입되는 자연빛 등은 고속도로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유쾌한 기분이 들게 한다.

선형건물에서의 투과성

하행선 휴게소의 단면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끈질기게 지닌 티를 떨쳐내는데 크게 기여한다. 여기서 여행자는 실내로 들어선 후에야 커피숍과 식당이 주차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주차장 레벨보다 낮은 아래층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휴게소 후면의 경사지를 감안하여 단면상 주진입 레벨의 아래층에 주요 수익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러한 단면계획은 그러나 상식을 뒤엎은, 고객과 환경 위주의 발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에서 볼 때 수익시설들을 지상 1.2층에 배치하여 쉽게 시선을 끌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안이함을 버리고, 주차장에서 보는 건물의 높이를 낮춰 방문객에게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스케일을 제공하면서 건물이라는 인위적 산물이 자연 속에서 지녀야 할 겸손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단면상의 배려는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공히 나타나는 투과성이 강한 선형건물(linear building)의 특징과 어울린다.

한쪽 방향으로 긴 선형건물은 이전에는 하나였던 외부공간을 불가피하게 두 공간으로 나누게 된다. 이때 나타나기 쉬운 장벽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물에 의해 분리된 두 외부공간간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투과성 모색이다. 배면이 넓게 트여 좋은 전경을 갖고 있는 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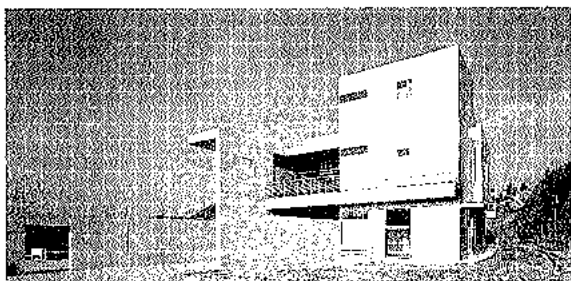
hovers over the main building - one is curious of their economic feasibility, but it is presumed that the growth of users following the future construction of highway to Jinju would have convinced the inspired client - Korea Highway Corporation - to invest so much on this project. (It will indeed be interesting to keep track of how its free spaces are used when the rate of the facility's use is increased.)

Along this consideration for space, what is astonishing about this service area is its careful attention to architectural designs that successfully discards the commercialist color of others. The rest rooms on both side of the highway - built by respective interior companies but equal in design - even give out the impression of luxurious hotels - the garden landscape one comes across outside the window as he/she enters the rest room, the handsome tree on its center, refined washing stands, toilets designed specifically for children, and natural light coming from the skylights all help to do its users proud as rightful customers.

Transparency of Linear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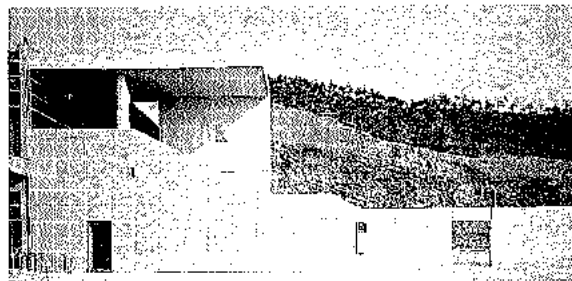
The section of Insamland Service Area's western portion characterizes what is so fresh about this work - located on level below the parking spaces, coffee shops and restaurants are only to be perceived after entering the building. Whereas all other service areas choose to place commercial facilities where it is most visually approachable, this one, considering the presence of slanted ground behind it, willingly lowers its volume in order to accommodate a more human scale. The artificial creation of architecture takes a humble stance toward nature.

This feature also becomes the transparency of the buildings on both side of the road, which basically take a linear form. With a strong sense of orientation, this form inevitably divides its surrounding outdoor space into two. But this wall-like image, discouraging the interaction between spaces on either side, is weakened by making the volume transparent, especially in the western side which commands a fine view at its rear. The



배면에서 바라본 인삼랜드 상·휴게소 전경

선 휴게소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 외부동선과 내부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전체건물의 축성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건물 너머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휴게소에 닿을 때 대부분의 방문객이 먼저 찾는 화장실로의 진입을 돕는 철골 캐노피는 이러한 고착된 건물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공간적·체험적 관통을 강조한다. 이 화장실 앞의 외부공간은 사실상 전체 구성에서 공간적 핵심으로서 세심하게 처리되었다. 시원하게 개방된 전경의 프레임과 전망대 역할을 하는 이곳은 선(線)의 특성이 강조된 철구조물, 면(面)의 특성이 강조된 깨끗하게 시공된 노출콘크리트와 나무바닥, 불륨의 특성이 강조된 휴게동의 알루미늄 쉬트 패널 등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주차장에서 건물을 처음 봤을 때 경험한 선과 면, 불륨의 아기자기한 조합과 더불어 이 휴게소가 세심하게 계획되었음을 재삼 확인시켜준다. 상·하층 배면에 설치된, 전망을 즐기며



인삼랜드 상·휴게소 우측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데크 또한 건물의 방향성과 직교된 시선의 확장을 제공하면서 향후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비하고 있다.

상행선 휴게소는 전면의 높이가 정돈되어 하행선 휴게소에 비해 수평성과 연속성이 강하지만 하행선의 체험적 투과성을 통한 공간적 소통보다는 공간적 깊이감을 활용해 선형건물의 차단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전면 배치된 회랑이나 긴 처마 등을 이용해 입면에 그림자를 드리움으로써 이중 파사드(double facade)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후면에 급경사로 깎은 절토 경시면이 인접해 있어 원경으로의 조망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홀 사이의 외부공간이 내부보다 더 여유 있는 휴식공간으로 다가온다. 회랑을 받치는 원기둥 열과 식당(2층)과 매장(1층)의 유리외벽에서 유리면 아상으로 돌출된 수직 프레임은 이 휴게소의 수평성에 반하면서도 그 특성을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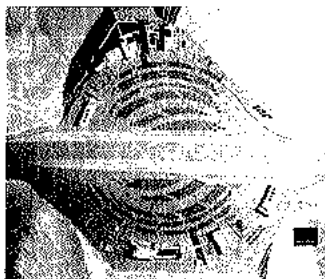
outdoor circulation towards the rest room - whose steel structured canopy also runs against the main orientation of the building - along with the indoor path towards the lower level via the stairway and escalator, perpendicularly cuts through the linear massing and opens up to the fine landscape beyond it. The outdoor space in front of the rest room forms the center of the overall spatial composition, as its function of watchtower of the wide view on nature is subtly planned and executed. It also features a magnificent play among different formal elements and materials: Steel structure elements as line, exposed concrete and wood flooring as plane, and the aluminum sheet-covered main building as volume. (This complex composition actually replicates the building's first impressive image seen from a distance at the parking lot.) The decks on the rear side of the building on both levels provide space of rest and observation, and await further active use.

The eastern part of the service area, with its facade level carefully arranged, is a more horizontal and continuous presence than its western counterpart. The

debilitating of its linear form, however, utilizes the spatial depth - a method quite different from the western building's interpenetrating transparency. Since it sits in front of a slanted hill with no room for an open view, the effect of double facade is achieved by the use of gallery and projected ceiling on its front. The colonnade supporting the gallery, and the vertical frame extended from the curtain wall of the restaurant (on the second floor) and convenient store (on the first), seem to be against the horizontality of the building but nevertheless emphasizes its formal characteristic.

Conflict Between Architecture and Interior

As noted before, the formal features of Insamland Service Area are responsible for its overall quality, which means that architectural design has played its due role in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n terms of interior design, however, it does not always seem to be in accordance with its design intentions. Independent from the curtain wall of the escalator hall,



인삼랜드(상/하)휴게소 모델

건축과 인테리어의 마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는 상당 수준의 조형성이 투여되었다. 즉, 건축적으로 되어야 할 것들이 되어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건축과 인테리어의 궁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상행선 휴게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에스컬레이터 홀의 유리벽과 떨어져 독자성을 지키며 수평적 운동감을 일으키는 외부 회랑이 2층 식당의 내부 천장과 연결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보자. 이 회랑의 덮인 상부는 식당에서는 열린 천창으로 연속되어 내·외부간의 연계성과 회랑의 수평적 연속성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조치가 부적합한 인테리어에 의해 가치가 반감되었다. 건축 자체의 정교함을 감안해 인테리어가 절제되어야 했는데 함께 나섬으로써 혼란스럽게 된 것이다. 조잡하게까지 보이는 내부 마감 처리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한다. 건축가가 배제된 인테리어가 언제나 사라질 수 있을까.

the horizontal outdoor gallery, with the object of preserv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is supposed to have its ceiling continuous from that of the second floor's skylight. But this architectural intention is obstructed by inadequate interior planning, whose extravagance hardly helps to emphasize the simple spatial effect. Looking at the rough finishes of the interior, one wonders when the interior works will do justice to the architect's original plans.

There is also an instance of overplaying on the architect's side: where his obsession for sunlight has taken the work to extremes in the round skylight on the projected roof of the galleries. The space underneath will no doubt be brighter, but the abundance of light will ultimately diminish its meanings and effects. On the western building, the skylight with the height of three floors in the front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without the three circular skylights on the escalator hall. Transparency can only be so effective with the proper amount of opaqueness set against it.

좌우에 빛이 있는 회랑의 지붕이나 돌출된 처마에 원형 천창을 설치한 것과 같이 빛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 건축 쪽에서도 과한 면이 없지는 않다. 이와 같은 조처로 밀면이 덜 어둡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빛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이 있다. 하행선 휴게소 에스컬레이터 홀의 천장에 있는 세 개의 원형 천창도 없었다면 전면에 있는 삼 개 층 높이의 전창이 주는 수직적 투명성에 대응하는 수평적 불투명성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투명성이 적절히 보호될 때 투명성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과함은 늘 부족함보다 못하다.

휴게소 문화 발전의 표본이 되기를...

금산인삼랜드 휴게소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휴게소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헌했음은 사실이다. 기존 유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와 실력이 필요한 법이다.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이 휴게소는 고객 위주의 과감한 계획안을 채택함으로써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라는 휴게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산인삼랜드 휴게소를 본 후 후회 하는 기대를 갖고 현재 건설 중인 다른 고속도로의 일부 완공된 구간에 신축된 휴게소를 일부러 둘러면서 느꼈던 낭패와 실망감은 이 휴게소에 서의 제안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하였다. ■

A Hopeful Model for the Culture of Future Service Areas

Albeit with these minor defects, the Insamland Service Area of Kumsan has arguably set a new standard for these facilities. It is easy to find fault with the past models, but it takes courage and vision to provide a feasible alternative. After seeing this accomplished work, I have visited some other service areas under construction with the hope of finding some more instances of innovation. Their complete lack of such has further insured me how far architect Lee's fresh, new suggestion has taken us.

경관과 공간의 관계맺기

Communication with Landscape and Space

건축사 / 이충기(한메건축)

대담자 / 이주연(건축비평가, 월간 건축인 POAR 편집자)

일시 / 2001년 4월 3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한메건축 회의실



대담장면 (왼쪽:이충기, 오른쪽:이주연)

이주연___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를 돌아보고 모처럼 기분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 수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이충기___ 1997년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설계비 입찰을 통한 설계발주 형식에서 탈피하여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작을 뽑아 설계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안으로 1999년 4월에 계약하고, 진행하려던 시점에 금산군의 요구에 의해 여러 번 대안을 변경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참 늦은 9월에야 인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___ 휴게소 건축은 말 그대로 이용자들이 편히 쉬기 위한 서비스 시설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했던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통행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이 지닌 일반적인 개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충기___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명칭과는 달리 지극히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휴게소이기는 하되 쉴 장소는 크게 배려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말이지요. 지역에 따라 종업원들의 숙소기능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식당과 매장, 그리고 화장실, 이 세 가지 기능이면 이용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광장에서 식당, 매장의로의 동선과 화장실로의 동선해결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간의 이용 행태는 휴게소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동시에 화장실로 그리고 식당·매장으로 몰리는, 그래서 매우 혼잡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만, 그런 혼잡함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동선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게기능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먹고 배설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인 휴식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휴게소의 입지는 우리 건축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분야에서 고속도로 노선 설계시에 이미 정해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고려한 경관위주의 휴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건축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연___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는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세워진 휴게소인데다 상·하행선을 동시에 짓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흥미를 끌만합니다. 무엇보다 이 휴게소 시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자점에 동시에 계획한다는 개념이 우선 고려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 도로를 감싸듯 상·하행선이 서로 원호를 그리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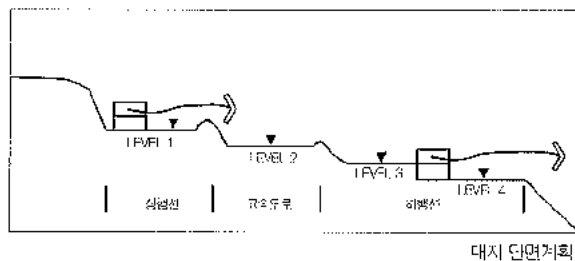
이는 동질화를 꾀한 결과로 보입니다만 타원형 배치 구성이 도상 작업에서처럼 실질적인 인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충기___ 말씀하신대로 타원형 배치가 실제로 이용객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처럼 하늘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원형배치의 특성상 각 공간에서의 외부경관에 대한 시각적 전개의 변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이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상·하행선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휴게소의 경우는 배치계획시 한꺼번에 읽혀지는 배치가 가능하였고 고속에서 저속으로, 저속에서 고속으로의 이탈과 합류, 즉 본선에서의 진입과 진출이 속성상 자연스러운 곡선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계획도 건물배치에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주연 ____ 대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처럼 기분이 좋은 휴게소를 보아서 즐거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선 건물 자체가 갖는 편안한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변의 자연경관을 건물이 잘 끌어안도록 고려한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휴게소의 개념에 견주어 이 휴게소에서 발견되는 경관의 의미를 듣고 싶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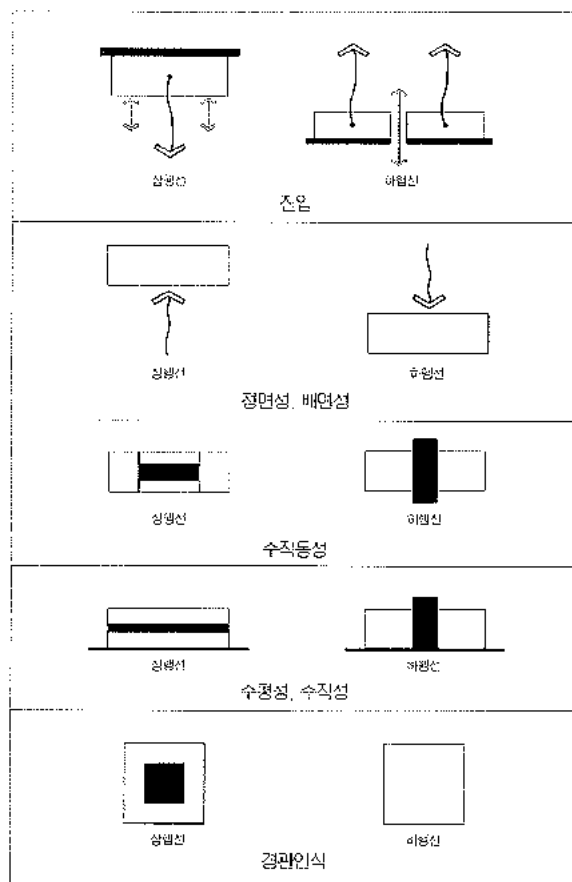
이충기 ____ 이 휴게소의 입지는 빼어난 경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과 계곡으로 둘러 싸여 비교적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목공사 시 정지된 상태에서 상행선의 경사면의 암석 파취부분과 하행선의 자연상태의 경관을 가능한 한 내부공간이나 테크부분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은 암석 파취면 쪽인 배면 쪽으로는 다소 소극적으로 열어 두었고, 하행선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경관 유도장치들을 계획했습니다. 하행선의 경우는 아래의 계곡 쪽으로 많이 쏠리게 배치한 것도 경관을 의식한 결과이고, 휴게용 테크를 적극적으로 내밀어 저수지와 얹은 개울, 도로, 그 너머 산과 들판까지 조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하행선의 경우는 출입동선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차광장 쪽으로는 닫혀있는 결과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상·하행선의 단면계획이 경관위주로 계획된 결과 상행선의 기준레벨과 고속도로의 레벨 그리고 하행선의 기준 레벨이 그 위계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연 ____ 상·하행선이 중심원을 그리며 서로 감싸듯 모여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외부에 쓰

인 재료, 수용하는 시설 프로그램 등에서 두 휴게소는 닮은 꼴이라 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개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하행선이 서로 정면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단면계획에서 보여주듯이 휴게소가 위치한 지형에 기인한 것 같은데...

이충기 ____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선 토목 설계 시에 이미 절토, 성토를 고려한 부지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지된 터 위에 휴게소를 그냥 앉히는 형식이지요. 그러나 인삼랜드 휴게소의 경우는 부지의 특성상 하행선의 경우 계곡 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경우여서 주차광장에서 보면 1층, 계곡 쪽에서 보면 2층이 되게 제안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상·하행선의 개념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상행선의 경우는 주차광장 쪽으로 전면성을 개방하여 정면성을 확보하였고, 2층 규모의 수평적 매스와 브리지 등의 수평적 요소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하행선의 경우는 주차광장 쪽에서는 단층으로 인식되어 차분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요소가 강조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상·하행선은 그 개념에 있어 내부공간으로의 진입, 정면성, 동선, 수평성·수직성, 경관의 인식방법 등에서 대조



적인 특징을 보이도록 의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____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배치나 형태 구성에 있어서 차량의 속도감을 우선 고려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는 어차피 도로와 격리시키는 차음언덕 등의 장치가 있으니 만큼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은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선형의 형태 요소를 속도감으로 표현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군요.

이충기 ____ 저는 속도라는 단어에서 방향성과 선의 이미지를 고집해 내었습니다. 속도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의 이동은 선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속도감을 휴게소에 있어서의 방향성과 선의 이미지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주차광장의 통로와 주차면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건물 배치 등은 방향성과 선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휴게소 진입에서의 고속에서 저속으로의 속도전환에 이어 체감되는 휴게소 건축이 선형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그것은 넓은 주차광장에 대응하여 기능을 분산하는 의미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선형의 형태요소가 속도감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고 속도감에서 느끼게 되는 방향성과 선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선형의 형태요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____ 이 휴게소는 형태를 감싸는 재료의 미려한 특성이 잘 살아 있고 전체적으로 공학적, 기술적 변화의 문화성을 드러내는 쪽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성과가 이용객들에게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상 차가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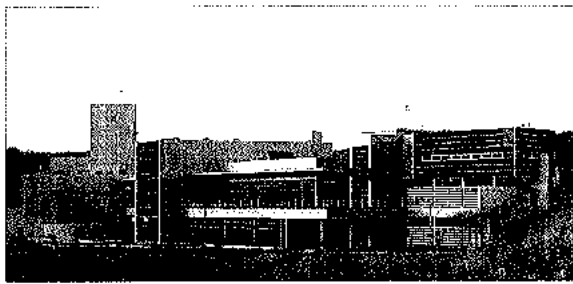
이충기 ____ 기존 휴게소의 경우 외장재료 적벽돌이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유행처럼 알미늄 패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의지와 관계없는 건축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들어서는 건축물로서는 휴게소가 아니라 어떤 기능의 건물에서도 그 어울림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지침으로 정해진 알미늄 패널의 차가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선택한 것이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 데크 그리고 투수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그 자체만으로는 차가운 이미지를 줄 수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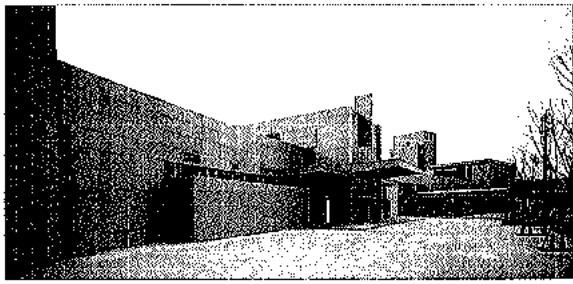
인삼랜드(하) Deck

알미늄 패널에 대비시키면 의외로 따뜻한 이미지를 느끼게 되어 알미늄 패널의 차가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건축주측에서 가졌던 초기의 의구심을 많이 지우게 되었습니다. 좀더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축현실에서 건축재료의 사용은 풍토성 혹은 지역성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의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 형태와 공간의 일의(一意)적 표현에 유리한 재료들 이를테면 노출 콘크리트나 PC판, 목재 내후성 강판 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건축이 갖는 시간적 속성의 표현에도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재료의 경우 유지관리 측면에 관심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의 합치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여 우리 건축주들도 조금씩 바뀌어 시간성을 나타내는 재료의 사용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의도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월간지를 통해 나타나는 작품들로만 유행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우리시대 건축재료의 최대유행은 불행히도(?) 알미늄 패널과 유리로 된 커튼월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가로서 건축재료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풍토에 맞는 재료의 발견 혹은 개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도와 바라간의 지역성은 특수성이 보편성을 획득한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이주연 ____ 건축 공간의 이용 행태는 건축적 장치로 구획된 공간에 의해서 규정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휴게소는 리니어한 공간 구성이 갖는 기능과 행태의 명징성은 확실해 보이지만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이용 행태는 다소 혼란함을 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즉 건물과 주차광장간의 동선 축과 리니어한 건물의 공간 관계에 따른 동선 축의 교차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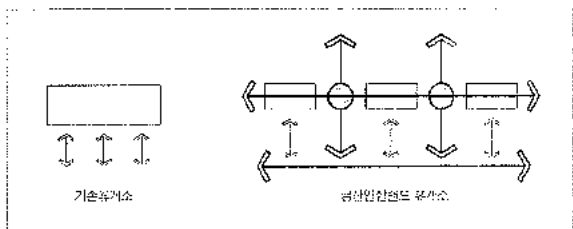


인삼랜드(하) 휴게소



인삼랜드(하) 휴게소

이충기 _____ 동선축의 교차점들에서 일어나는 복잡함과 얽힘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존 휴게소의 복잡함과 어수선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인데 결과는 대전에서 통영간 전 노선이 개통되는 연말 이후에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휴게소의 번잡함은 외부의 휴게공간이 부족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휴게소에서 종적인 동선에서 벗어나 기능을 분산하고 종적동선에 침과 휴식을 부가하여 횡적 동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능-침-기능-침의 횡적 동선 안에서 내부 공간을 외부공간으로의 시선유도와 함께하는 공간변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과 여유가 있는 교차점으로 오히려 동선을 분산시킴으로써 내부공간의 번잡함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지요.



동선개념

물론 그 교차점에서의 동선의 얽힘이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횡적 동선인 휴게소의 전면 데크의 폭을 기존휴게소와 비교해서 훨씬 넓은 12m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선은 많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주연 _____ 인삼랜드라는 휴게소 이름으로 유추하자면 이 휴게소 공간은 단순히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휴식만이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하행선 주변의 지형은 이를 받침할 만한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이 휴게소의 기능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수만...

이충기 _____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삼랜드 휴게소를 당초에 금산휴게소, 인삼고을 휴게소를 거쳐 인삼랜드로 명명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산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현상설계안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려던 계획이 금산군의 요구로 규모가 확장되게 되었고, 금산군에서는 휴게소 계획과 관련하여 휴게소 주변에 인삼풍물광장을 계획하여 추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이름도 인삼랜드로 바꾸게 되었구요. 하행선의 경우 주차광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선을 수공간으로 연장하여 그 아래에 인삼풍물광장이 들어서면 그곳과 연결할 수 있다는 의지로 브리지 형태의 데크를 내밀어 방향성을 암시해 두었습니다. 하행선을 아래로 1층을 내리게 된 것도 이 내용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만약에 연결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내려놓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그러나 휴게소는 돈을 내고 다니는 고속도로의 일부 기능에 지나지 않는데, 이곳을 지역의 놀이 시설이나 문화시설과 연결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휴게소에 포함되는 시설이면 몰라도 소속과 관할이 다른 두 시설을 연계시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미 그러한 부작용은 있었으니까,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_____ 그런 장치들이 중국에는 빈다한 행위가 수시로 다양하게 벌어지는 휴게소에, 건축 자체도 숨을 쉬며 휴식을 취하게 하는 공간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게소 건물과 주차광장 사이의 전이공간은 여타의 휴게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이공간 사이사이에는 배치의 개념을 인지시킬 만한 장치들이 중심성을 갖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었는데, 스케일 면에서 전체 균형과 다소 차이를 보여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충기___ 기존휴게소의 경우 전면 데크에 여유가 없어 더욱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데크를 폭 12m 정도로 넓게 계획하여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최근에 들렀더니 운영인의 얘기로는 인기 가수 콘서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의도가 반영되었구나 싶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전면 광장으로 타원형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지성을 나타내기 위해 노출 콘크리트 가벽을 계획했는데 그 가벽은 중심성을 갖는 인지적 요소 외에 벤치, 옥외 조명 등, 안내용 사인물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출 콘크리트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비폴 플라스틱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크기도 많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___ 소장님이 그동안 작업을 해오신 내용을 들춰보면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비교적 다수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특별히 건축 설계 집단의 활로 모색 방안의 하나로 우리네 건축 세상이 진단하는 차별화, 특수화라는 관점에서도 짚어볼 만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이충기___ 건축가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요, 또 외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어온 일을 마다하며 골라서 할 수 있는 건축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해보고 싶고 재미를 느끼는 작업들은 사실 종교관련 시설과 주택작업들인데 두세 번 밖에 기회가 없었고, 요 근래에 몇 개가 계약단계에 있어 흥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건축은 정유사의 표준화 작업 현상 당선과 함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여러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외에 제가 하고 싶고, 가능성 있는 현상설계에 일년에 두세 번 정도 참여해 거의 우수작에 그쳐 기회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교통관련시설인 휴게소나 영업소는 당선이 잘 되었다 보니 전문화, 특수화 된 것처럼 비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모색의 한 방편으로 전문화, 특수화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된 셈인데 건축가의 역량을 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작업도 제게 기회만 오면 전문화, 특수화 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지요...

이주연___ 그러나 요즘처럼 치열한 환경에서는 그 전문화나 특수화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길 하나를 만들더라도 바로 그런 전문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도로가 새로 뚫리면 기존의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 가왕에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였고, 상·하행선이 함께 계획된 마당에 위치 선정을 잘해서 생태계도 연결하고 상하행선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휴게소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도로공사에 해볼 생각은 없었는지요.

이충기___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아도 도로공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도로공사는 도로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집단과 비교하여도 아니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휴게소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소 건축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면 이용객의 행태나 고속도로의 운영 자체가 우리와 차이가 있고 또한 토목 위주의 행정으로 진행되는 조직에서 건축의 몫은 그 역할과 위치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삼랜드 휴게소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생태계의 문제는 토목분야에서 노선설계시 생태 브리지, 연결통로 등으로 이미 계획·실행하고 있고 이번 인삼랜드의 경우 상·하행 연결통로가 타원형 배치선상에서 제안되었으나 예산의 문제, 연결효과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처럼 상·하행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게소도 언젠가는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주연___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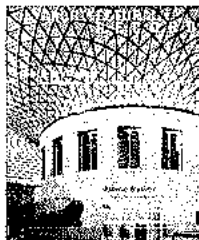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3월

건축 재료, 특히 유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본 호에서는 그 재료를 독특하게 사용한 최신 예로 Meier, Foster 등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건물 타입별 연구에서는 설계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공공 건물이 다루어져 있다.



■ 재료

본 호에서는 시각을 사로잡는 유리 커튼월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장식에 대한 근대건축의 금기로 인하여 많은 건축가들은 작품에 그들의 감정을 표출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예전처럼 조각적 형태를 덧붙이거나 구조적 분절을 장식화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예일대 화귀 도서관의 반투명한 대리석의 사용이나, Frank Gehry의 티타늄의 사용은 현대 건축가가 재료를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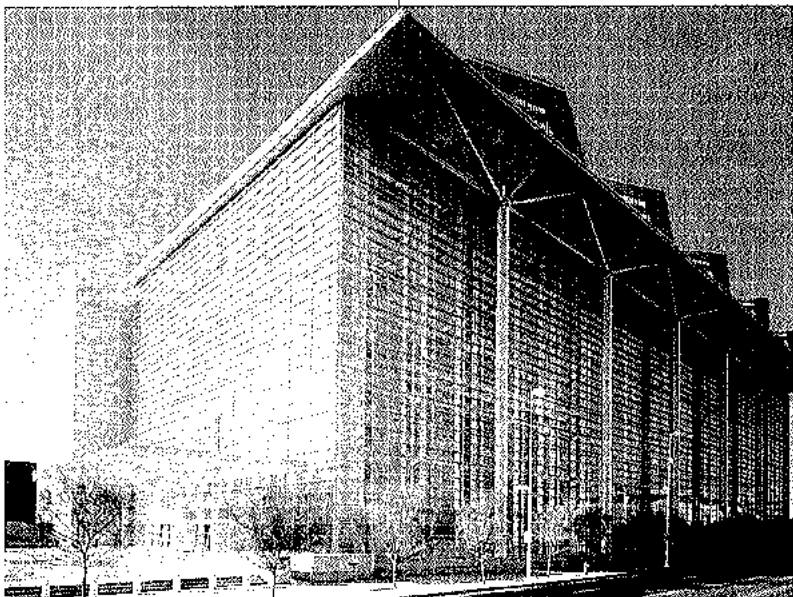
사용하여 건물을 dress up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의해 건물의 외피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리는 건축가의 외피 표현에 아주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 호에 소개되는 작품의 건축가들도 유리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 Richard Meier의 미국 Phoenix 법원

그동안 흰 벽면을 통해 근대적인 감수성을 표현해온 Meier는 이 최신작을 통해 유리를 또 하나의 건축 어휘로 채택하고 있다. 중심부의 거대한 아트리움 공간이 유리로 덮여 있는데, 기온이 높은 지방에서 햇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백옥유를 첨가한 재료를 사용했다.



Ten Arquitectos의 멕시코 시티 아비타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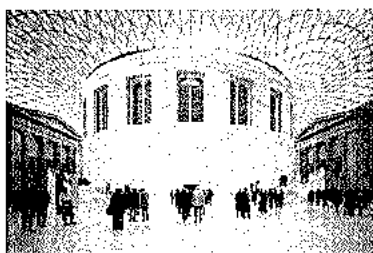


Richard Meier의 미국 Phoenix 법원

▶ Ten Arquitectos의 멕시코 시티
아비타 호텔

1950년대의 아파트먼트 건물을 호텔
로 '심형수술'한 이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을 반투명한 유리 커튼월로 감싸
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방법은 가림과
드러냄,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이중적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였다. 내외 경계
의 모호함, 공간의 한점과 부정 등은
유리가 가지는 역설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투명한 유리 외피에 뚫린 긴
직사각형 투명 개구부는 위와 같은 개
념을 잘 보여준다. 이 틈을 통해서 건
물 내부에 있는 사람은 거리의 풍경의
시야가 제한되며 정확하게 편집된 장
면만을 보게된다. 반면 야간에는 유리
커튼월 이면의 화분이나 실내 가구들
을 어렴풋이 보이도록 계획하여 전체
가 하나의 큰 등과 같이 보이게 했다.

▶ Foster & Partners의 British
Museum, Queen Elizabeth Great
Court



Foster & Partners의 British Museum, Queen Elizabeth Great Court

기존의 고전 건물군의 중심부에 대한
리노베이션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Foster의 계획안이 완공되었다. 중심
실린더를 둘러싼 유리 돔 구조는 기존
의 신고전주의와 대립적인 미를 이루
면서, 그 실내화된 공간을 통해 박물관
의 늘어난 사용인원을 합리적으로 수
용하고 있다.

▶ 그 외에 AMP Architects의 스페
인 형 Canary Island 총독부가 소개
되어 있으며,

▶아울러 재료 사용에 대한 Williams
and Tsien 인터뷰가 실려 있다.

■ 건물 타입별 연구 - 공공 건물

공공 건물의 설계 과정은 시민 단체 등
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 한계가 있었으
나, 최근 건축가들은 그 과정을 통해
보다 표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
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그 예로 ▶
Agrest and Gandelsonas의
Melrose Community Center, ▶
Hanrahan+Meyers의 Brooklyn
Red Hook Center, ▶Gould Evans
Associates의 Kansas Lawrence-
Douglas County 건강 센터 등이 소
개되어 있다.

■ 기타

▶건축 설계사무소의 마케팅 전략, ▶
British Museum의 유리 지붕에 대한
기술적 정보, ▶Meier의 피닉스 법원
유리 지붕과 설비시스템의 경량화, ▶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On
the Job: Design and the
American Office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3월호

인간을 외부로부
터 보호한다는
건축의 기본 명
제에 대한 재고
에서 시작한 본
호 에 서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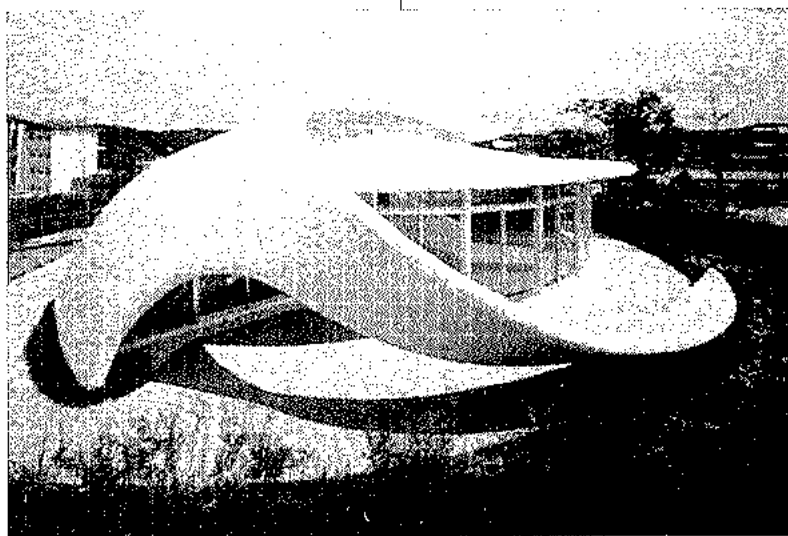
Morphosis, Cullinan, Pugh+Scarpa
등의 최신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사회의 각 구성원의 보호막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물을 창조하고자하는 생각은 지난 세
기동안 이어져왔다. 그것을 이루기 위
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Morphosis의 LA Diamond Bar
고등학교

이 건물은 다음의 이유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 가장 민영화가 잘된 남부 캘
리포니아의 사회적 정치적 성과를 함
축하고 있으며, 공적이면서 동시에 실험적으로 공공건물의 모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자동차 문화가 지



Kalhar, Findlay Laboratory의 일본 Kasashima 라운지



Morphos의 LA Danone Bar 건축가: 피

배적인 곳이다. 건물은 굽이진 아스팔트길에 의해 접근되며, 인근에 학생과 교직원용 주차 7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동차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큰 움직임과 보다 작은 구성요소간의 유희라 할 수 있다. 전체건물은 축조된 구조물의 새로운 커를 만들어내며 경사진 대지에 놓여 있다.

▶ Kathryn Findlay Laboratory의 일본 Kasahara 마을회관
공업도시로서 오염도가 다소 높은 Gifu현의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백색의 마을회관이 지어졌다. 이 건물은 에어컨디셔닝을 위한 별다른 비용없이 덥고 습한 여름이나 추운겨울에 자체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기술로 지어졌다. 이 두가지 요건은 건축가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Findlay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가능성을 형성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건물의 평면은 미세한 유기체와 같이 보인다. 각 실은 알모양의 메인홀에 클러스터를 이루며 부착된다. 외피의 원형 타일은 갑각류의 등껍질같은 곡면에 적합하다.

그 외에 ▶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University of East London 계획, ▶Rural Studio의 Alabama 주거, 유치원, 마을회관 복합 프로젝트, ▶Pugh+Scarpa의 미국 산타모니카 예술가 스튜디오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디자인 리뷰: Casagrande & Ritala의 헬싱키 임시 야외 공연장

Casagrande & Ritala는 이 건물을 통하여 일시성, 경제성, 비정치성(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주목을 일으키지 않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다. 헬싱키의 European City of Culture 프로그램 일환으로 여름동안 사용하게될 이 공연장은 헬싱키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에 위치한다. 철새의 도래지로도 유명한 이곳에 건축물의 생태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다. 원기둥형태의 본체에 막 구조 지붕형태를 하고 있는 이 구조물의 외벽은 회색 페인트된 합판으로 마감되어 주변의 바위와 일체를 이룬다.

■ 인테리어

▶Avery Associates Architects의 런던 Bloomsbury 연극 학교, ▶Frank Hammoutene의 파리 르노 자동차 전시장 계획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최근 주택 작품으로 스테레오토미와 텍토닉 건축을 적층시킨 Alberto Campo Baeza의 스페인 Sevilla de la Nueva 주택이 소개되어 있으며, ▶저서 소개 코너에는 Anthony Vidler의 Warped Space, Art, Architecture and Anxiety in Modern Culture, 그리고 Sun, Wind and Light: Architectural Design Strategies, The Modern City Revisited 등이 다루어져 있다.

건축문화

2001년 4월호

이번 호에서는 建築文化

'건축과 컴퓨터'라는 특집이 컴퓨터는 건축을 진화시키는가? 라는 부제와 함께 꾸며졌다.

다. 1972년 컴퓨터 에이드드 시티(Computer Aided City)라는 도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와의 대담. 건축과 컴퓨터를 화두로 이야기 할 때 내놓을 수 없는 키워드들의 정리.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 개념들을 선보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 건축과 컴퓨터 - 컴퓨터는 건축을 진화시키는가?

▶대담: 컴퓨터는 건축을 변화시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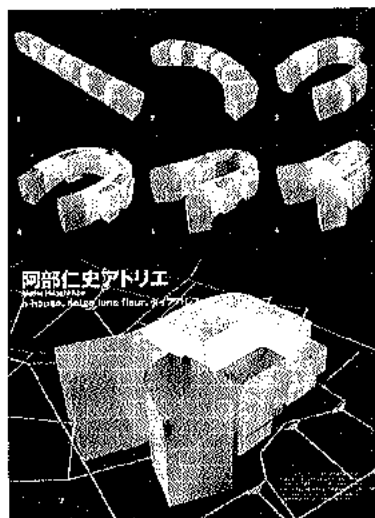
대담은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와 동경대 교수 田中純, 五十嵐太郎박사 3인의 대화로 구성되었다. 먼저 1972년 발표된 이소자키의 '컴퓨터 에이드드 시티' 계획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여 인터넷의 보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70년대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을 건축 실무에 도입했을 때의 이야기에서 五十嵐에 의해서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건축의 방법 및 개념을 선보이고 있는 이른바 '메타 건축가들'에게로 옮겨갔다. 본격적을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파사드 없는 건축', '시간·공간에서 間으로의 개념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 '건축과 컴퓨터'를 둘러싼 키워드

건축과 컴퓨터를 둘러싼 키워드의 정리는 五十嵐太郎박사에 의해 이루어져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제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터미널 아키텍처' -건축평론가 마틴 폴리가 지적한 것으로 정보의 단말기(터미널)로서의 건축을 이야기한다. 건축이 정보의 단말기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건축 또한 종언(터미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 '유체적 건축' -마커스 백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건축은 로봇적인 건축을 넘어서 유체적 건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 상황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물이나 음악과 같은 건축. '그레그 린' -자동생성파의 디지털 아키텍트중 대표적인 논객. 데카르트적 공간에서 라이프니츠적 공간으로의 변용을 이야기 하였다. 이 외에도 '어시프로트(asymptote)', '버추얼 하우스', '트랜스 아키텍처(trans architecture)', '수퍼 플랫(super flat)', '하이퍼 서피스 아키텍처(hyper-surface architecture)', T.A.Z.(일시적 자율존) 등이 열거되었다.

▶작품 소개

소개된 작가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건축개념에 한 발



阿部仁史아부리이

다가섰다고 평가되는 그룹이다. 소개된 작가들은 阿部仁史아부리이, 와타나바 세이(渡辺誠)아키텍츠 오피스, 코지마 카즈히로와 C+A 등의 일본 건축가들과 MVRDV, 다니엘 리베스킨트 등의 외국작가들이 소개되었다.



MVRDV



다니엘 리베스킨트



다니엘 리베스킨트

이들은 형태를 만드는 원리와 개념의 출발점은 각기 다르나 모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 없이는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기 힘든 설계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 것 등 그 활용 정도와 중요성도 각기 다르다.

a+u

2001년 3월호

이번 호의 특징은 '목재의 건축(Wooden Architecture)'이다. 목재를 주로 이용한 작가들



의 작품이나 최근 목재를 이용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목재의 활용 정도는 목조구조물을 갖춘 순수한 목조 건물에서 내·외부 마감만을 목재로 처리한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2000년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조성된 콜로니하벤(Kolonihaven)건축공원을 비롯하여 중소규모의 다양한 작품들이 게재되었다.

■특집: 목재의 건축

이번 특집은 목조건축이 아닌 목재건축이다. 즉 목재를 이용한 전통적인 구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이면 그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균질한 스크린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된 예가 많이 보이며, 전체적인 형태도 목조건축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에 목재만이 갖는 재질감을 더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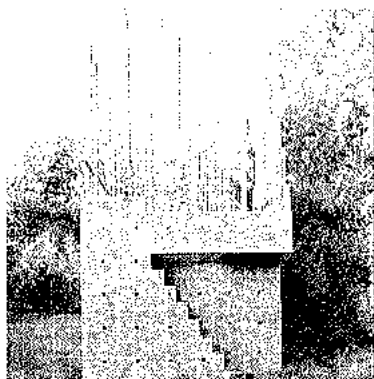
▶콜로니하벤 건축공원(Kolonihaven-The Architectural)

콜로니하브(Kolonihave-Garden Colony)란 19세기 말엽에 생긴 개념이다. 덴마크 정부는 도시근교의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그것을 도시의 공원(工員)들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도회 잡로나 시공창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끔 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지는 100~200㎡로 나누어졌으며 간단한 오두막이 제공되었다. 거주인들은 이 오두막에 색을 칠하고 옥상

과 테라스를 달아내는 등 개조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덴마크의 전통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 레이카빅(Reykjavik) 예술제를 맞아 레이카빅 미술관과 아이스랜드 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콜로니 하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초대하여 모두 제한된 조건의 현대판 '콜로니하브'를 만들게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마리오 보타(Mario Botta), 도미니고 페로(Domi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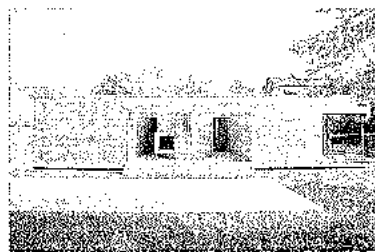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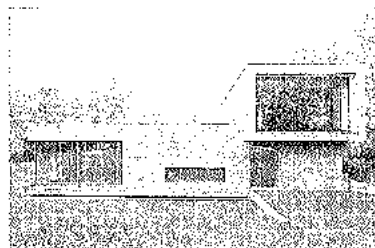
마리오 보타 Mario Botta

Perrault), 알바로 시자(Alvaro Siza),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이소자키 아라타, 레온 크리에(Leon Krier),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엔릭 미랄레스(Enric Miralles),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알도 로시(Aldo Rossi)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축가들을 포함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들로 초대되어 이루어졌다.

최소한도의 주거를 연상시키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을 통해 각 작가들의 건축언어가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이 건축공원을 통해 현대 건축사상의 흐름 또한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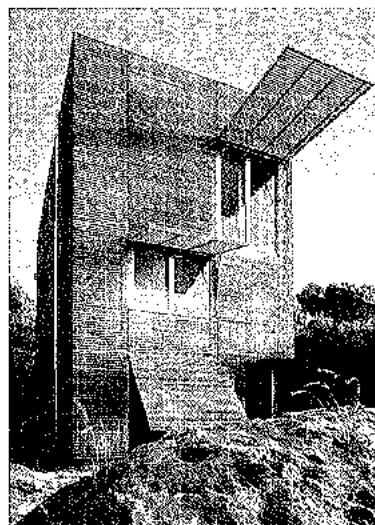
▶베른 차머맨(Bernd Zimmermann)

은 목재를 이용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두 유치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일브론(Heilbronn)의 유치원에서는 정방형의 격자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건물을 구성하여 목조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실내 불박이 가구 등도 직선적인 형태구성을 도입하여 목재로 이루어진 공간의 느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루드비히버그(Ludwigsburg) 유치원에서는 콘크



루드비히버그 Ludwigsburg 유치원

리트 건물에서 주로 나타났던 형태를 그대로 목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일브론 유치원에서는 목재가 건축적인 성격이 잘게 사용되었다면 루드비히버그에서는 스크린과 같은 균질한 면의 성격



카터 터커 주택

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구조체 자체도 목재가 아니지만 마감재로서의 목재가 갖는 부드러움 등이 매끈한 이음매 등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목재를 이용해 스크린과 같은 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셴 갓셀(Sean Godsell)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의 카터/터커 주택에서 얇은 각목들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만든 스크린과 같은 외벽은 빛을 투과시키면서 목재가 갖는 건축적 성격을 스크린과 같은 외벽에 첨가시키고 있다. 건물의 구조체 및 내·외장재로 널리 쓰여왔던 목재는 이제 20세기의 새로운 형태와 구조물들에 의해 새로이 옷 입혀졌고, 목재가 갖는 재료의 새로운 성격을 발견해 내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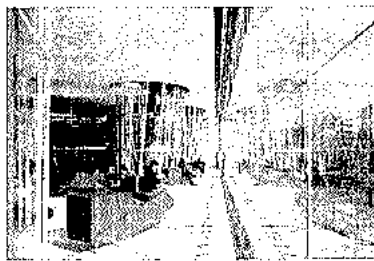
2001년 3월호

이번 호에서는 이
토오 추오(伊東豊
雄)의 '센다이 미
디어테크'가 완공
되어 이를 소개한
기사가 특집으로



다루어 졌다. 신건축에서 근작 소개중
한 작품을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 그 만큼 이 건물에 가는 기
대와 의미부여의 무거움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밖에 古谷誠章과 스튜디오 NASCA
의 ZIG HOUSE/ZAG HOUSE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 센다이 미디어테크



센다이 미디어테크

설계와 공사기간을 합쳐 6년여동안 진
행되어온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완성되
었다. 계획안이 소개되었을 때에도 이
토오 추오의 참신한 설계로 많은 관심
을 모은 건물이다. 이 건물에 대한 관
심도를 말해주듯이 신건축지에서도
46페이지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있
다. 작가의 에세이를 비롯하여 준공된
모습에 대한 소개, 외벽 디테일, 방재,

공조, 내장 등 설계 전반에 걸쳐 고려
된 사항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며
아마모토 리켄(山本理顕), 세지마 카
즈요(妹島和世) 등 최근 일본에서 주
목받는 작가들의 비평이 함께 실렸다.

▶이 건물의 설계자 이토오 추오의 에
세이 '근대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공
간'에서 그는 최근 아시아의 도시들에
서 볼 수 있는 초근대화(超近代化)현
상을 지적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혼재
적 성격을 센다이 미디어 테크에 부여
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 신
흥 도시에서 나타난 초근대화적 성격
이란 일관된 도시계획 없이 날로 뻗어
가는 미천루와 그 밑의 작은 목조 건물
들,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혼재가 자기
완결적인 근대적 성격과 다름을 지적
한 것으로, '유동적 공간'으로 그 특징
을 요약할 수 있다. 이토오는 이러한
유동적 공간을 센다이 미디어 테크에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근
대적 공간이 갖는 균질성을 없애고
'여기 밖에 없는 공간'들을 만들어 사
용자가 그 '장소'로 찾아와 행위를 일
으킨다는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을 관통하는 튜브들이 구상
되었으며, 이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탱
하는 이 튜브들은 기존의 도미노와는
다른 '뉴 도미노'라 건축가에 의해 칭
해졌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의
해 근대적 공간의 원형인 도미노와 다
른데, 첫째 각각 그 크기와 모양이 다
른 점, 둘째 대부분의 튜브들은 그 외
벽이 투명하며, 이것은 인공환경에 자
연의 흐름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셋째 튜브의 배치는 어느 정
도 랜덤하다는 점 등이다.

■ 작품소개

▶센다이 미디어 센터 특집과 다른 연
재물들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이번
호의 작품 소개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古谷誠章과 스튜디오 NASCA
의 ZIG HOUSE/ZAG HOUSE는 주



스튜디오 NASCA의 ZIG HOUSE/ZAG HOUSE

택작품임에도 비중있게 소개되고 있
다. 제목에서 zig와 zag로 나뉘어 있
음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이 주택은 2
기에 걸쳐 완성되었다. 각기 ㄱ자와 ㄴ
자의 평면을 지닌 주택 두 채를 연결하
여 하나의 지그재그 모양의 평면을 만
들어냈다. 대지에서 기존 주택이 변화
성장해 온 모습을 읽어가면서 모듈화
된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다. 이밖에도 이틀리에 원과 동
경공업대학건축학과와의 합작품 '하우
스 아사마'와 '하우스 사이코'는 교외
에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과 같은 주택
을 통해 건축에서의 습관적인 요소들
의 제거와 변형을 실험하고 있다.

경기도립 국악당 / 68

연천 우체국 / 74

천안시청사 / 78

주상해충영사관 / 84

경기도립 국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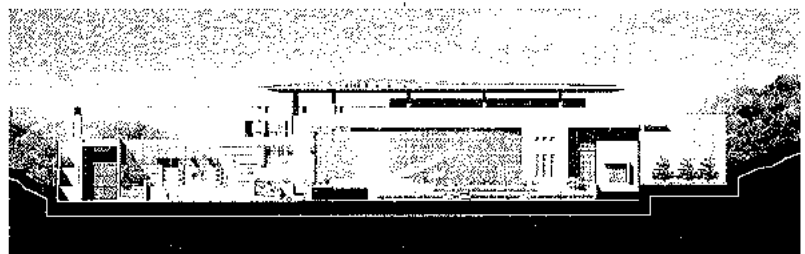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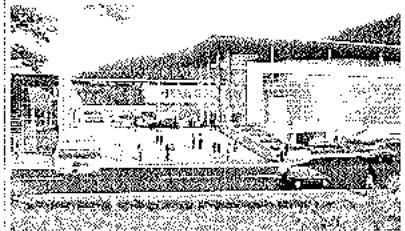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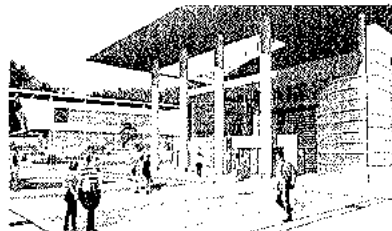
Classical Music Hall
of Kyeonggi Province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립박물관과 인접해 국악당을 건립하기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1월 31일 작품을 마감하고 4월 4일 심사를 하였다. 이번 현상설계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출품작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질의 응답의 형식을 취해 주목을 끌었다. 최종 3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동훈)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주)성렬종합건축사사무소(임정렬) 안과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전재우) 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4월 9일 발표했다. 심사는 백상운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관련인 3명, 예술 관련인으로 수원대 국악과 임진욱 교수 등 4명, 이연설 경기일보 문화부장 등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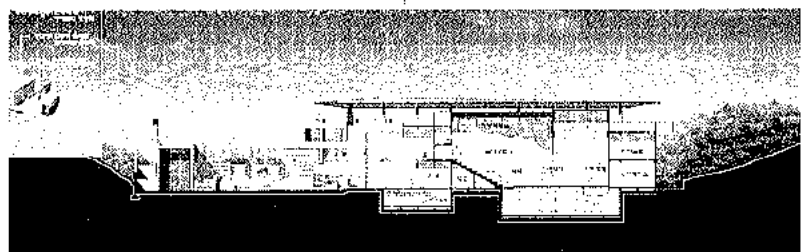
인 3명, 그리고 김영섭 건축문화설계연구소 대표 등 건축분야 5명이 참여했다.

▶ 당선작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동훈 · 임채돈)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46와 4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도로현황	전면 12M도로에 123M 접함
대지면적	16,530.00㎡ (5,000.00평)
건축면적	3,143.95㎡ (951.04평)
건폐율	19.02 % (법정 20 %)
용적률	26.90 % (법정 1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20.10m
외부마감	외벽-T=30 화강석 버너구이 창호-THK=18.24MM 칼라복층유리
주차대수	법정-30대 (4,445.96 / 150 = 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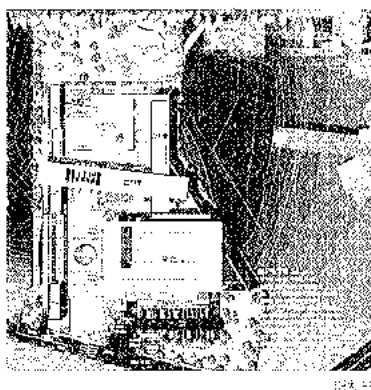


입면도



단면도

계획 - 32대(정예인 3대, 대면 0대 포함)
 주차장식 - 자주식
 지하주차장 제안 - 22대
 소공면적
 입정 - 2,479.50㎡(750.05평)...대지면적의 15%이상
 개획 - 4,830.95㎡(1,461.36평)... 29.22 %
 설계인어
 설계총괄 - 김동훈+일개원
 설계팀 - 정언거, 정순철, 안성진, 김종근, 권대성, 황진아, 김기영, 김대철



수직, 수평축선 배치를 하였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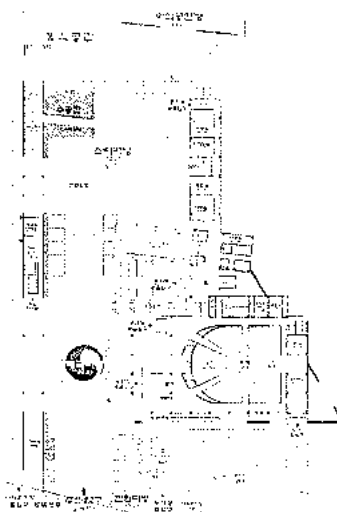
주요개념

축(Axis) : 기존대지의 형상을 적용하여 대지의 고유한 장소성을 부여하였고, 대지축(수직축)에 대응하여 도시축(박물관과의 연계성)을 건물형상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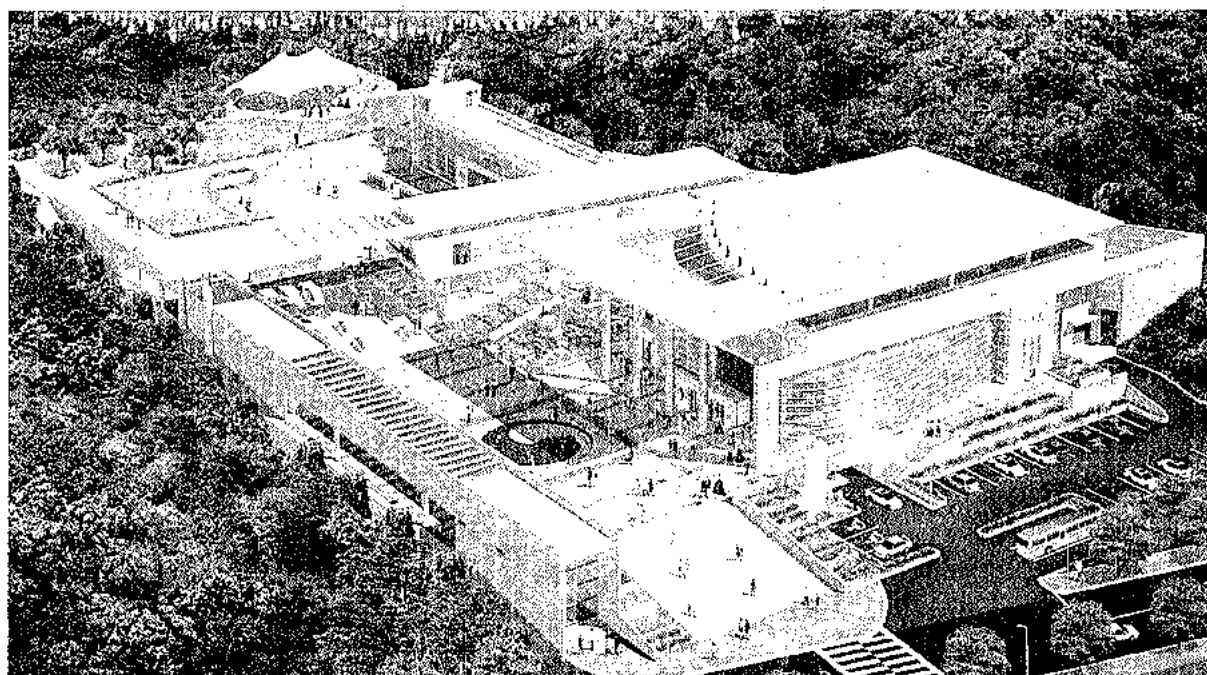
매스(MASS) : 축을 중심으로 대지형상에 적응하여 기본매스를 설정하고, 매스를 통한 영역의 분리와 전면도로에 서의 인지성을 고려한 매스계획을 하였다. 지형 LEVEL차를 이용한 합리적인

마당(COURT) : 지형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한국 전통 공간 구성체계에 접목하였고, 공간은 지역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거리, 살거리, 먹거리, 할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쇼핑, 외식, 휴게기능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을 하였다.

홍거운 국악마당 :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 나는 전통음악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1층-3층도



▶ 우수작 / (주)성림종합건축사사
무소(임장철 · 최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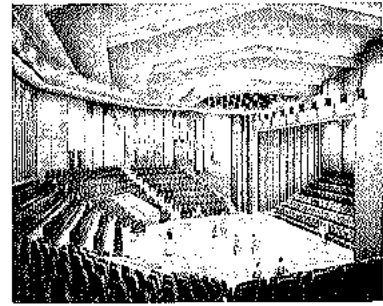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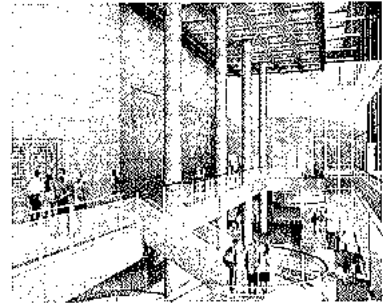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46 번지외 4필지
지역지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
대지면적	16,528.93㎡(5,000평)
건축면적	2,453.24㎡(742.15평)
연면적	4,581.85㎡(1,386.01평)
건폐율	14.84%
용적률	27.17%
규모	공연동: 지하1층, 지상2층 부속동: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33대(장애인 주차 4대) - (법정 31대)
외장재료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계	김재영, 전철상, 송희정, 지철근, 노 상원, 이형주, 정성규, 임재민, 임채 경, 이동훈, 권상석

계획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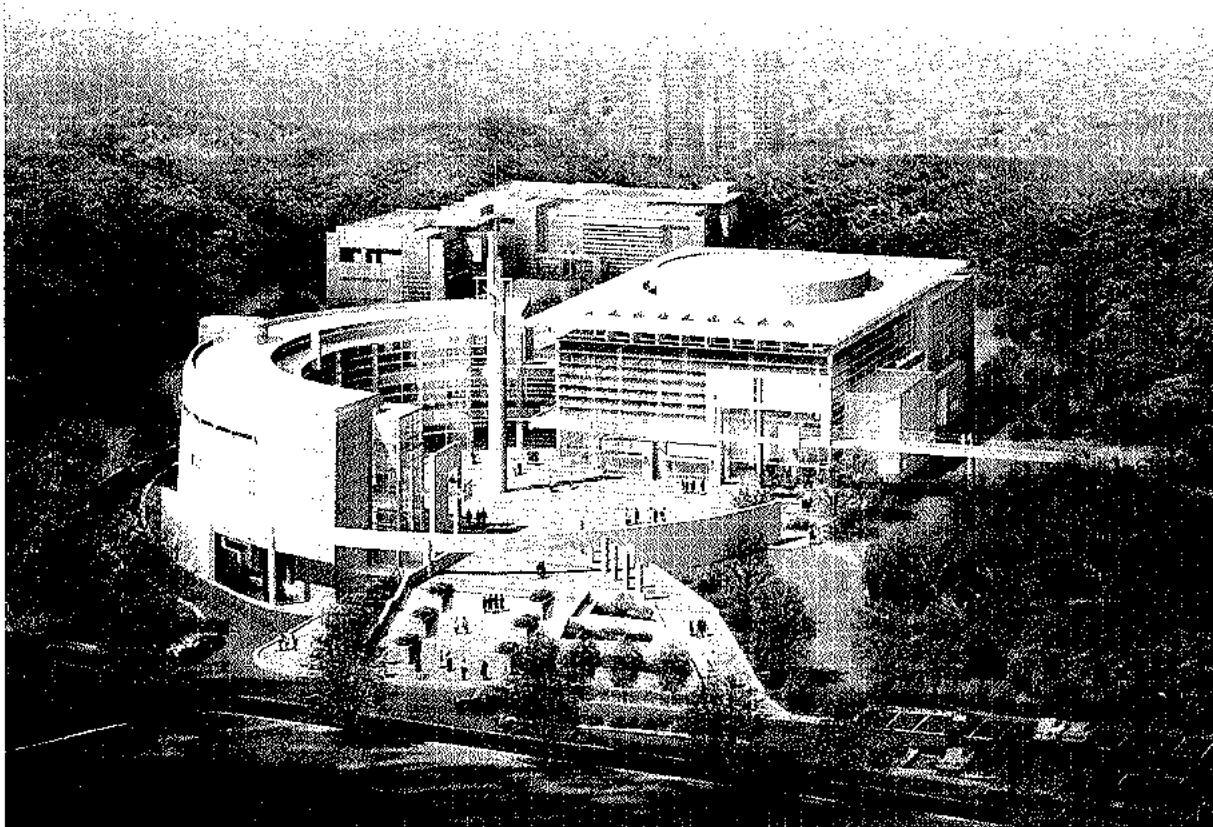
- 기능 및 공간
- 공연장과 수익성있는 부대시설을 통
한 복합문화공간 창조
- 공연, 전시와 교육을 통한 전통체험
의 장
- 도립박물관과의 보행자 연계
-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자연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
- 향후 성장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
한 설비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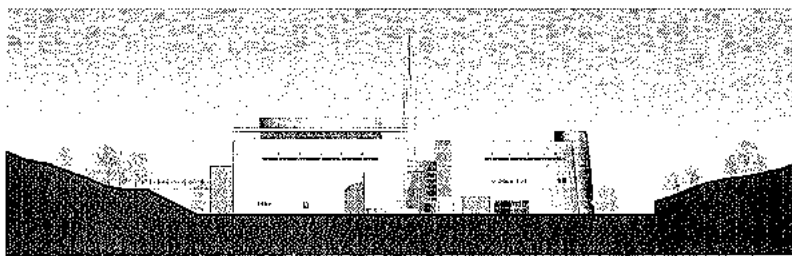
형태 및 조형

- 도립박물관과의 연계로 인한 문화권
역의 확대
- 전통공연장으로서의 국악위상 표현
-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공간 및
조형
- 공연의 일시성을 넘은 전통의
Eternity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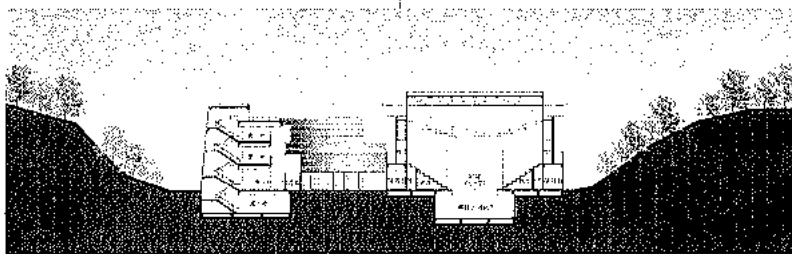


- 주위 Context와 조화된 형태
- 일상적인 휴식과 여가선용이 가능한,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간
- 기하학적 형태와 매스, 재료를 통한
Identity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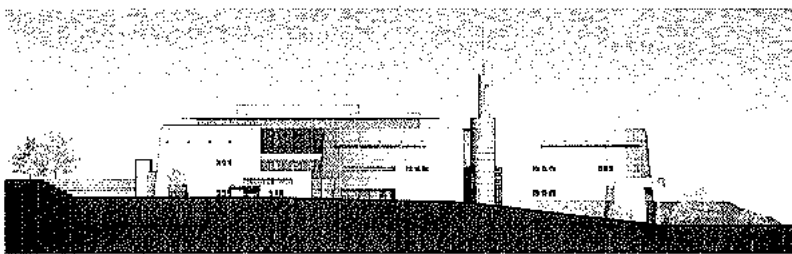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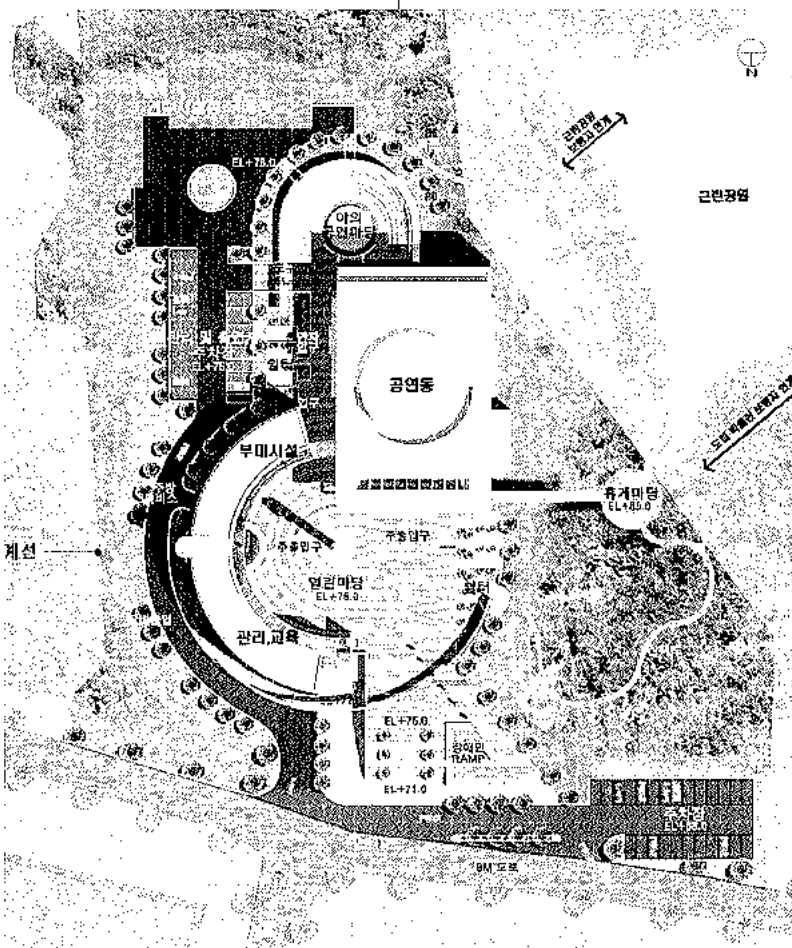
배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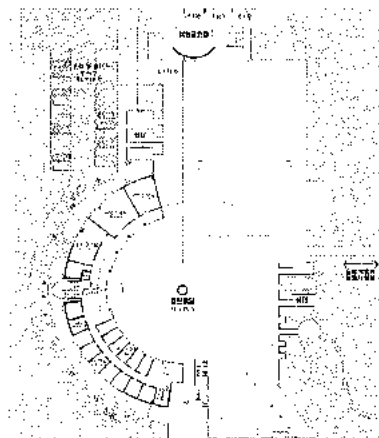
북리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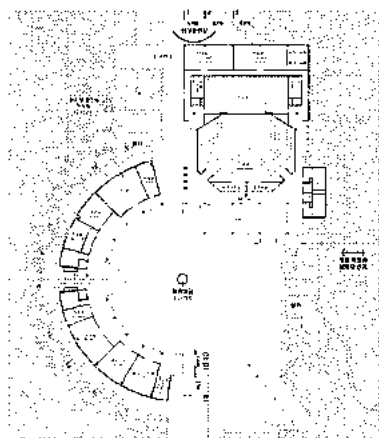
호수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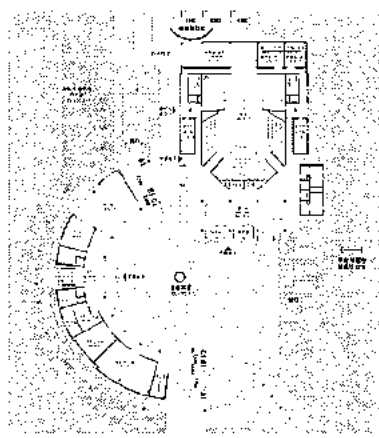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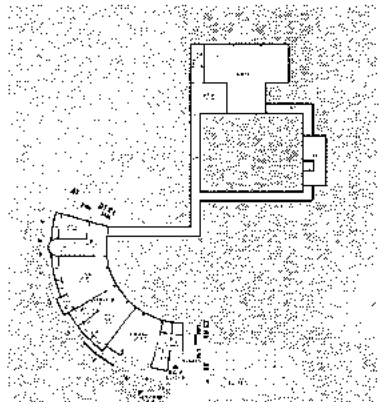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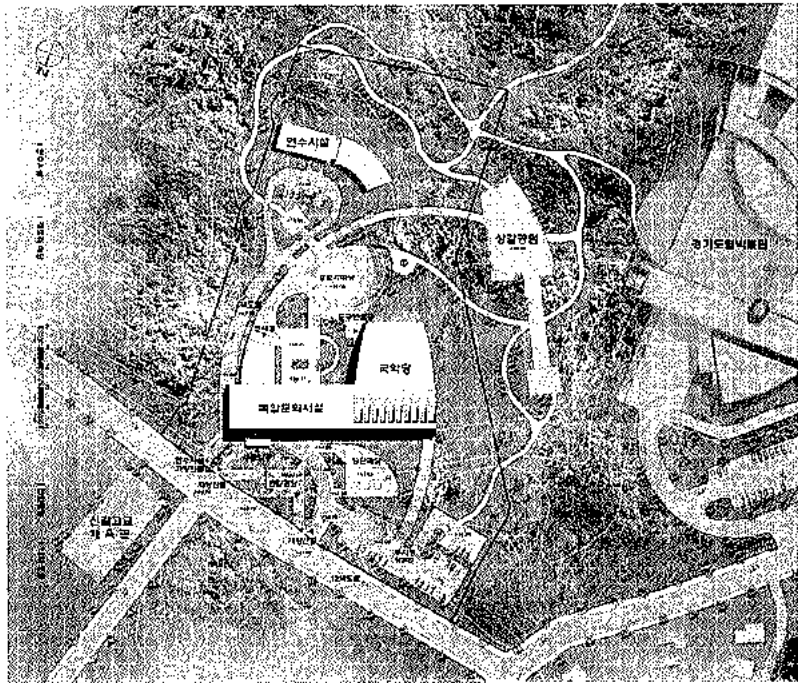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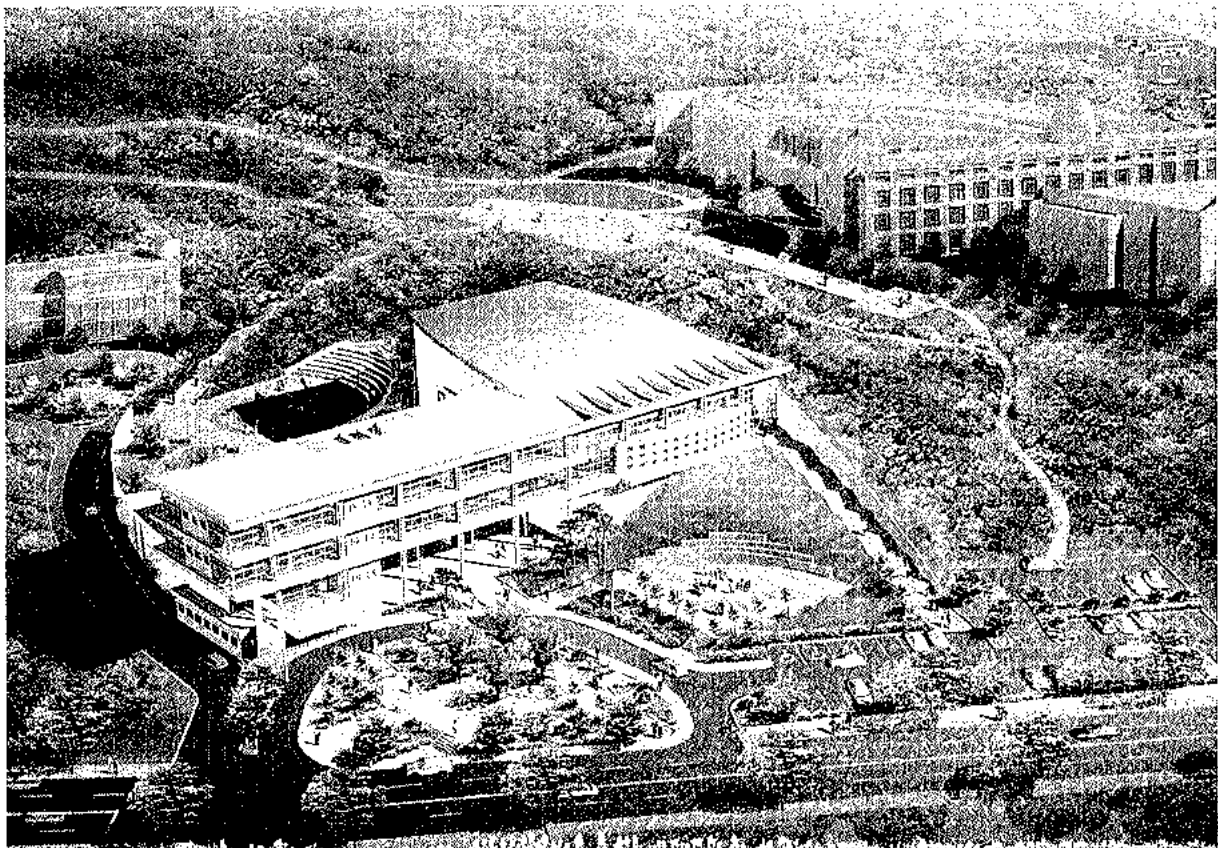
▶ 우수작 / (주)동남아태종합건축
사사무소(전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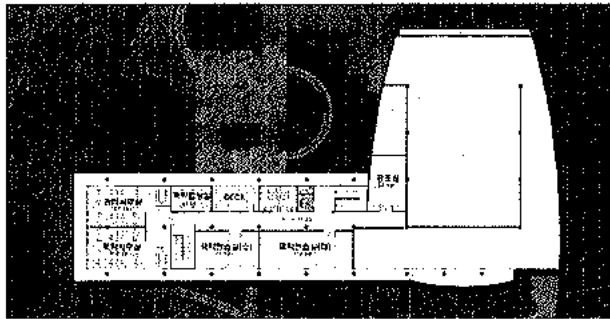
대지구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146번지외 4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시설
대지면적	16,420.13㎡
건축면적	1,970.56㎡
연면적	4,082.78㎡
건폐율	12.00%
용적률	21.67%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객석수	국악당 : 412석(장애인 3석 포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외벽대감	노출콘크리트+골판위 아연도금+ 복층유리
조경면적	9,700.00㎡
부대시설	주차장, 휴식 및 산책로, 놀이마당, 잔입마당
주차대수	법정:27대, 계획:42대(장애인주 차 3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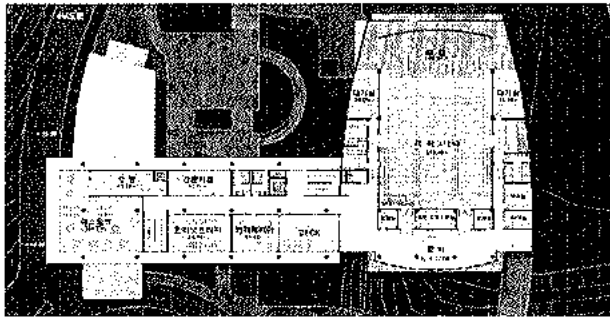
· 건물을 전면부에 띄워 배치함으로써
자연보존과 토목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 전면에서 강한 수평적 시각 이미지를

형성하여 건물의 인지성을 높인다.
· 기존 도립박물관과 배치의 형태적 유
사함을 통한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공원내 일체감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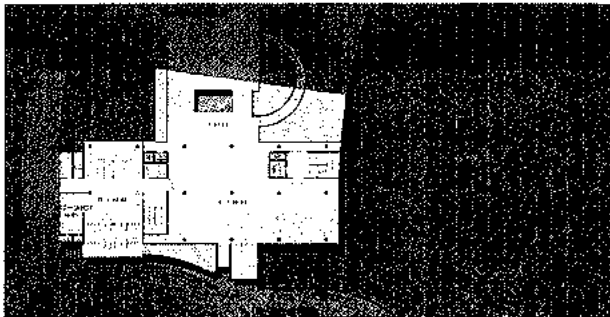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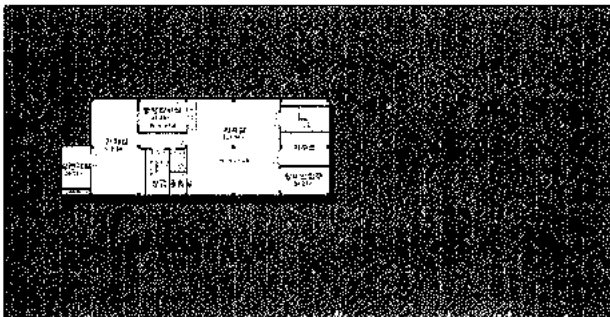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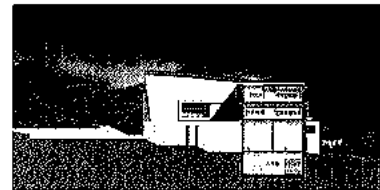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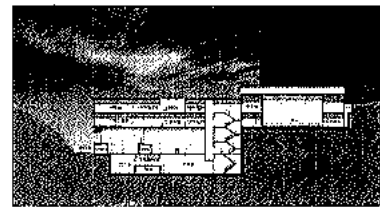
정면도



측면도



차림면도



원단면도



연천우체국

Yeoncheon Post Office

연천우체국 신축공사 건축설계 현상공모 결과가 4월 12일 발표되었다. 정보통신 및 우정사업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현대감각에 맞는 우체국사 건립을 목적으로 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총 10개 설계사무소가 접수하였다.

당선작에는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고, 우수작으로 제이엔제이건축이, 가작으로 청우건축이 선정되어 당선작에는 설계권이 우수작 및 가작에는 소정의 현상금이 지급되었다.

▶ 당선작 / (주)유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김 환성 · 김종규)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34-7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면적	610.36㎡
연면적	2,799.5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8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 별첨 16대
외부마감	화강석, 유색복층유리
설계담당	채정식, 김환성, 엄동욱, 송은영, 박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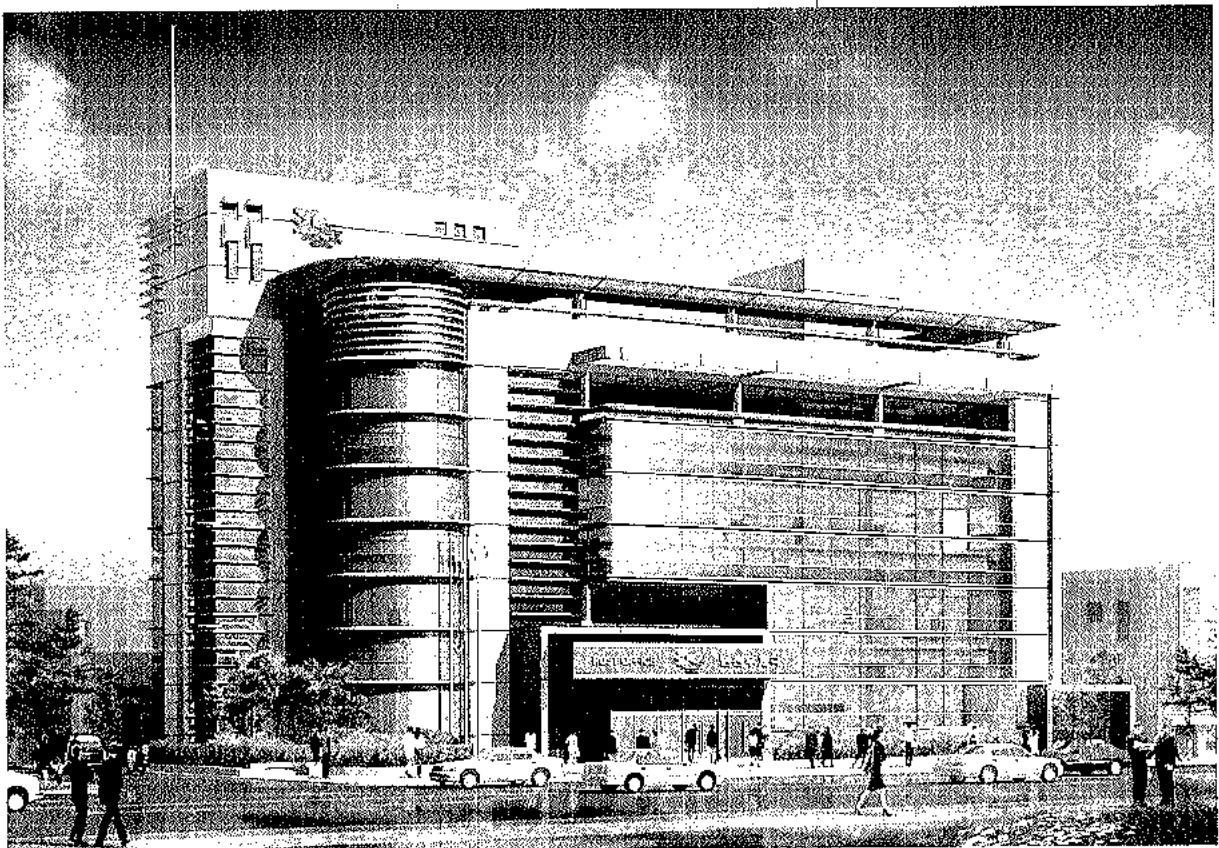
계획의 기본방향

- 정보통신 및 우정사업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체국사 계획
- 관청의 재래 이미지에서 탈피한 밝고 경쾌한 공간 조성

- 우체국의 공익성을 살리고 개방감과 친밀감 유도
- 지역사회와 연계 및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편리도도

배치개념

- 자연지형 및 도시 Context 흐름에 순응하는 배치
- 연천군의 랜드마크적인 상징적 역할
- 가로변의 정면성 강조
- 명확한 동선분리 :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25m 주도로에서 공중실로 바로 진입하도록 주출입구 계획, 접근성에 따른 부출입구와 직원용 출입구 계획, 우편물 발착 및 하역에 따른 서비스 공간 확보
-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조성 : 직원/민원인에게 개방된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가로에 포켓공원제공으로 우체국 인지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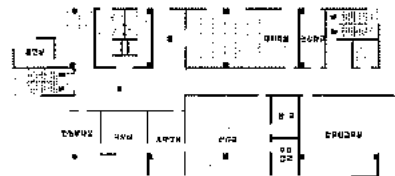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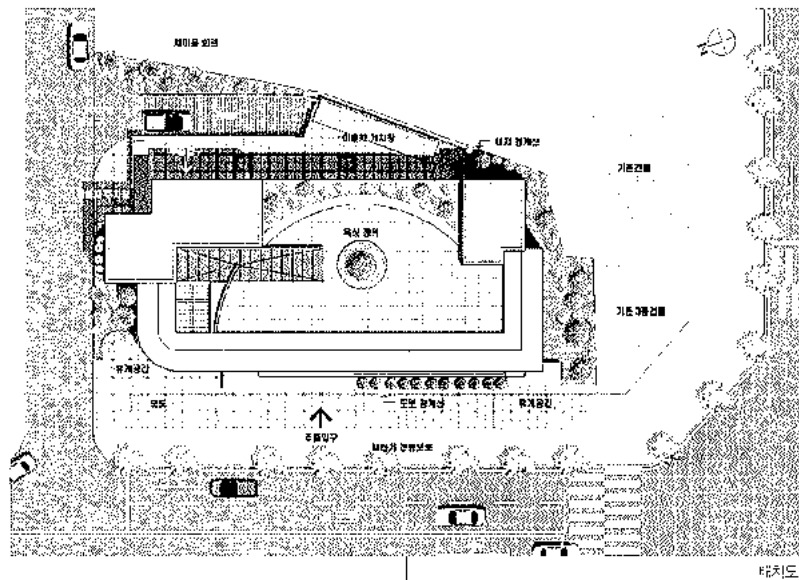


평면계획

- 건물 기능과 각 영역별 기능에 따른 합리적 공간구성
- 내부공간의 가변성 : 업무의 변화 및 물량 증가에 대비한 신축성 있는 공간 계획
- 업무, 작업, 지원공간 등 기능에 따른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평면구성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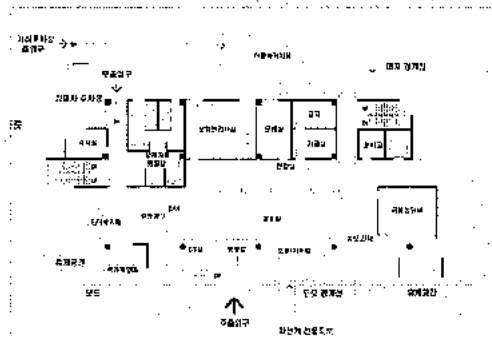
- 우정 현대화를 주도하는 우체국으로 미래지향적, 현대적 이미지 추구
- 공공청사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 연천군에서 랜드마크적 이미지 구현
- 에너지 절약 및 채광환기를 고려한 개구부 계획
- 재료대비(화강석, 유리)를 통한 변화 추구
- 전면 커튼월로 유리면의 개방감, 투명성, 경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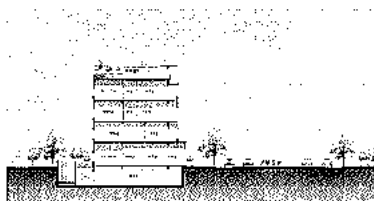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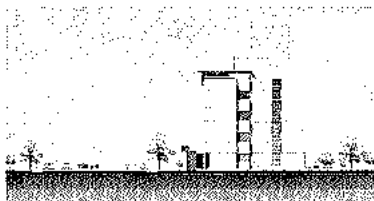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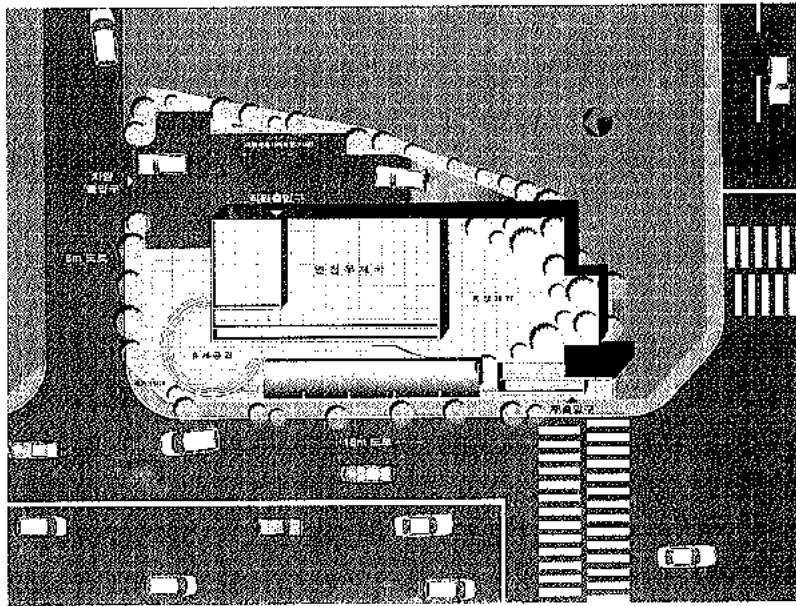


눈측면도

▶ 우수작 / (주)제이앤제이건축사
사무소(최종천, 전태진) + 황태주
(서원대학교)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7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1,076.00㎡
건축면적	489.24㎡
연면적	2,897.28㎡
건폐율	45.47%
용적률	150.5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칼라복층유리
주차대수	법정 13대, 계획 25대
설계담당	이찬우, 박범기, 김시덕, 박종일, 강석진, 자관미
C.G	(주)아이에스엔코리아

계획대지는 연천역 근방에 있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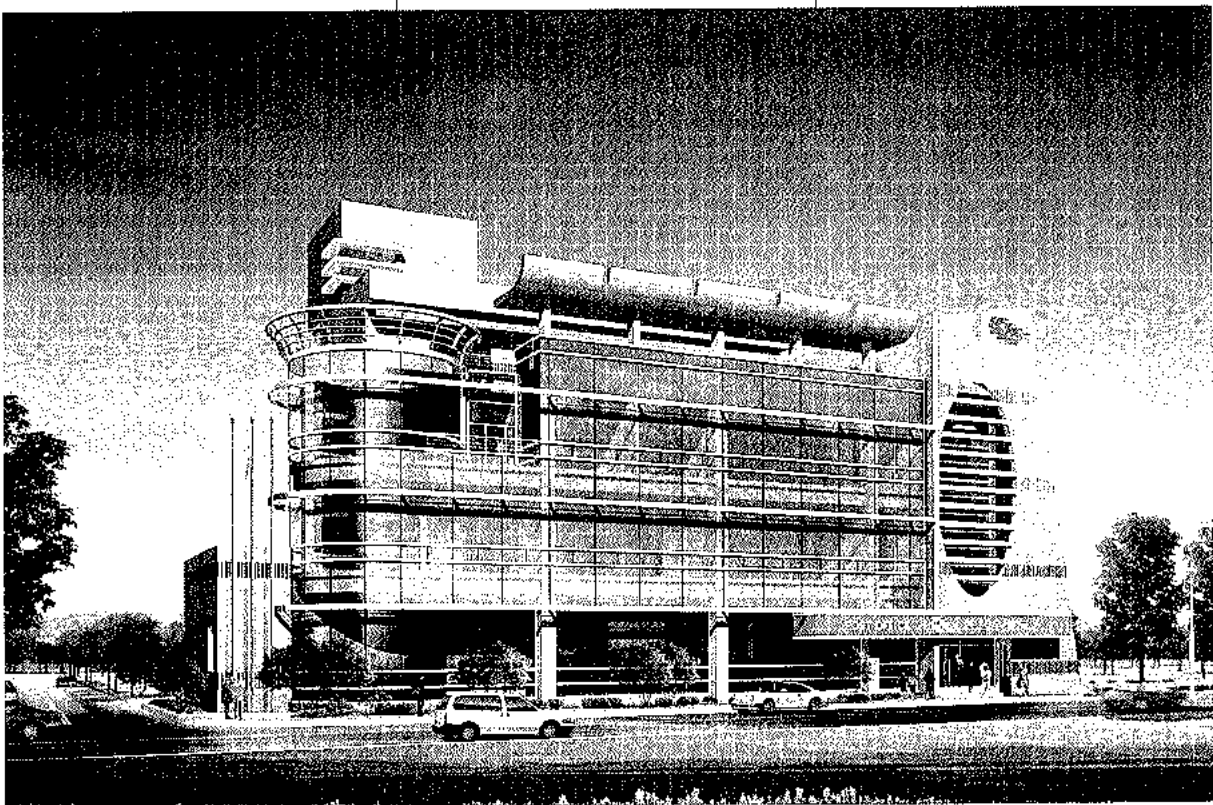


비치도

연천은 도시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미래의 성장에 적합한 도시적 맥락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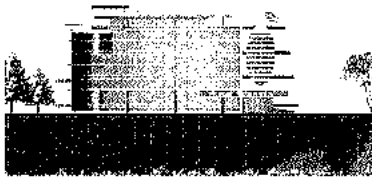
장방형 매스의 모서리에 원기둥을 관입시켜 수평적 선이 강조된 입면을 수직적 곡선이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솟아

오른 원통이 시각적 기능적 정점이 되면서 변화와 리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지게 처리한 수직벽은 우체국의 sign과 symbol을 부각시키고 주출입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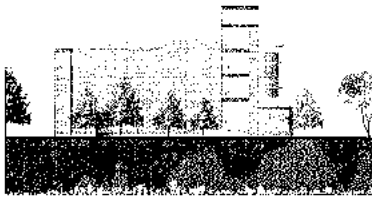


입면구성은 수평선을 강조하여 주위 저층 건물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휴게공간의 캐노피는 직원들의 야외휴식공간에 그늘을 만들어 주면서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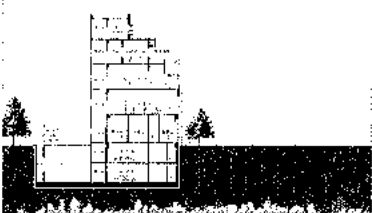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절제되고 힘있는 외관과 기능을 충실히 수용하는 평면을 구성하고자 하였고 단정하면서도 명쾌한 인상을 가진 건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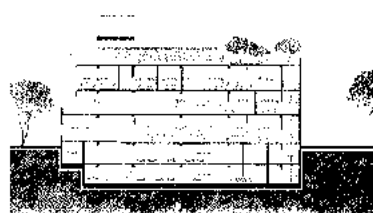
사측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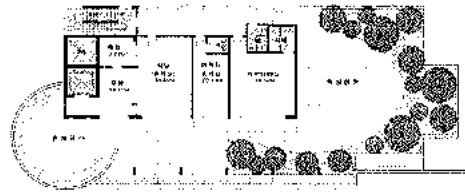
후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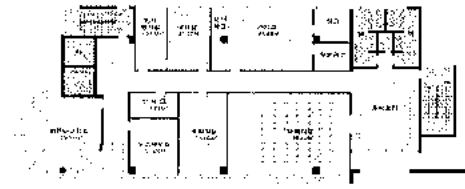
북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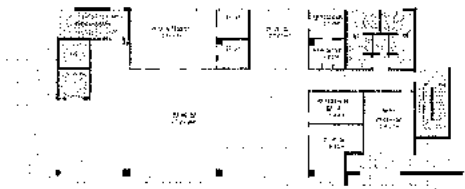
최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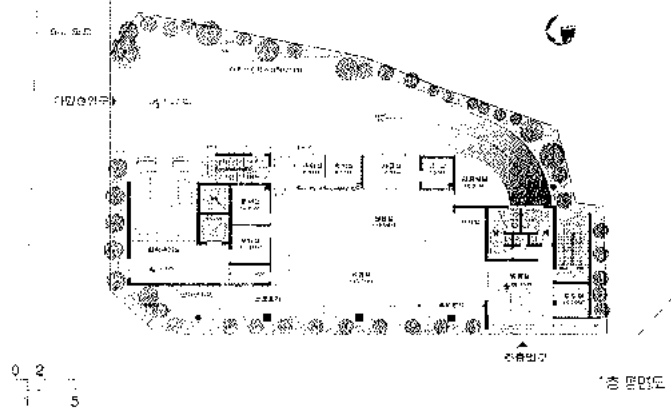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천안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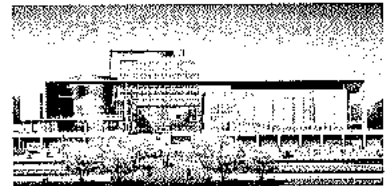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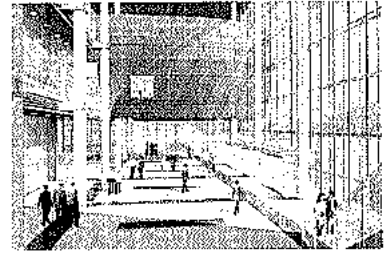
Cheon-an City Hall

이번 설계경기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천안시에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 주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진행되었다. 94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하고 89개 업체가 현장 설명을 청취한 후 12개 업체가 작품접수를 한 이번 설계경기는 각계전문가 13명의 심사위원이 5단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지난 2월 8일 발표됐다. 조태훈 천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고인룡(천안공업대), 김광현(서울대), 김성우(연세대), 박찬규(충남대), 오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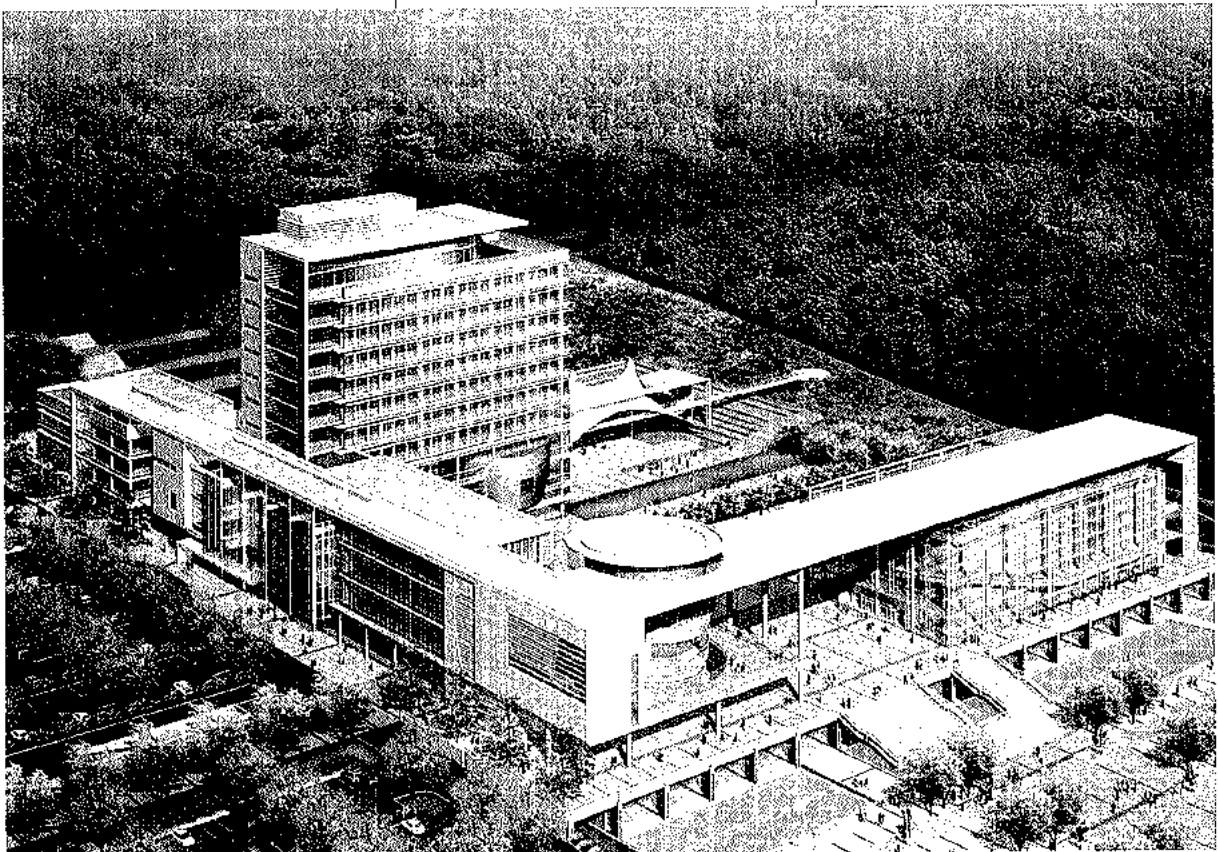
균(천안시 건설교통국장), 이시웅(대전산업대), 이영한(서울산업대), 이재당(천안시 건축과장), 이정만(한양대), 이행렬(상명대), 전명현(홍익대), 정란(단국대), 허전(천안시의회) 등이 심사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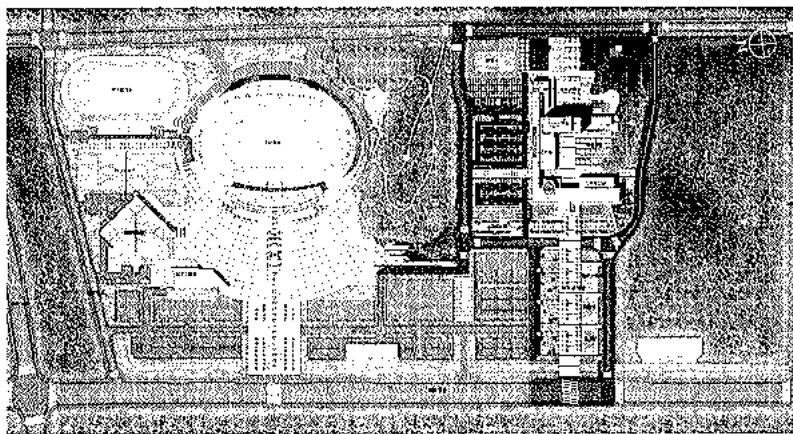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정영균)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창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이천규)

위치	충남 천안시 불당동 234-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77,817㎡
건축면적	10,687㎡
연면적	35,829㎡
건폐율	13.73%
용적률	36.20%
주차대수	301대
규모	지하1층, 지상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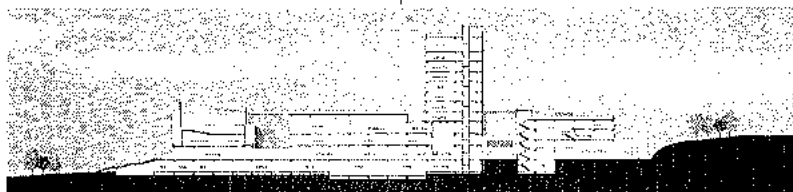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외부마감	화강석, 알루미늄시트 THK24 컬러복층유리
발주처	천안시청
설계총괄	장영균
설계팀	강원철, 김용권, 강재철, 성기수, 우형호, 김상준, 임성보, 김수정, 김민정, 김정훈, 김상훈, 양미란, 김태환, 김종우





종합배치도



단면도

CG 황관선, 정재희, 임강섭, 김이준,
김선명, 박항, 김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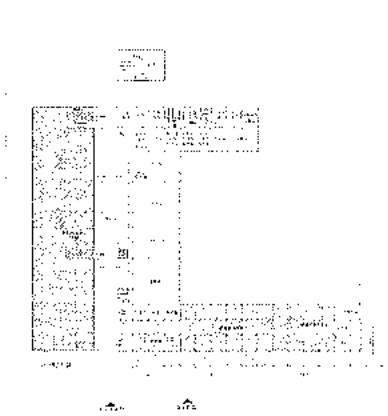
계획대지에 인접한 종합운동장 시설과 동일한 방향의 강력한 시각 축을 구성하고, 그 결절점에 행정타워를 배치함으로써 도시적 맥락형성의 토대로 작용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천안시청사>를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복합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시민의 동선 유입과 함께 기존 시청사가 가지는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

회의실을 다목적 강당으로 확대 구성하고 시청의 가장 전면부에 배치하여 진입부의 조각 공원과 시청의 중앙광장, 야외 수변무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입부분의 레벨 차를 이용하여 다목적 강당과 연계되는 쇼펄시설과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시설을 시민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시설을 시민 체육시설과 함께 보행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연장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민원동은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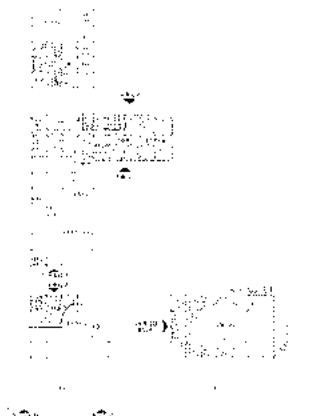
위적이지 않게 진입측에서 비켜서서 저층으로 구성되어 민원인이 가질 수 있는 긴장감광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대형통기계의 출입이 낮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본 청사와 분리시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의회동은 진취적이고 자치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도록 오브제화하여 청사 매스에서 분리하고, 다목적 강당과 함께 가장 전면에 배치하여 시청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설계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행정청사의 향에 대한 문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장점을 가진 남향배치와 보다 상징적이고 강한 정면성을 가지는 서향배치를 절충하여 해결하였다. 기본적으로 서향의 매스에 편심형 코어로 계획하여 남측면 사무공간의 면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직 수평의 루버를 서측 입면구성의 요소로 사용하여 직사광 차폐의 기능성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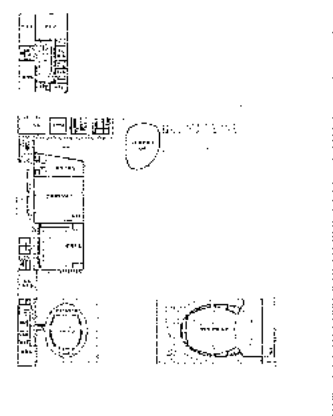
진입부의 조각공원에서 시작되는 외부 공간은 다목적 강당과 함께 중앙광장 수변무대, 후면정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대지 남측의 자연적 요소와 시청사의 인위적인 요소가 상호관아되는 공간으로 형성되어 공원 과 같은 시청사를 구성하게 된다.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우수작 / (주)무명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주)한길건축사사무소(이
철홍) + (주)호산도시건축(이광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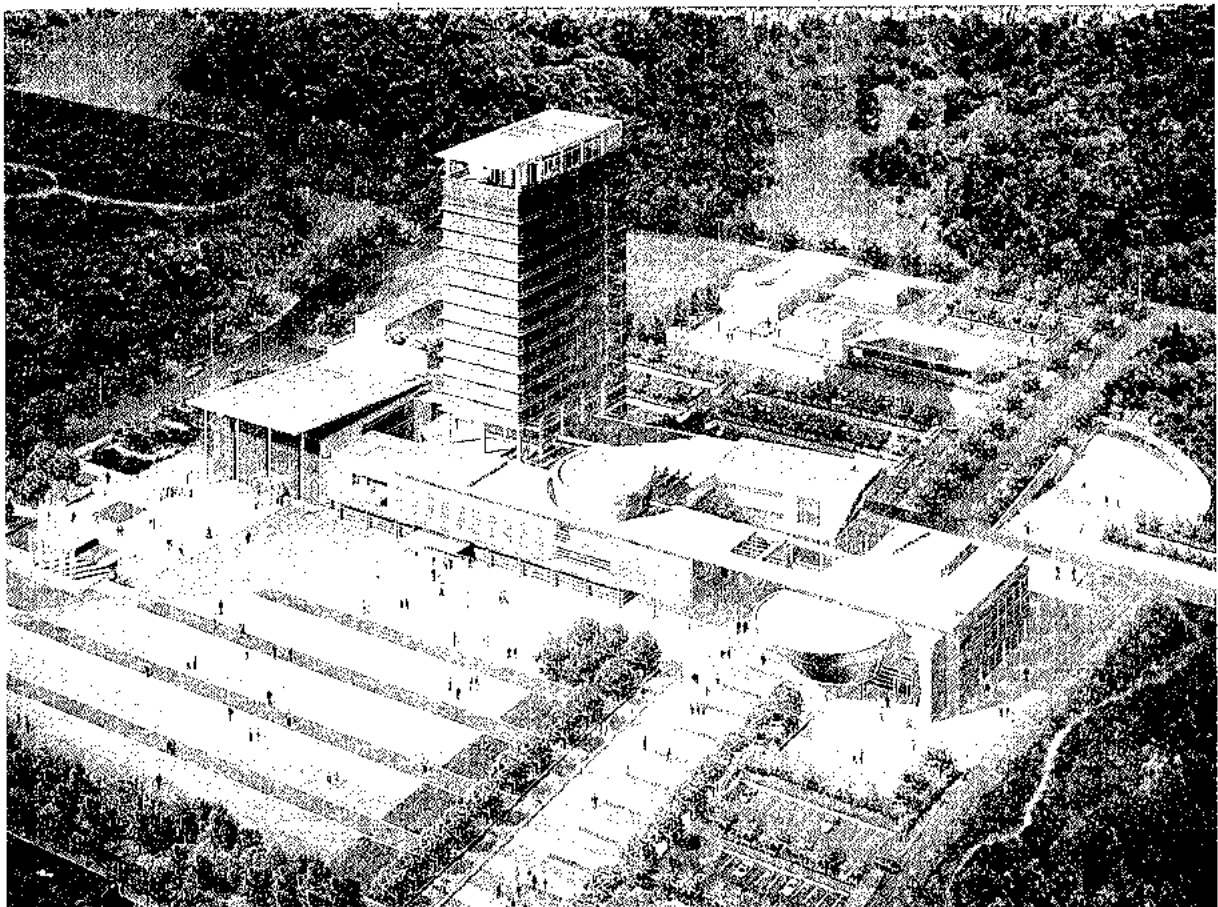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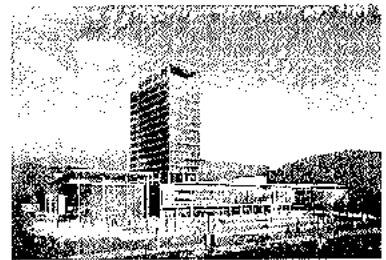
건축면적	9,550㎡
연면적	34,921㎡
조경면적	23,345㎡
건폐율	11.99%
용적률	56.61%
주차대수	446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18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내부 마감	바닥-비닐타일 벽-수성페인트 천정-압면텍스
외부 마감	알루미늄사트, 컬러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기획총괄	원성재, 박성하
설계팀	무명건축/김정강, 이상기, 김희 정, 하원일 한길건축/성건경, 장용준, 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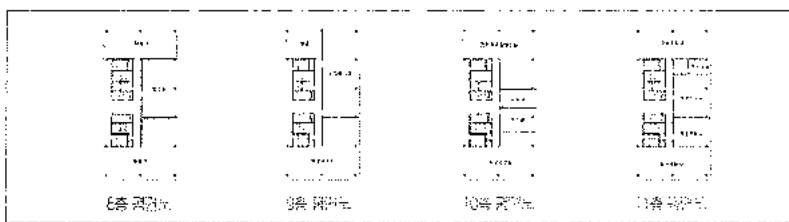
철, 남성택, 조시영, 정운영
CG ES&A

〈천안시청사〉 계획 부지는 도시적 맥락의 해석에 의한 '정면성'에 관한 문제와 건물의 기능에 따른 '향(남향 및 동향 배치)'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계획의 주안점이 되었다. 또한 시의회 등의 적정한 위치 삼기와 형태 구성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건물군들의 주축은 정면성을 유지하되 고층부로 구성된 행정동은 남향을 의식한 직교태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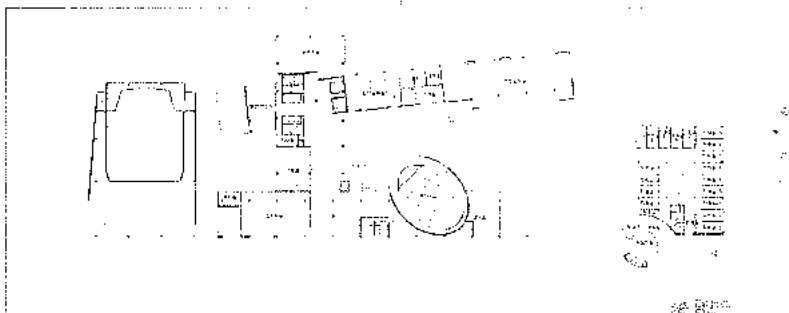
광활한 체육 공원내에 위치한 시청사는 수평성과 거대함이 주조를 이루는 속에서 상징적인 수직 요소를 그 대리로 활용한다.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회

의설(공연장 기능)은 복합 체육시설과 공원 공을 연계하여 대지의 좌측에 계획하고 민원 시설과 시의회는 주 진입상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남쪽의 생태 체험 공원을 향하여 열려 있는 중정과 연계되어 있다. 민원 공간은 2개로 분절된 수평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정, 아트리움 등의 변화 있는 건축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원, 행정, 시의회는 각각의 기능마다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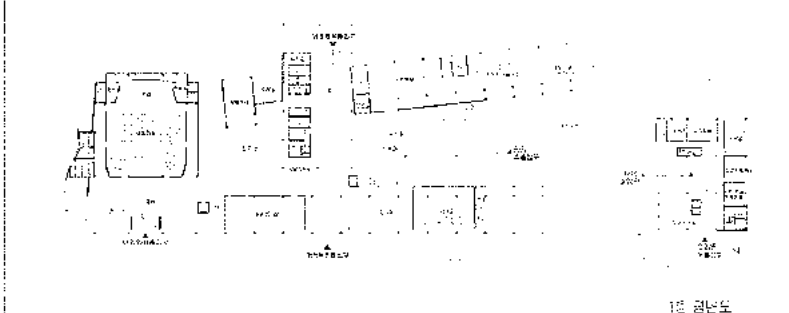
6층 평면도
9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11층 평면도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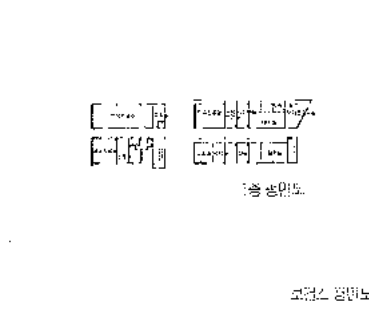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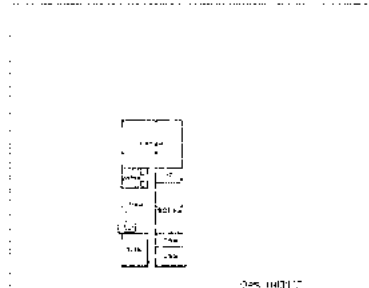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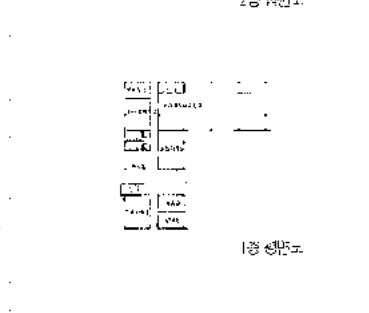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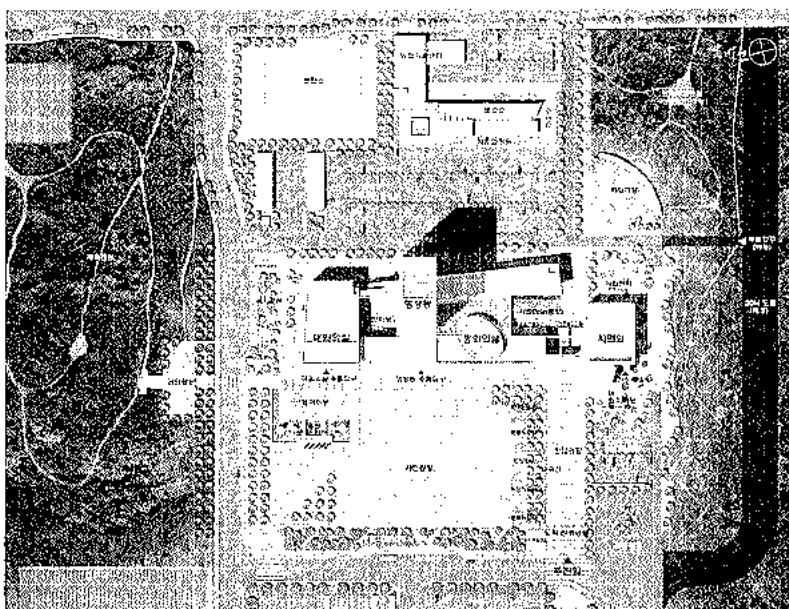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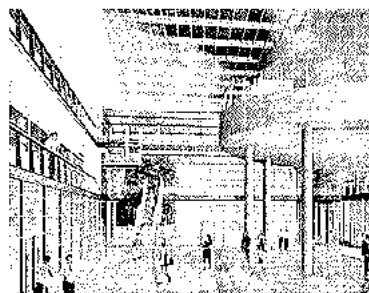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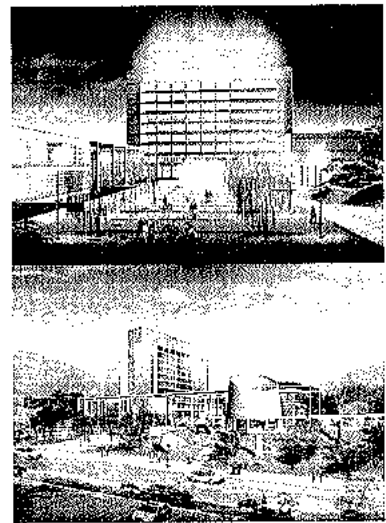


▶가작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주)간·삼중합건축사사무소(김자호)+중합건축사사무소
한·공간환경(한재원)

건축면	7,532.10㎡
연면적	34,646㎡
건폐율	9.68%
용적률	30.59%
주차대수	318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화강석비닐타일 에폭시 페인트, 벽-회강석, 수성페인트 천정-암면흡음텍스
외부마감	바닥-THK30 화강석 버너구 이, THK24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이광만, 김성수, 오동희, 정경 을, 권순진, 양당희, 고영대, 형 대우, 오진욱, 윤성준, 이중기, 정명희, 김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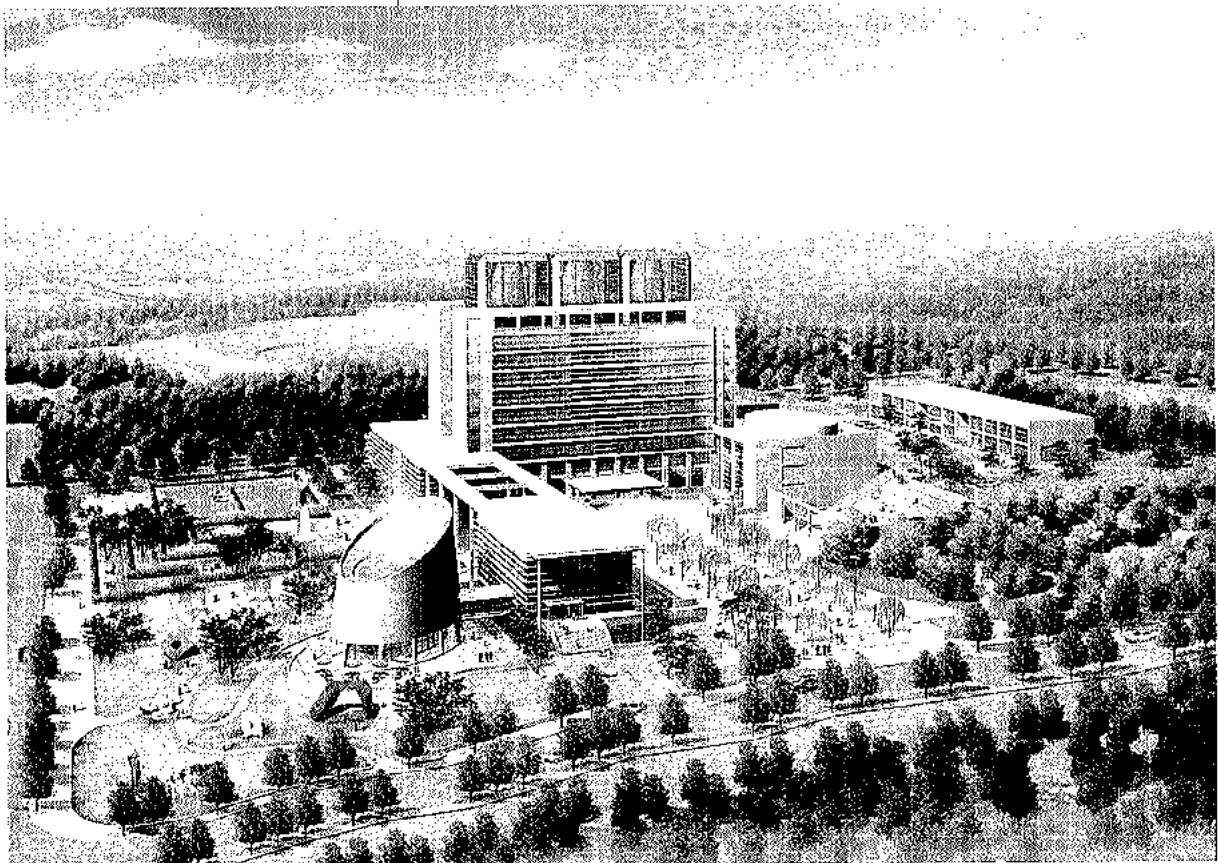
봉서산과 그 줄기가 계획부지를 감싸고 있고 서측으로는 열려있는 지형으로 종합운동장을 배경으로 하여 제2단계 사업 예정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남향배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부지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서측도로를 연결하는 기존의 북측 20m도로 외에 남측 부지경계선을 따라 20m도로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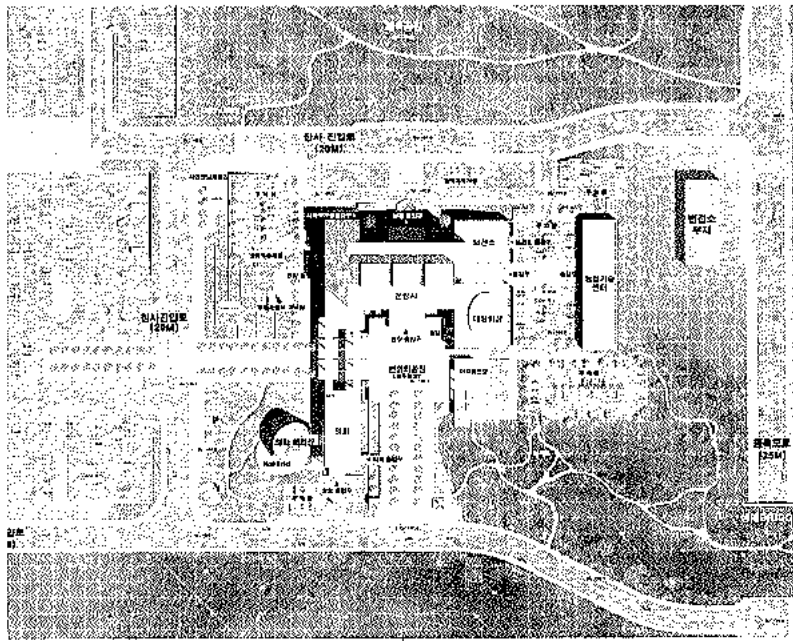
남북으로 이어지는 새천안 번영의 축 중심에 본청건물을 남향배치하여 북으로는 종합운동장을 배경으로 하고 남으로는 향후 개발될 제2단계 사업부지를 포용함으로써 21세기 천안시의 발전 구상을 상징화하였다. 남측 전면부에는 시의회동을 배치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정책으로 건축물 내부에 아트리움과 휴게소를 설치하여 외부환경을 끌어 들였다. 또한 기존 수림대를 최대한 보존하여 봉서산과 계획



부지를 연결하는 생태브리지를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사무공간의 구성이다. 21세기 고도정보 및 국제화에 대응하여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계획하였으며, 자연스런 채광과 통풍을 유도하고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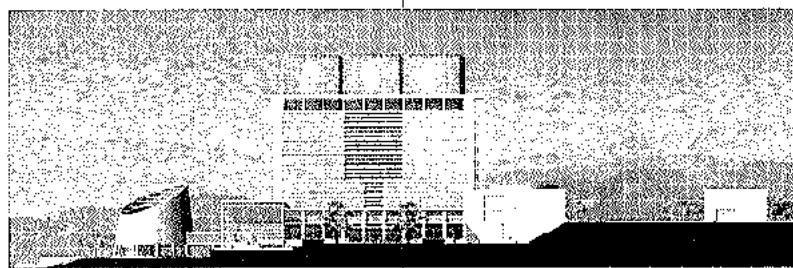
배치도

공간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재해시를 대비해 효과적인 파난동선을 간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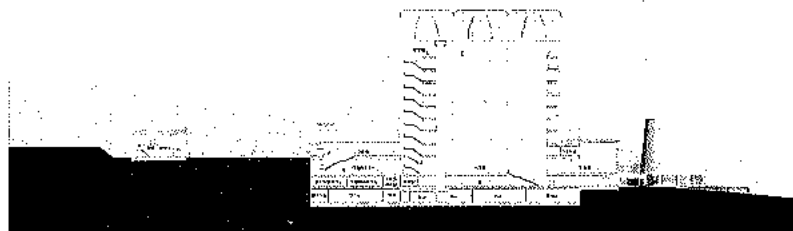
코어위치를 잡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과 각실마다 환경조절이 가능한 중심 코어보다는 삼심 구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변경과 배치가 가능하며 실의 위치에 따른 환경차이가 적은 편심코어를 선택하였다. 편심코어는 아프리움을 둘 수 있으며 그 아프리움을 통한 채광, 통

풍이 유리하며 1층 로비공간확보에 유리하다. 그러나 피난거리가 다른 코어 형에 비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길다란 수평매스의 아프리움을 중심으로 한 본청사무동 매스를 배치하여 서측 새천안 번영로로부터의 정면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면의 주된 주제이다. 그 결과 남북축상에 본청사무동의 정면이 배치되어 지방자치행정 중심으로서의 상징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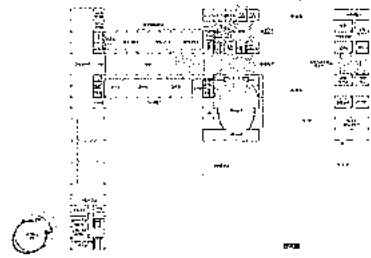
남북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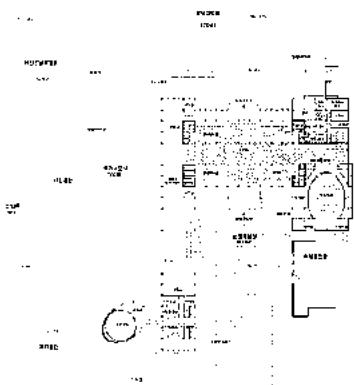
절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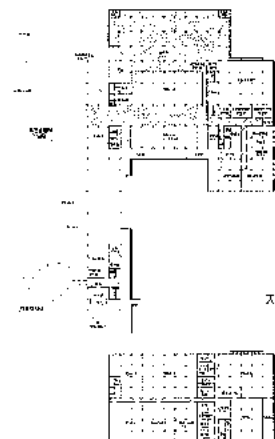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층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주상해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anghai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 무소(이상림·서해천)

위치	중화민국 상하이 홍교 개발구 제 11기지
대지면적	4,272.00㎡ (1,292.28평)
건축면적	1,700.09㎡ (514.28평)
연면적	3,513.49㎡ (1,062.83평)
건폐율	39.80%
용적률	59.13%
조경면적	1,769.27㎡ (532.20평)
규모	지상3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고	지하 : 4.5m, 1층 : 4.8m,

2·3층 : 3.7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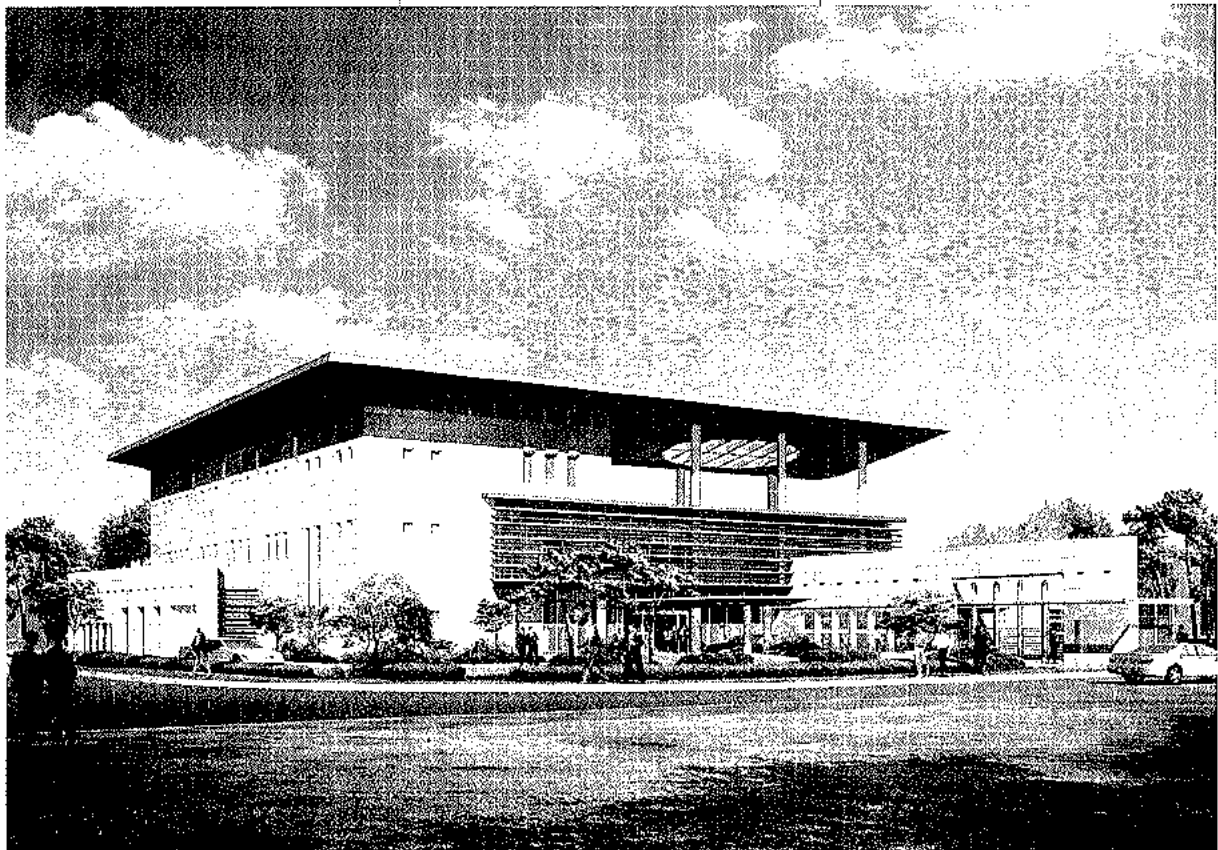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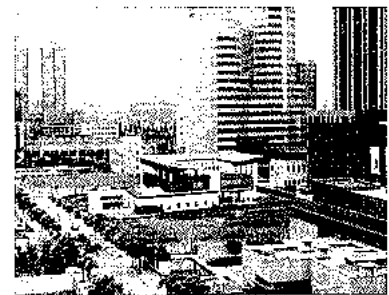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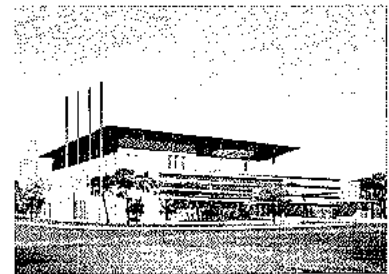
주차대수 23대 (지하 15대, 지상 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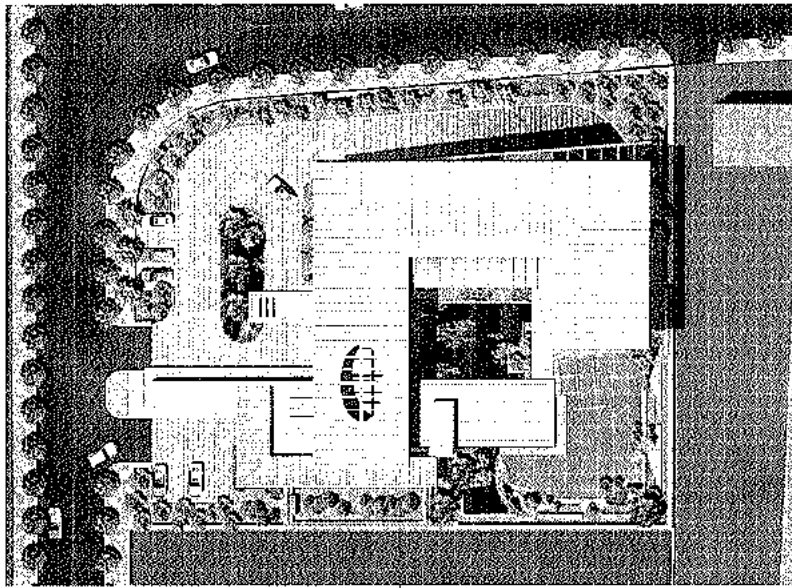
최고높이 14.25m

설계자 (李祥林 / SANG-LEEM, LEE) + (徐海天 / HAE-CHEON, 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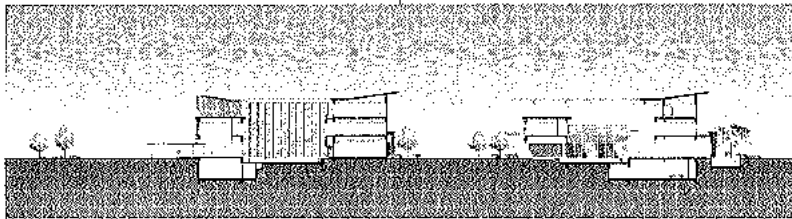
설계팀 박진철, 송대섭, 박창배, 박도영, 김광수, 양희진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상해시의 신 홍개발 구역인 홍교개발구에 세계 각국의 영사관들이 영사관 MALL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상해총영사관이 위치할 계획이다. 주상해총영사관이 중국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투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홍보와 보안의 양면성을 가진 재외공관의 특성은 계획의 장애로써가 아니라 Motive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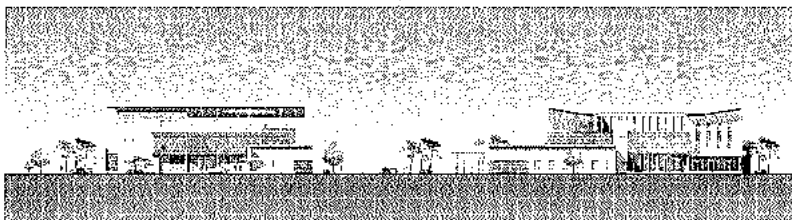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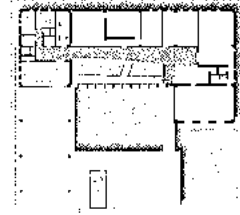
남서측 평면도

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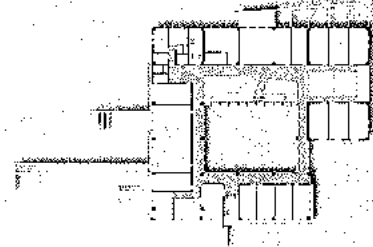
개방성과 진취성을 부여하기 위해 건물
의 전면에서는 외국사신들을 응접하던
전통 루건숙인 경회루 등의 형태를 응
용, 현대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한
편, 보안이라는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 전통가옥의 배치형태를
적용하였다. 즉, 진입동선을 따라 사랑
채와 안채가 크고 작은 마당을 형성하는
배치개념에 의해, 민원업무가 이루어지
는 민원동을 대지전면에 배치하고, 업
무공간인 영사동을 "ㄷ"자 형태로 배치
하여 전정, 중정, 후정으로 이어지는 외
부공간의 위계와 연속성을 형성토록 계
획하였다. 대지에 면한 입면에는 내부공

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창문이 최소
한으로 설치되는 반면 중정을 면하는 입
면은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전통정원이
전체 대지의 구심점으로 구성될 수 있
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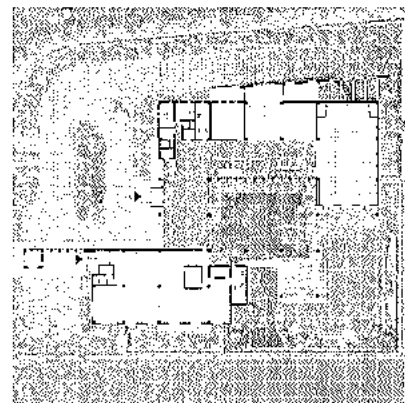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영사관의 업무적
폐쇄성과 선린외교 및 무역상 개방성,
사무환경의 합리성과 공관으로써의 상
징성 등의 상반된 성격들 속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건축계획에 있어
중요한 관건임을 느꼈던 프로젝트였다.
이념의 해계모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계획한 이 건축물이 한국의 문화
홍보와 경제교류의 장으로써 주변 영사
관들과 어깨를 겨루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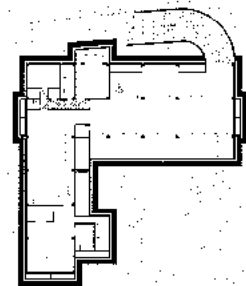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교원그룹연수원 게스트하우스 Kyowon Group Training Center & Gues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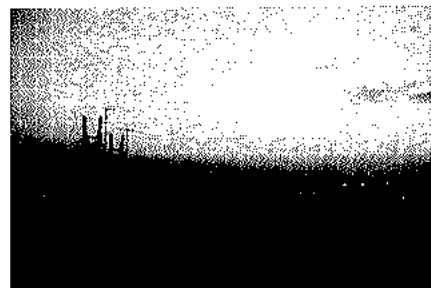
조남호 / (주)솔토 건축사사무소
by Cho Nam-Ho

생산의 참여와 조정의 건축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진 이래 크고 작은 프로젝트와 만나지만 순조롭게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다. 큰 일들은 처음 부터 각오를 단단히 하지만 작은 일들은 쉽게 대처하다가 곤혹스런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지나다 보게되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고 나면 한 층씩 올라가는 듯한데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한스렵기까지 하다. 내가 책을 한 권 낸다면 첫 번째 책은 아마도 한국적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프로젝트 열전' 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교원그룹연수원과 게스트하우스는 최근 사회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으며, 사무실을 연 후 지금까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중심을 관통한 프로젝트이어서 감회가 남다른 프로젝트이다. 변화의 시기에 걸쳐있으면서 건축외적이지만 많은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과잉의 시기, 현상설계 사무실을 오픈한 이듬해인 96년 여름, 동료 중 하나가 교원그룹본사사옥 감리를 성실하게 하였고, 그런 결과로 굴지의 대형사무실들 사이에서 지명 받는 기회를 가졌다. 심사위원회는 2개안을 선정해놓고 해산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우리 안으로 결정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 초기 안에서 우리는 미래형 연수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율과 개성,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휴양, 레포츠 등의 개념 도입으로



주변 풍경

요약할 수 있다. 직능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을 개선해서 피교육자가 부분적으로 교육 내용에 기획, 참여하는 것이다. 강의실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정보센터, 체력단련시설 등 개인단위 활동공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에 생각해 보면 마치 과잉의 사회가 그렇듯 당시에 해외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이나 사조가 단기간에 서점가를 채웠다가 사라지듯이, 현장을 도외시 한 한 낮 경향에 매료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주나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설계사무실, 그전에 과수원이었던 아담한 계곡 속에 500명을 수용하는 8,400평이라는 규모의 연수원은 모든 측면에서 과잉의 매카니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IMF 지원 사태와 현재의 연수원

97년 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갔던 초기 안은 98년 2월 토목공사 중에 경기 하락이 우려되면서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의 안으로 축소된 설계변경을 하기에 이른다. 1700평 규모에 200명을 수용하는 최소규모의 안이다. 일반적으로 연수 전용일 경우 1인당 면적이 12평 내외가 되지만 설계변경 안에서는 8평이 약간 넘는 콤팩트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교육동, 숙소동 모두 중목도식이다 로비는 대강의실의 홀과 공유한다. 거품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연수기능에 충실한 연수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좀더 내밀하게 각 기능을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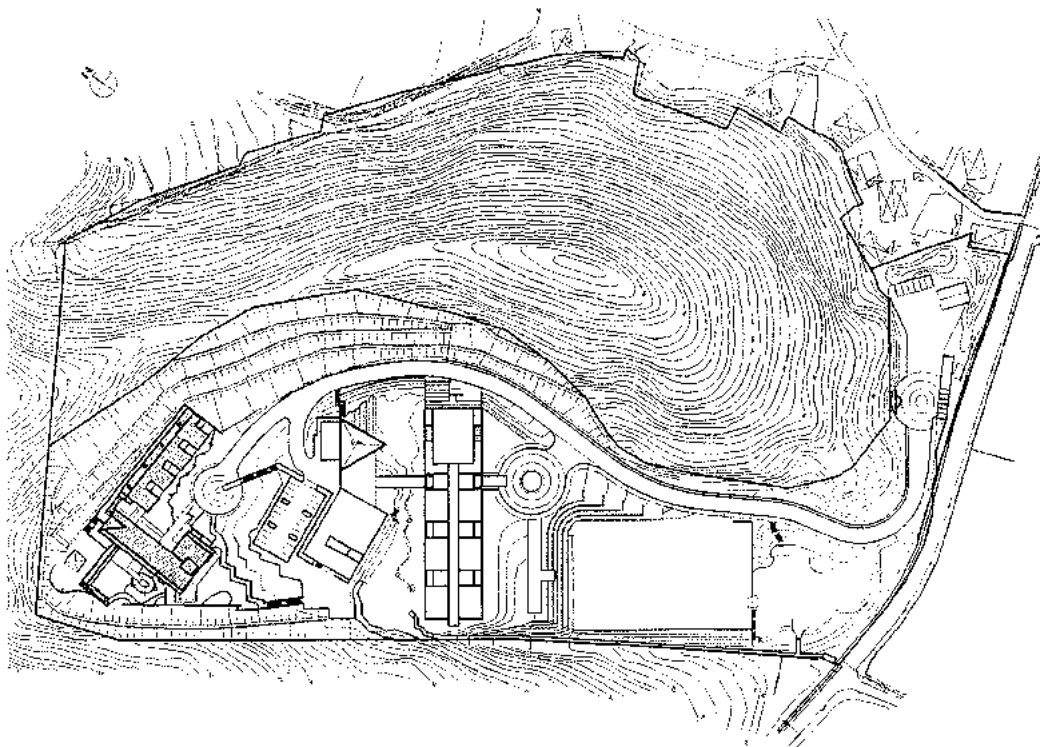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떻게 배분하고 관련자를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배치 및 형태구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현장 참여의 시기, 목조건축 게스트 하우스

IMF 지원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 주는 시기였다. 과잉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전혀 일이 없지는 않았으므로 인원을 줄이지 않고 잉여인력으로 새로운 모색을 해 보기로 하였다. 제일 당황스러운 일은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업역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획, 설계, 생산(시공) 전 과정에 참여와 조정을 통해 새로운 변형된 업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



교원·기업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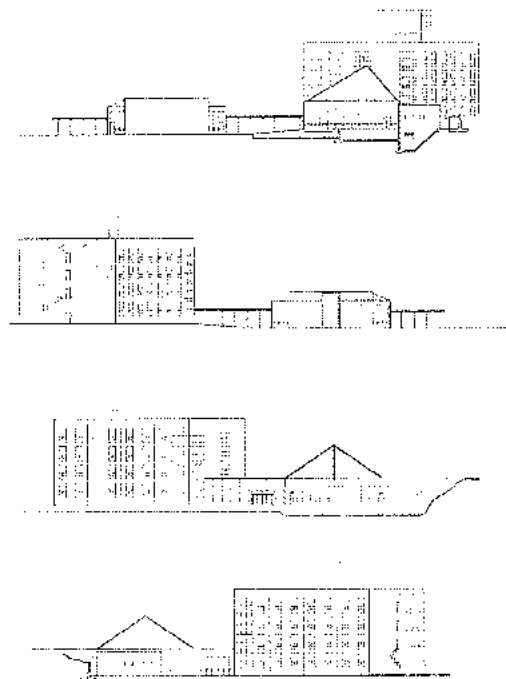
업역 간의 협력과 변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업무 형식에 맞는 일을 하기보다는 일의 특이성에 맞는 업무 형태를 매번 조직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를 사무실 차원에서 시도하였는데, 거의 전 직원이 3개월 간의 교육을 받았다. 목조를 선택한 이유는 나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단단함과 유연함처럼 설계자가 생산의 과정까지 참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 성과로 99년에 신원동주택을 포함한 2채를 지었고, 작년에 교원그룹 연수원내에 유휴지로 남겨 두었던 부지에 540평 규모의 목구조 게스트 하우스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기에 이른다. 혹자는 업역의 확대가 전문성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우려하지만 목구조에 관한 한은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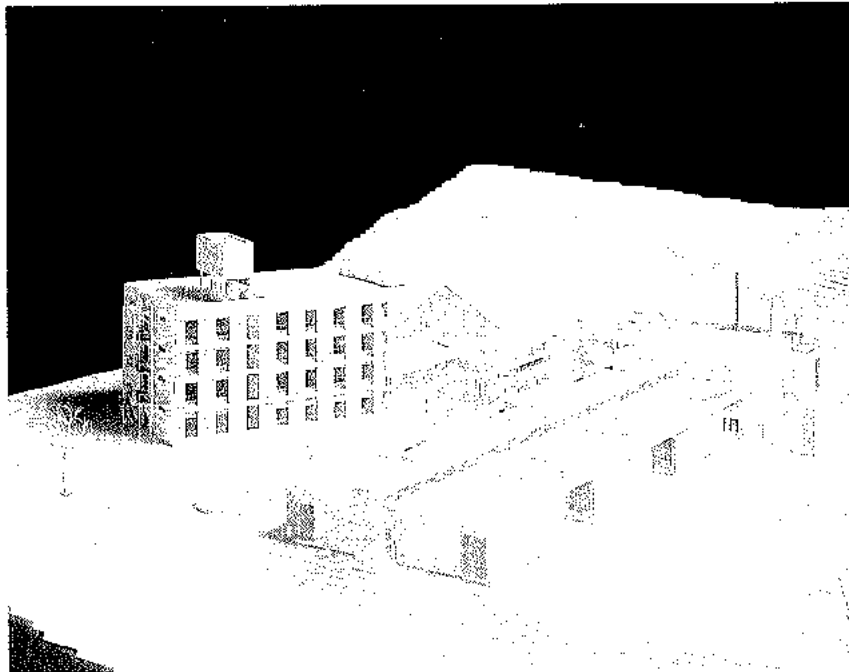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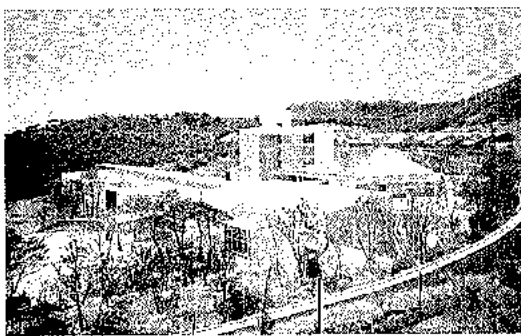
대지의 건축 - 교원그룹연수원

도고에 갈 때마다 넓은 들과 해안의 강한 수평성에 매료된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업무를 보러 갈 때면 시간을 조절해서 서울로 귀향하는 시간을 석양의 때와 맞추어 삼교천 주변의 풍광에 젖으며 올라오곤 했었다. 그리고 이 인상은 연수원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낮은 산자락에 위치한 대지는 온양-예산 간 21번 국도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국도에서 대지까지의 진입경로가 특징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 다음 장면이 숨겨진 채 각기 다른 각도로 진입하면서 단계마다 전혀 다른 경관을 연출하는 경험적인 장소이다. 처음 단계는 21번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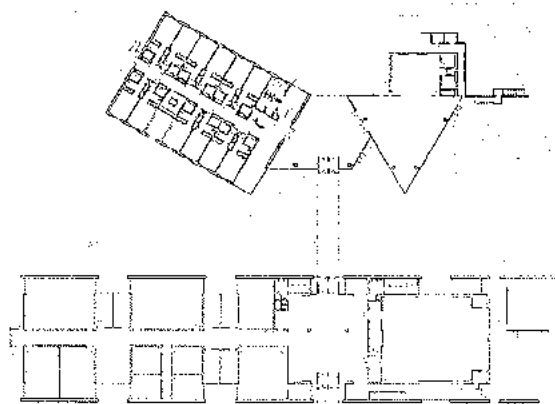


연수원 입면도

에서 온천 호텔군이 있는 곳까지의 공간으로, 주변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부실한 수형의 가로수조차 등성등성 있어 공간을 한정할 요소가 거의 없는 하늘만 커보이는 공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호텔군이 끝나는 곳에서 45° 우회전해서 도고 간이역까지의 공간으로, 장항선의 주요역이면서도 논 한가운데 철길과 표식도 없는 간단한 승강장이 전부인데, 소박하고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세 번째 단계는 간이역에서 대지 입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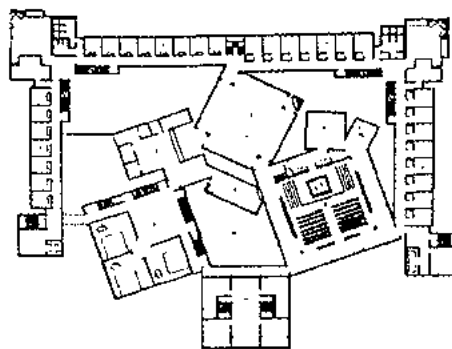


도고역



연수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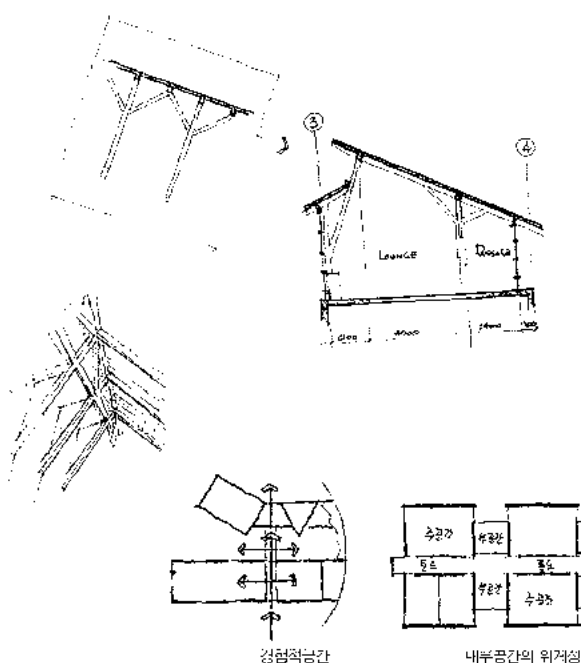
지의 길인데, 수려한 수형의 목백합 가로수길로 강한 시선축을 제공하며,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하다. 입구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대지의 우측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에 의해 건축물군이 감춰져 보이지 않게 된다. 입구에서 좌로 돌아 진행하다가 기존의 농로 위치에 만들어진 대지 내 도로를 따라 다시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돌아서면 건물군이 단계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진입과정에서 체험되는 경험적 공간개념을 대지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통도사와 같은 전통사찰건축에서 보여지는, 즉 한 번에 건물 전체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면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안에서는 여러 개의 건물군이 가로 방향으로 분산 배치되어 중앙 연결통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실내 혹은 실외 공간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노마니포 이차 수도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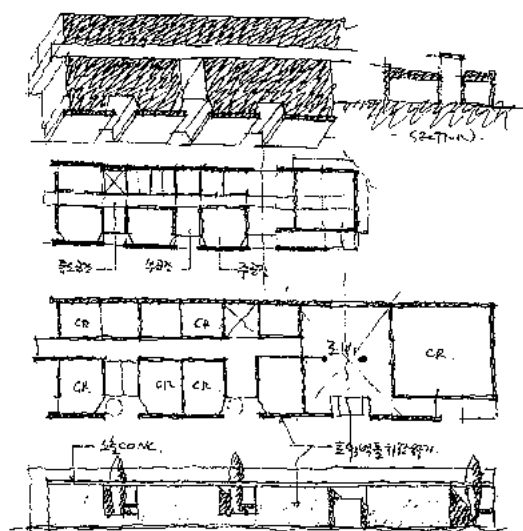
면, 현재의 안에서는 규모상 단순한 건물구성이 되었는데, 그 대신 내부공간을 위계화하여 새로운 형식의 경험의 커 (Layer)를 만들었다. 즉, 전면 교육공간의 외벽을 폐쇄적인 판벽으로 해서 내부공간이 잘 인식되지 않도록 하나의 커가 되게 하였고, 내부에서도 평면구성을 3개의 위계공간 즉 경험의 사원스를 제공해주는 통로공간과 강의실, 토의실, 사무실 등의 주공간, 주공간을 지원하는 휴게실, 진행 본부 등이 들어있는 부공간을 설정, 또 하나의 커가 되게 하였다. 한편 배치 전체의 질서를 주는 주축은 대지와 도교사내, 마주보이는 덕봉산 정상을 잇는 선상에 설정,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진입동선과 대비되지만, Spine(연결통로)에서 동선과 건물축은 일치하게 된다.

연수원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교육공간, 숙소, 식당 등 크게 세 개의 zone 으로 나누어진다. 세 개의 기능은 독립적 혹은 균형적이어서 한 기능이 다른 한 기능에 종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기 규모는 다르지만, 하루의



경험적공간

내부공간의 위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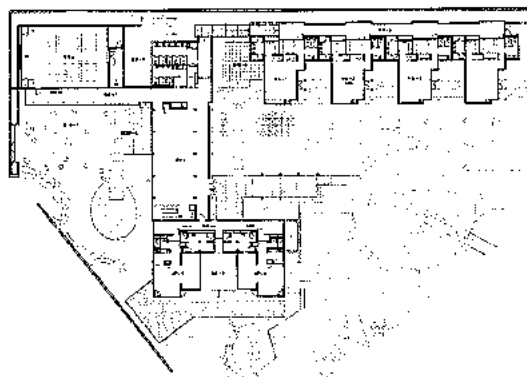
평면조직

연수원

일과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루이스칸의 <도미니코 여자수도원> 평면에 대한, 고야마 히사오(香山壽夫)의 다음과 같은 해석과 뜻을 같이 한다. 「칸온 수도원 건축에서는 성당도 식당도 집회실도 모두 대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플랜은, 전부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성당이, 집회실에 모여있을 때는 집회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는 식당이 각각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결코 균질한 공간이 아니라, 다중심공간이다.」 세 개의 기능이 대등한 H 자 축을 바탕으로 배치하고, 볼륨의 차이는 크지만, 각기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형태를 구성하였다. 교육공간은 수평성과 5.5m X 12.3m 크기의 창없는 벽돌 벽면을 분절, 반복이 강조된 형상을 의도하였다. 숙소동은 가장 큰 볼륨을 갖는 대신 단순한 상자를 제안하고 표피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재료를 세트 백 없이 표면에 위치시켰다. 매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면 모서리를 투명유리 커튼월로 마감하고, 작게 분절된 창 패턴으로 계획하였다. 식당동은 가장 작은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전면 교육동의 수평성을 배경으로 수직성과 인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금속지붕의 삼각피라미드를 채용하였다. H축 배치와 삼각피라미드는 세 개의 기본적인 기능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상하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나무의 건축 - 게스트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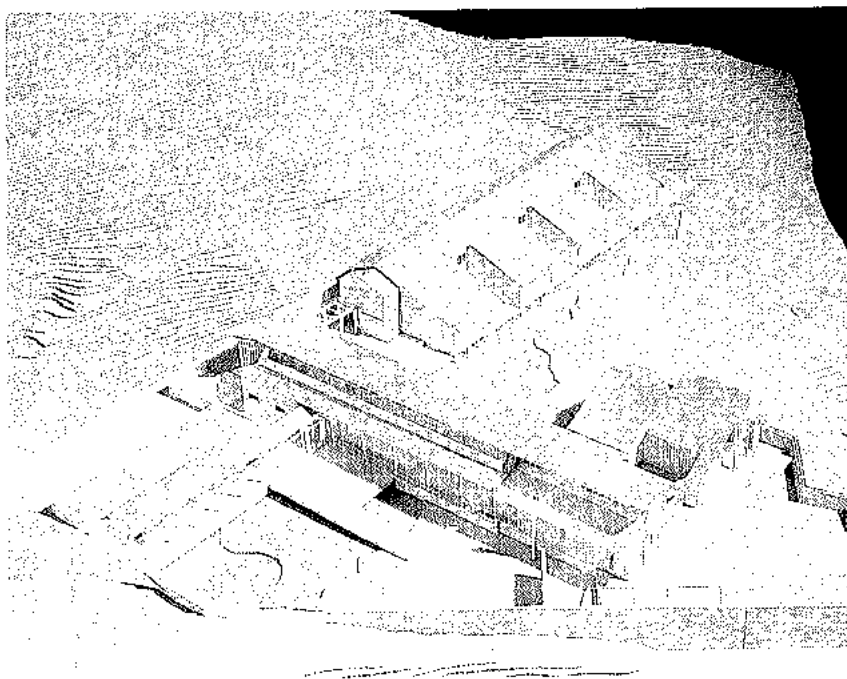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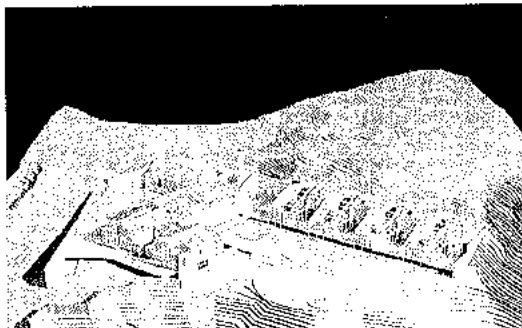
게스트 하우스는 연수원의 설계가 마무리 될 즈음 중축 예정인 후면 부지에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휴양시설에 대한 설계 및 사공을 턴키 방식으로 의뢰 받았다. 휴양



게스트하우스 1층 평면도

이라는 시설의 범위는 다양하고 넓다. 초기안에서는 특별한 형식의 휴양에 대한 스타디에 집중 했으나,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구성으로 가게되었다.

휴양을 위한 상징 - 게스트 하우스의 건축 구성 수법은 휴양을 위한 상징물들로 가득하다. 좁은 연수원 부지 안에서 휴양시설의 영역을 분리해 내는 수법이기도 하다. 나무의 정원 개념이다. 라운지가 있는 위치는 초기 계획안에서는 목재 데크위에 좋은 수형의 활엽수를 군식할 계획이었다. 초기 개념에 따라 추상화된 '나무의 정원'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공업화 목재인 글루램(Glulam)을 철물로 결합시켜 나무의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외부공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전후면을 모두 투명유리 커튼월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지형에 따라 배치된 장축을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하다. 둘째, 수공간과 건식기초 방식을 응용한



게스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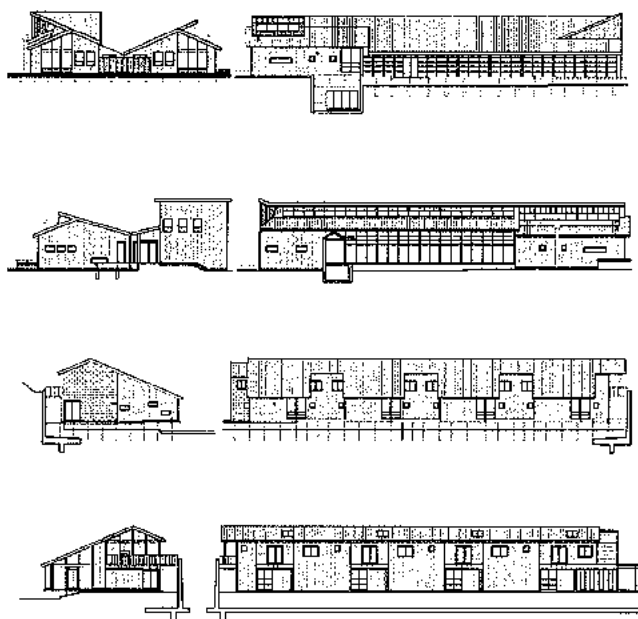
수상가옥 개념이다. 전통건축의 루(樓)는 목재기둥과 난간 등의 간단한 장치를 통해 주택의 일상적 장소를 신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게스트 하우스는 숙소는 주택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하는 일상적인 장소가 아니므로, 휴양객들이 특별한 기대감을 갖는 곳이다. 별도의 휴양지가 아닌 연수원 부지내에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상징적으로도 영역을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수원과 7m 높이차이를 두고, 수공간과 목재말뚝을 이용한 기초방식으로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게스트 하우스는 연수원과의 연속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재료가 다르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한 자리매김 하는방식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두 대지 사이에는 7m 높이 차이를 둬서 연수시설과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간의 배치 형식은 ㄷ자 형식의 두 개의 공간이 투명한 라운지를 경계로 양분되어 있다. 연수원은 기존의 농로를 따라 계획된 진입로를 가로지른 벽돌 벽면이 패쇄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게스트 하우스는 건물의 장축이 지형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앉아있다. 이 축은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대지 깊숙이 까지 끌어 들이는 기능을 담당 한다. 각 기능을 이합집산 하는 위치에 있는라운지가 후면의 산으로 흐르는 시선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 이것은 연수원의 배치 방법과 연관 있어 보인다. - 실제로는 전후 면이 투명유리 커튼 월로 되어 있어 장축의 흐름을 크게 방해 하지 않는다.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한 부지안에서의 이질성 즉, 서로 다른 재료간의 구법의 차이와 공간의 불연속에서 오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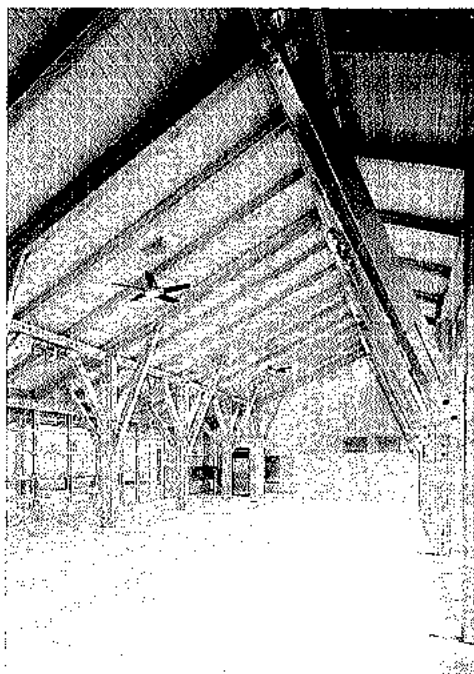
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의 강의실은 마치 아래 연수원의 기능이 이전 된 것처럼 노출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복도는 목구조와 노출콘크리트 벽면과 대비된다. 반대로 연수원의 식당등은 게스트 하우스의 한 단편처럼 목구조와 아연판 구조로 되어 있다. 연수원의 주요 재료는 붉은 벽돌과 노출콘크리트를 게스트 하우스에는 적삼목과 비종이 늘어난 지붕을 화색 아연을 써서 전체적으로 붉은색과 회색으로 대비 시켰다.

재료 - 목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간에게 친근한 재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모든 자원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한 목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소 감상적이거나 환경론자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현대 목구조의 건축적 기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건축가들은 재료를 솔직하게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노출콘크리트를 즐겨 사용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이에 단열재를 넣지 않는다면 인도처럼 내 외부 모두를 노출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다. 목재는 뛰어난 구조재이면서 마감재이고, 단열재이다. 자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건축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목조건축 사용범위의 확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목재의 내구성을 수치화하여 공업 생산물처럼 객관적인 성능을 인정받는 목재 품들을 사용 할 수 있다. 공업화 목재(Engineered Wood)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 기술에서부터 변형을 방지하는 적절한 건조 기술, 작은 부재를 크고 균질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집성목(Glulam), LVL, OSB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게스트하우스 입면도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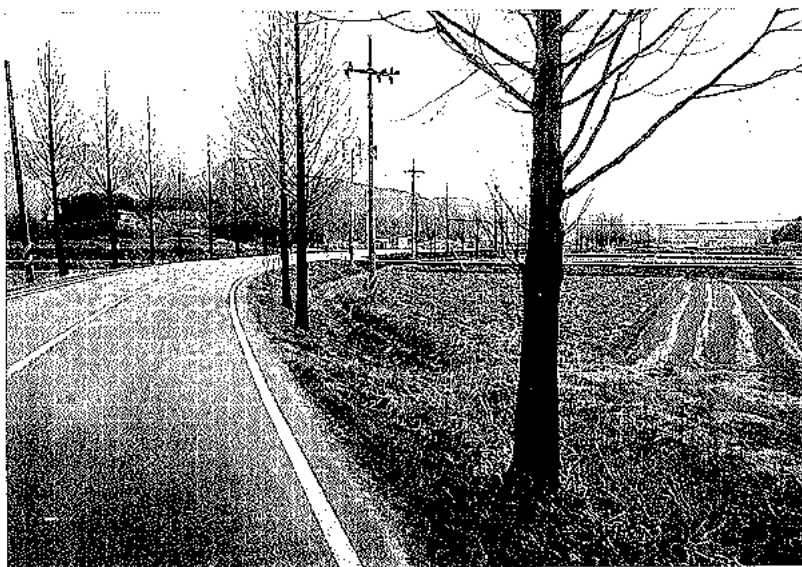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소쇄원

김석환 / 터·올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연 재 목 차)

1. 병산서원
2. 소쇄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락당
9. 영선암



교사에서 소쇄원 가는길

은일사상과 소쇄원

인류의 역사는 현실 중시의 기조를 견지해 왔다. 동양의 군주사회 자체가 가부장적 세계관의 연장으로서 현실 지향의 유가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국가라는 속성이 사회 구성원이 이끌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시해야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사회란 것이 어차피 고상함보다 질박함을 더 띠어 왔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은 자연 위에 인위를 누적해 온 일로서, 도 사상에서 보면 도에 반하는 일이고 다른 의미로는 원죄가 수반되는 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인간 사회의 속성상 사람들은 사회적 구속의 필요성과 자아 추구와의 사이에 갈등을 외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포괄적 사유의 전통으로 인하여, 현실 밖 관념의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가치로서 현실에 의해 수반되는 모순들을 회복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

은 대부분 그것을 종교 영역으로 인식했다. 대체로 종교는 세속적 가치와의 단절을 통한 본래로의 환원을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불교의 출가, 세례와 거듭남, 도교의 우아일체 사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사상 어느 시기에 현실과 관념적 이상, 그 두 가지를 현실에서 통합해 이루려는 사상이 등장했다. 주화에 의해 정리된 이학(理學) 혹은 신유학(新儒學)이 그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성리학으로 불리었다. 공자에 의해 탄생한 유학은 본래 불교나 도교보다 논리적인 구조가 취약하였다. 철학적 체계면에서 소홀했던 점 때문에 도가나 불가와 같은 철학적 체계를 갖춘 사상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존 유가의 바탕에 불교사상의 보완 체계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그리고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이(理)와 기(氣)는 이사무애, 사사무애와 같이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당·송 때는 은일 문화가 형성되고 도가와 선종의 영향이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유학적 전통 위에 도가가 융합된 낭만주의 풍조가 생겨나서 무릉도원을 꿈꾸고 무아구곡이 만들어졌다. 그 시기 신유학자로서 당송 8대가가 있고, 장재, 소호, 주렴계, 한규, 두보, 이백같은 송주 6현이 있다.

원래 세상에는 치가 앞서지 않았다. 그래서 치가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졌던 요순시대를 이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치는 원래부터 자연스러움이 아니었으므로 도와 부딪혔다. 그래서 노자는 공자에게 유가 안에 있는 인의예지의 명분과 공영심마저 버리라 했는데, 도덕경은 인간이 고정관념으로 형상화시켜 세상을 보는 것을 경계하도록 일깨운다. 그래서 이름 불리워지는 것이 다 헛되다 하여 무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도의 기본이라 했다. 그리고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세상 만사를 꿈이거나 물거품 같이 보라고 가르친다. 또 신선사상은 인간의 복된 삶이, 하늘과 땅을 경애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스스로를 낮추는데 있다고 보았다. 또 신선사상은 욕심을 버려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저절로 노래가 불려지는,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상이 말하는 것은 인위의 질서로부터 우주 본연 질서로의 나아감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현실 참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일적 삶이 위대하게 생각될 수 있었다.

은일은 땅에 의지해 살며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함이다. 처사는 그 출세욕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세상에 나아가지 않은채 자기 내면 세계에 충실한 삶을 추구한 존재이다. 그래서 한 처사가 열성증 안 부럽다고 했다. 그들은 초야에 몸을 담고 평화로운 산천을 찾아 간소한 거처를 짓고 학문과 시음을 즐겼는데, 소쇄원도 자연에 귀의하듯 내밀히 머무는 곳을 만든 것이다.

은일의 개념은 근대철학의 중요 관심사중 하나인 소외와 상통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양철학의 소외는 아픔으로 규정되지만, 은일은 현실을 벗어나 어려움을 자

초함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패러독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도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것처럼 은일에는 능동적인 긍정이 있지만 현실을 떠난 아픔이 어딘가 내재함으로서 종교적 초월과 구분 지어진다. 현대인들은 양산보가 소쇄원을 짓고 처사의 삶을 살다간 것이 낭만처럼 인식할 수 있으나, 그가 스승의 죽음으로 회의를 품고 은일을 택한 삶 마음 한구석에 한이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국 전통 원리의 진수

광주에서 창평을 가다 고서 쪽으로 접어들어, 소쇄원 가는 길에는 낮은 구릉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자연의 품에 포근히 안긴 듯한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광주호를 지나는 자미탄 주변에서 최대가 되는데, 자미탄의 완만한 흐름과 주변의 아트막한 산이 잘 어우러져 있다.

백두대간이 바다 가까이로 다가와 마지막 숨을 토해 놓은 듯 낮은 산아가 펼쳐지는 서남해 지역은 삶과 산이 오롯이 어우러진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을 가면서 느끼는 편안함은 현대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그대로임으로 해서, 소박함으로 해서, 문명의 때가 끼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편안함이다. 아직도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약간은 비켜 있는 곳, 그러나 순박함이 있고 아쉬움도 있는 곳, 그래서 순결한 느낌이 살아 있는 곳. 그 땅은 옛날부터 땅과 함께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태도가 면면이 이어온 곳이기도 하다.

고서들녘을 가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식영정이 광주호를 내려다보며 서 있고, 소쇄원을 향하는 자미탄 양 옆 언덕에 전망이 펼쳐지는 곳마다 식영정, 환벽당, 취기정 등 훌륭한 정자들이 연이어 서 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오면 조용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에, 옛 선비들의 시조가락이 들릴 것만 같은데, 실제로 이곳은 정철이 머물며 사미인곡 등 주옥같은 시조 작품을 탄생시킨 가람 문화의 산실이다. 이 조용한 곳에 은일의 삶을 택한 선비, 시인, 묵객들은 저마다 아담한 정자를 지어 놓고 시조 가락을 읊었다.

광주호를 굽어보는 식영정을 지나가다 보면 원편에 소쇄원이라고 쓴 표지판이 보인다. 표지판을 따라 비스듬한 오르막길을 30m정도 따라 들어가면 정갈한 대밭에서 시원한 기운이 서려 오는데 여기가 소쇄원 입구이다. 그 입구로 들어선 길을 따라 올라가다 원편을 바라보면 계곡을 건너는 외나무다리가 걸쳐져 있고, 그 너머로 아른히 청정한 세계가 느껴진다. 소쇄원은 한국정원의 멋이 최고로 구현된 곳이다. 이 곳은 넓지 않은 낮은 산기슭이지만, 계곡의 개울과 절벽 바위와 수목 등 자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명승지로만 본다면 전국에 그보다 빼어난 절경을 많이 찾아볼



소광소 유허지

수 있을 것이다. 이 곳의 탁월한 정취는 거창한 자연 경관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장소에서 그 잠재력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데 있다. 천말하면서도 기품 높은 이미지는 적당한 넓이의 과도하지 않은 경관 속에, 겸손한 선비의 은일 자적인 생활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목과 개울 이건만 여기서는 도의 기품이 서려 있다. 은자의 겸허한 태도로 자연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이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원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정원은 여러 가지 수목을 심고 건물을 화려하게 채색하며, 괴석과 같은 장식 요소를 많이 도입한다. 그리고 일본 정원은 정원 전체를 한 그루 나무를 분재하듯 인위의 손길로 최대한 다듬는다. 그에 비해 한국정원은 인위를 가하되 손길이 닿지 않은 듯이 자연스럽고 그윽한 멋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어느 곳을 꾸미기에 앞서, 그 곳 자연 고유의 정취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하는 상태를 생각하고 그 느낌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한도의 손길을 가한 것이다. 만약 그러한 분위기가 재발적 투자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재벌의 손에 의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소쇄원과 같은 자연스러운 멋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옛 정원의 조영 방법은 주어진 대상지 모두를 인위적으로 꾸미려는 현대적 사고와는 달리, 멀리 주변의 정서가 그곳에 고여 들게 하고, 그 정서를 머무르는 자가 누리게 함으로서 본래 자연보다 더 격조 높게 느껴지게 하였다.

꺼지게 하였다.

사람들은 소쇄원을 함라주의 사고로 몇의 비밀을 분석하려 들기 쉽지만, 그 시대 사고로는 단지 여느 정자를 지을 때 같은 위치 선정과 동선 흐름에 대한 구상에 고심하였을 것이다.

그 구상의 발단은 소요와 머무름의 구성에 있다. 선비들이 산수를 벗삼아 머물러 글을 읽다 휴식때 산책하던 습성대로 풍광을 음미하며 한가하게 이리저리 걷다가 쉬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가는 그 루트상의 적당한 장소에 건물이 나타나도록 해 놓았다.

소쇄원 계곡에는 다리가 두개 놓여 있는데 순환 동선으로 짜여진 돌고 나는 다리이다. 소쇄원을 들어선 방문객들은 길의 코스 선택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 입구 가까에서 걸쳐 있는 다리를 곧바로 건너는 것은 곧바로 피안에 이르고자 하는 발길이다. 그에 비해 대봉대를 거쳐 오곡문을 지나가는 길은 동네를 한바퀴 휘돌아 친구의 집을 들어서는 기분이다. 오곡문을 돌아 나와 광풍각에 앉으면 방금 동네를 벗어나 시원한 계류와 만나는 정취를 대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루트이다. 길은 각 영역을 연결시키며 감상을 쌓이게 한다.

소쇄원은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말처럼 느껴진다. 물은 온갖 것을 아름답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물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니 도에 가깝다. 머물 때는 물처럼 땅을 잘 기를지게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윽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물처럼 더불어 잘 어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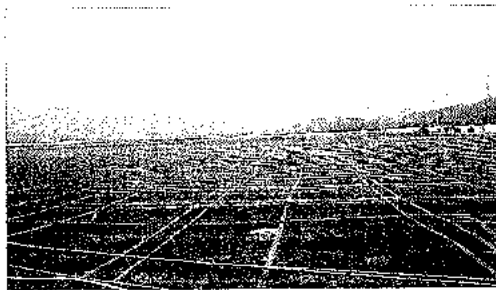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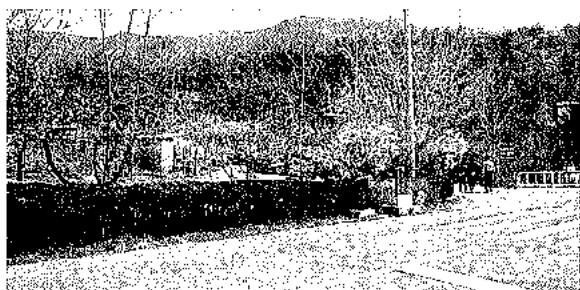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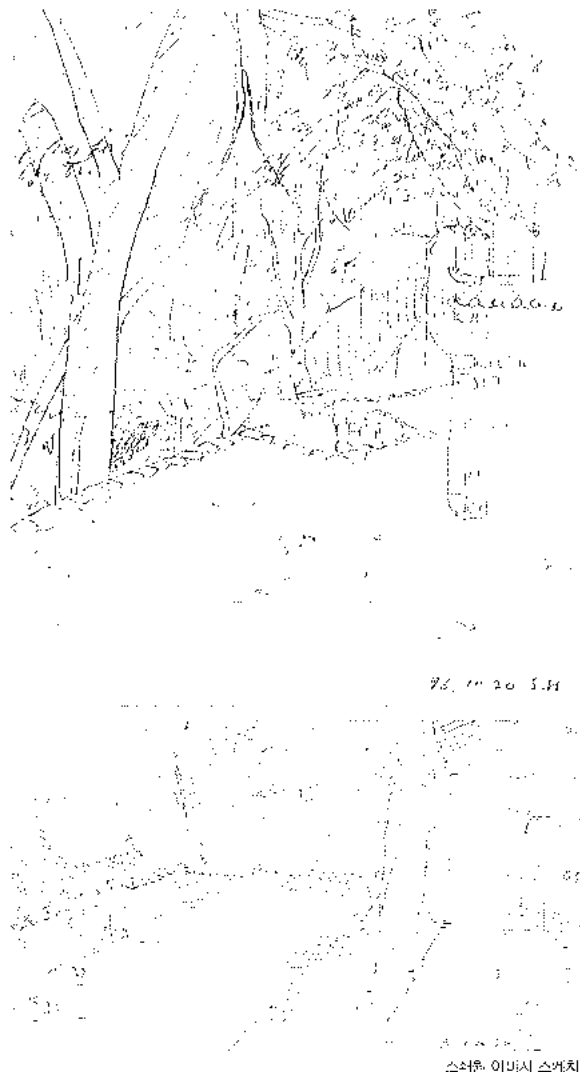
5

고, 말을 할 때는 물처럼 미덥게 한다. 노자는 물에서 겸양, 이타행, 자랑하지 않음, 내세우지 않음, 다투지 않음, 공평무사함, 반듯함, 미더움의 미덕을 발견했다. 바르게 할 때는 물처럼 잘 다스리고, 일을 할 때는 물처럼 능숙하게 하고,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잘 맞춘다. 대서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므로 허물이 없을 재가장 잘 하는 것은 물과 같다.

또 소쇄원은 막음과 아음과 차경의 묘미가 담겨져 있다. 이곳을 진입하여 입구를 따라 올라가면 외담 끝자락이 소쇄원 경내를 내외로 가르고 서 있다. 담 밖 동네와 격리케 하는 그 담은 단절의 장치이기보다 세상 번잡함으로부터의 보호막이다. 그래서 밖을 향하려던 시선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단절 속에 고절한 감정과 그리움이 자라게 한다. 그 자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군자의 삶의 미덕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차경은 경치만이 아닌 내음의 고임이다. 그 주변 내음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전체 내음이 한 곳에서 고인 듯 느껴지도록 하는 자리 잡음이다. 소쇄원의 원림 미학은 은자의 미학이다. 요새처럼 거창한 시설로 눈에 잘 띄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한가히 자연을 느껴려 한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발하게 하는 인위시설

서로 다른 성질의 사물이 모여 그 각각보다 좀 더 나은 효과로 되는 것을 음양오행설에서 상생이라고 하는데, 소쇄원도 자연과 인위 그 상반된 요소가 서로 상생작용 하듯 멋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위의 힘이 존재하면서도 들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는 것이 덕목이다. 소쇄원



1. 소쇄원인구 물결의 봄
2. 비옥한 토고, 울퉁불퉁한 계곡과 녹음
3. 방종적인 거담에서 노리는 북성
4. 소쇄원 가는길 주변 도로변, 버들류, 위은산
5. 소쇄원 대나무숲
6. 소쇄원 일각의 봄정취
7. 작은 폭포와 이탄 계류
8. 소쇄원 진입로
9. 숲사이로 울림을 비추는 빛
10. 더 깊은 세거로 건너 들어가는 다리



의 소쇄(瀟灑)한 기운은 자연에 귀의하듯 한 구조 속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지세를 바탕으로 그 운치의 흐름을 막고 이어 북돋아진 것이다. 온기로 기구를 부풀게 하듯이 감춰진 손길로 정취의 흐름을 잇대어 포만하게 하는 것이다. 원림의 구성 요소는 물 바위 수목 정자인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전체로 균형을 이루며 각각의 산술적 합보다 훨씬 큰 외침으로 전해온다. 소쇄원은 내원과 외원이 있었고 지금은 내원만이 본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곳에 있는 시설들은 모두가 지형과 주변 경관을 의식하여 적절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중 대봉대 광풍각 제월당의 3개 건물이 중심 영역을 이루고 있다. 원림안에 세워지는 집 이름들은 세워지는 장소와 그 장소가 갖는 느낌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외부로 열린 관계를 중시한 광풍각은 각이 되고, 안으로 머무름이 중요한 제월당은 당이 된다. 그로 인해 한국 전통건축의 집 이름은 백가지가 넘는다. 당, 우, 현, 루, 각 등이 주로 쓰이는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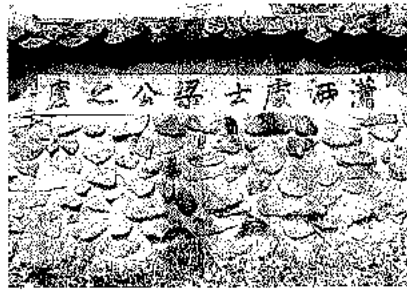
대봉대는 봉을 기다린다는 집 이름답게 손님을 영접하는 곳이다. 방문객은 그곳에서 기다리는 주인을 만나 함께 개울을 건너 주인의 처소로 안내된다. 광풍각은 손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랑채 공간으로서, 건물 이름인 광풍각은 '기슭에 품은 뜻의 맑고 밝음이 비개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과 같고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빛과도 같다' (胸懷囊括如光風霽月)고 평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곳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지리 앓음새인데, 여름 계곡의 수량에 지장없는 높이로 단을 쌓았고 작지만 폭포를 이루는 계곡을 흐르는 계류와 숲

과 맑은 바람이 둘러싸이게 했다. 그리고 쌓인 석축의 그 단위는 계곡을 바라보며 순환되는 길이 된다. 계곡 전체의 느낌을 잇는 경로의 다리를 놓아 편안히 방해받지 않고 정취에 가까이 다가가 내면이 고조의 순간까지 이르도록 끝나지 않는 순환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위쪽의 제월당은 주인이 홀로 머무는 정적인 영역이다. 소쇄원 안에서 또다시 홀로의 세계를 지닐 수 있는 곳이다. 정면 3칸의 건물인데 그 중 2칸이 열린 마루로 되어 있고 좌측면 1칸은 방으로 꾸몄다. 좌측에서 보면 그 방에 장작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다. 방안은 주인이 사용했을 법한 서책이 몇 권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제월당 마루에 앉아 앞을 바라보면 낮은 담으로 둘러쳐진 흙마당에 햇살이 조용히 비추고 있어서 조용하고 트인 흙마당을 보는 이의 마음도 정한 해진다.

광풍각과 제월당이 이웃해 있는 부분은 소쇄원에서 유일하게 담과 건물이 중첩되어 집약된 곳이다. 그 곳만을 보면 마치 마을의 일부분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멋진 솜씨가 발휘되었다. 제월당에서 광풍각으로 가려면, 낮은 담에 뚫린 협문을 통해 일단 외부로 나갔다가 댕 담을 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꺾인 담장에 의해 절묘하게 두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마치 한줄기 소슬바람이 산과 강 의 경치를 다 음미하며 휘돌아 가듯, 천연덕스럽게 관통하며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무술의 달인이 합죽선 하나로 거친 공격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손님은 이 곳을 와서 자연의 정취와 주인이



배우는 정에 흠뻑 베이다가, 서쪽의 닛 외나무다리를 건너 그 무릉도원 같은 곳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소설처럼 부분 부분이 하나로 완결되어 총체적으로 그 가치가 발산된다. 그러나 멀리 산마루에서 보면 소쇄원은 원래 산자락으로 여겨질 뿐이다. 마치 호오도운의 소설의 큰바위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면 돌 조각뿐이듯이, 여기서는 거꾸로 멀어지면 바람이 통하고 물이 흐르는 자연의 흐름만 느껴진다.

양산보(1503~1557)

소쇄원 오곡문에서 제월당으로 향하며 보이는 언덕의 담장에는 「소쇄처사양공지로 (蕭洒處士梁公之廬)」라고 송시열이 쓴 편액이 박혀 있다. 소쇄원의 문패인 셈이다. 그리고 소쇄처사는 바로 이 곳의 조영자인 소쇄공 양산보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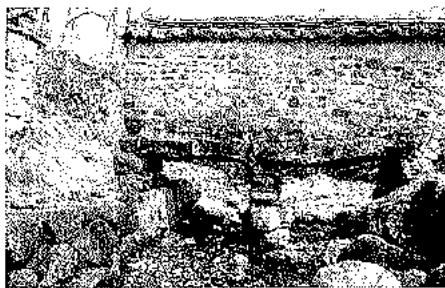
사람들은 모두 소쇄원을 처음 찾게 될 때 양산보의 이름부터 알게 되지만, 계속 알아 가다가는 이내 그를 어디론가 슬그머니 빼어 놓기 쉽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 시대 사람들의 세속적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양산보가 이 곳을 드나들었던 시인 묵객들에 비해 출세로나 학문적 업적으로나 별반 볼게 없어 보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양산보가 진정한 처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양산보가 남긴 글들은 임진왜란때 소쇄원이 불타면서 함께 사라져 버리고 겨우 두어 편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의 글은 그 후 17세기에 면양정 하서집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양산보가 평

소 이름을 숨기기 좋아하니 해서 문헌편찬때까지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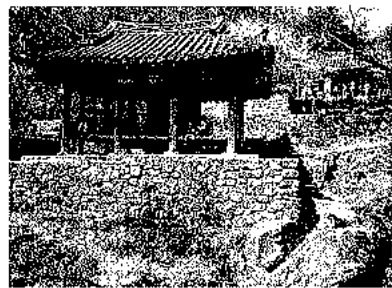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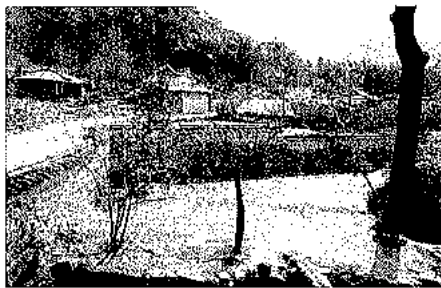
조선의 선비 사회에서 주인이 객과 마주 앉을 때면, 시문을 서로 주고 받는 게 예의였다. 양산보도 마주 앉은 시인들이 시 한편을 읊을 때마다 한 수 읊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쇄공의 글이 실제로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해도, 그의 인품을 그려보기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15세에 부친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서 17세까지 조광조에게 3년을 채 안 배우고, 과운한 나이에 현량과 1차 시험에 합격했었다. 그러나 그 현량과의 마지막 평가에서 우계 성원의 숙부가 되는 성수종과 함께 전체 응시생 가운데 두명만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 후 소쇄공은 공부를 계속했는데 기묘사화로 정암이 화순땅에 유배갈때에 따라 갔으며, 화순 정암의 유배처도 그의 작은아버지 집으로 정했다. 그리고 정암이 마침내 사약을 받고 죽었을 때 염을 한 사람도 바로 소쇄공이다. 그만큼 그는 정암의 삶과 죽음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그의 운신의 폭을 적게 했다. 정암이 죽자 소쇄공은 이곳 정암에 온돈할 결심을 굳히고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지금의 버스 정류장 부근 마을에 살면서 소쇄원을 조영하고 새로운 처사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가 운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6세때 부인이 별세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인과의 의리를 지켜 다시 혼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부 처림으로 김을 매곤 했다 한다.

소쇄공의 후예들도 출세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미 중앙에는 파벌 싸움이 일고 있었고 양산보 선생의 4



1. 계곡위에 놓인 대문대
2. 오곡문 근처에서 곧 외나무다리를 왕궁각
3. 송늪을 기다리는 거울 바깥의 대문대
4. 신채파 머무랄 수 있는 구름
5. 우암 송시열이 쓴 소쇄원 담장보 편액
6. 계곡 흐름을 알고 양을 담장
7. 대문대
8. 기슭에 있고 가까이 있는 풍류각과 제월당
9. 소쇄원내 담장위의 마루
10. 계곡에 거닐고 멀리 송인 왕궁각의 세월당



대손은 정철을 변호하다 당쟁에 희생되어 동인 세력에 의해 죽었다. 후손들 중 알려질 만한 인물은 5대손은 시를 다수 남겼고 33인중 한 사람인 양한묵도 양산보의 후예이다. 나는 그의 15대손 양재영 선생에게, 선조의 글이 불타 없어져 안타깝지 않느냐고 물어 본 일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선생은 그 편이 더 낫다고 대답한다. 글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미화되기 쉬운데, 오히려 없는 것이 처사다운 모습대로 자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선조와 같은 마음씨를 갖고 살아가는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기대승은 소쇄공을 모호만이라 칭했다. 이름을 숨긴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처사에 대한 극찬이다.

소쇄원 수난의 어제와 오늘

소쇄원은 한국 정통 문화 유산 가운데, 변형되지 않은 그 느낌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곳이 처음 조성된 이래로 여러 차례 수난을 겪었다. 맨 앞의 일은 조영한지 60여년이 지난 임진왜란 때, 소쇄원이 전란 중에 소장 문헌 등과 함께 모두 불타고 말았다. 그리고 전란이 끝난 뒤 다시 복원하였다. 그 뒤로는 출세한 사람도 없고 중앙의 정계를 이끄는 파벌과도 거리가 멀니, 이 곳을 주목하는 이 별반 없이 그냥 조용히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일제 때 일본 통치자들에 의해 면사무소로 쓰이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외부의 재난이 아닌, 한해에 찾아오는 백만 명이 넘는 인파의 발길로 나날이 닳아 빠져 가고 있다. 소쇄원의 힘은 그 자연 산천의 힘을 배경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소쇄원의 흙마당 하나의 무게감에도 그 느낌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소쇄원 앞에 관광 휴게소를 만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관에서 문화재 일을 시행하는 과정은 업체와 전문가들의 힘이 합해져서 이루어지고 용역과도 관계된다. 소쇄원 복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는 교수를 포함하여 그 분야에 자존심 걸고 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고 자문하는 사람들도 다 학식과 식견 높기로 자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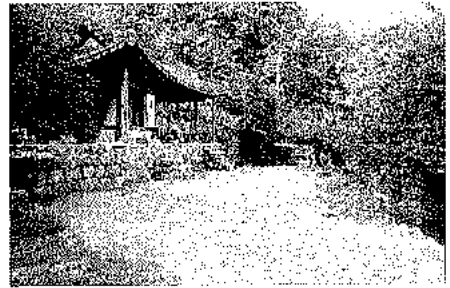
근래 지방자치시대를 연 이후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하는 추세 속에 문화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화시대 이후 지역마다 문화재를 지방 자원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요새 일부 지자체는 별볼일 없는 곳마저 각종 사료를 끌어 붙여 눈요기 관광 상품으로 둔갑시키려는 판이다. 어느 곳이건 일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곧잘 일을 벌인다. 나아가 문화재를 장삿속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쇄원의 명성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그냥 두기 어려웠는지 담양군에서 거창한 구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문화재 복원이라는 말이야 본래 좋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훨씬 저속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기 일수이니, 돈돌이고 난 후에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이런 상태가 빨리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문화재는 과연 하나라도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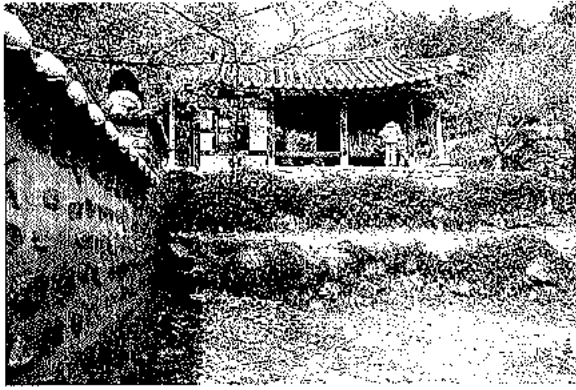
4



5



6



광릉각 숲에서 본 소쇄원

제대로 남아 날 것인가 한숨이 나온다.

복원 계획의 관계자들도 소쇄원을 좋아하고 칭찬해온 사람들일 것이기에, 왜 그 느낌이 좋은 것인지 다 잘 알 것이다. 그 좋은 느낌, 아니 국내에서 유일한 최고의 민간 원림이라는 엄청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곳을, 서울 동네 야산의 공원처럼 길을 내고 인공 화단을 만들고 들어가게 해서, 그 내원을 눈요기 감으로 뱅뱅 돌리보게 할 심산이나 현재대로의 분위기에서는 온전히 남아 있기 어려울 심각한 일이다. 한국원림의 비법을 간직한 곳, 그래서 멀리 주변 모두의 힘이 약속처럼 응축되어 샘솟아 나는 듯한 그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주위를 시만 공원화 하려는 발상은 마땅히 거둬져야 할 것이다. 청정한 솔바람이 계곡을 지나는 소쇄원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시간의 여백 위에 시심(詩心)에 젖어 온일자가 되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

소쇄원

구곡에서 부는 바람
오곡문을 돌아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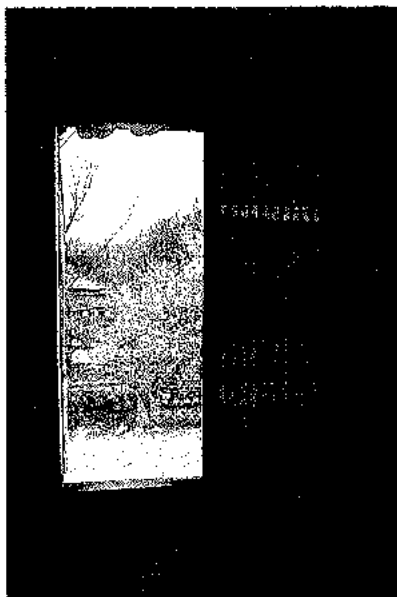
별외 사는
처사에게
친구가 찾아 온 날

주인은 격을 맞아
외나무다리를
건너네

흔한 산천 한구석에
제 몸 낮추려 할 밖이건만

멀리도 한 채
가까이도 한 채 정자를 지어 놓으니
제 없던 정취도 생겨나서
흰 구름도 산마루를 넘어가다
이 쪽을 돌아보고

객이 정자에 앉아 시를 읊조리면
주인은 조용히 듣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네



7



8



9

1. 광릉각 마을에서 광릉원을 즐기는 방문객
2. 광릉각 마루
3. 제철당
4. 제철당 마루
5. 원종각과 제철당 경계의 등장
6. 광릉각에서 소쇄원으로 가는길의 단청과 처단
7. 제철당에서 바깥으로 벗어나 온 봄가을 느낌
8. 제철당 마당앞의 방문각과 담장
9. 제철당을 건너서는 문
10. 제철당과 광릉각 사이 전경을 이루는 골목



10

계획적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District Plan of Urban Planning Arrangement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교수
by Choi Chan-Hwan

1.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2. 계획적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3.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위상

기존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의 전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도시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연구를 뒷받침으로 우리나라에 1980년 건축법 제8조의 2에 도시설계에 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1991년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경우는 매우 유사하였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를 달리 가지고 있었고, 또한 별도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동안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근 10년 동안 이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면서 발전적인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작년 2000년 7월 1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분명 도시계획법 안에 있는 하위계획이다. 이 계획은 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같은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부에만 적용되어지며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정된 사항만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일반 도시계획법 상에서 지정할 수 없는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즉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건축에 관한 규제사항도 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획적인 제도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개별사업법에 의한 실시계획 등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도에 설치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①동일한 지역·지구안에서 지역·지구의 세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용도지구 사이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일반미관지구를 중 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등과 같은 지역·지구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다.

②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지역의 개별 법률(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③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 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계획된 가구 및 획지나 기존사가지의 경우도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 건축법상 허용되는 용도라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총별 또는 전체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 건폐율, 용적률 등을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가구별, 획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심의 랜드마크 조성이나 입지적 특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별로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가로경관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

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 지정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지붕의 모양, 색채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경관계획

문화재, 산, 수변 및 특정건축물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경관분석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⑦교통처리계획

보행, 차량 등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⑧기타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용공간에 필요한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 및 실효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 및 정비차원에서 포괄적인 계획적 수단이며, 유용한 도시정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남발되다시피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현성의 문제와 집행과정 상에서 많은 민원의 유발 등이 있어 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보완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 소규모의 필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가능한 점은 소규모의 필지를 통합하여 건축물의 규모확대 및 공지의 통합적인 이용,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이용 등 많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재산권과 개발방법, 시기의 의견의 불일치 등 많은 어려움 등은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용 및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실현될 수 있게 많은 대안과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의 경우는 물리적 계획이든 사회·경제적 계획이든 기본계획의 특성상 시간적으로는 중장기적 범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는 주변이나 전체와의 관련성을 긴밀히 한다는 점에서, 수단적으로는 포괄적인 방법을 강구한

다는 점에서 계획의 종합성, 정책의 일관성,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돕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가교적 역할을 해야하므로 앞으로의 도시의 발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양면성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작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계획적인 측면과 규제수단적인 측면의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개정 도시계획법에 넣기 위하여 많은 토론회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지만, 아직 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은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에서 비롯된다.

도시의 관리 및 정비차원에서 기존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구역지정을 하고 가구별, 획지별,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법제의 보완적(연계·형태 규제적 측면), 가교적(도시와 필지, 건물과의 관계), 구체적(세부적 지침의 마련), 부문별로 조정적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도시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법의 성격을 벗어나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같은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개별법이 담당해 온 역할을 지구단위계획이 대신 담당할 필요는 없다. 결국 지구단위계획이 개

별법의 지위와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시개발, 과밀개발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하나의 처방이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보완되어야 할 지구단위계획

참여의 문제

새로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과 다른 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공의 계획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전면에 나서 투기적인 도시의 개발을 선도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 왔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기본계획이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만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계획은 공공이 민간개발에 앞서 수립하여 규제지침, 기준, 지표를 명확히 먼저 설정을 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통합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단의 위임문제

구 분	부 천 시		서울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시 행 령	시행령비고
전용주거지	1종	100%	100%	50%	100%	100%	100%	50~100%	
	2종	120%	120%	100%	150%	100%	150%	100~150%	
일반주거지	1종	150%	200%	150%	100%	150%	150%	100~200%	4층 이하
	2종	200%	250%	200%	150%	200%	200%	150~250%	15층 이하
	3종	250%	300%	250%	200%	250%	250%	200~300%	자치단체위임
준저거지역	40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50%)	600%	400%	250%	300%	400%	400%	200~700%
중심상업지역	1,000%		1,200%	1,000%	700%	1,000%	1,100%	1,300%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0%		1,000%	800%	500%	800%	800%	1,200%	300~1,300%
근린상업지역	600%		800%	600%	400%	600%	600%	800%	200~900%
유통상업지역	600%		1,000%	600%	400%	600%	600%	400%	200~1,100%
전용공업지역	300%		200%	200%	300%	300%	200%	150~300%	
일반공업지역	300%		350%	200%	250%	400%	350%	350%	200~350%
준공업지역	400%		400%	250%	50%	300%	250%	200~400%	
보존녹지지역	50%		50%	400%	50%	50%	50%	50~80%	
생산녹지지역	50%		50%	50%	50%	100%	100%	50~100%	
자연녹지지역	50%		100%	50%	80%	80%	50%	100%	50~100%
기 타 지 역	100%		-	-	100%		50%		

자료 :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단은 건축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의 지정 등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안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용적률 등과 같은 밀도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서울, 경기도방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은 용적률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적용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허용용적률의 최고치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를 50%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고밀의 도시를 더 고밀화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의 토지이용정책의 하나인 Zoning으로 해결해야 할 일반적 문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일정의 공공용지를 사업자가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한 용도, 밀도 규제를 같이 한다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 Zoning제도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으며, 주거지역의 경우는 세분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즉 지구단위계획이 Zoning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 제도 스스로가 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유발의 개연성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어지는 구역 안에서 먼저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 사항이 먼저 제시되어지지 않을 경우는 민간사업자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즉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성의 검토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며, 현재 건설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즉 불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계획에 앞서 규제지침이 마련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기간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절차상 복잡하게 되어있고, 사업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규제중심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어느 정도 이양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승인 및 건축허용금지 수단으로서 이용

되어서는 곤란하다.

도시계획법이 계획법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계획과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법들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되어져 시행되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어져 시작되고 있는 것은 시행 전 도시설계구역과 상세계획구역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어서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론적인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각론적인 시행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운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8)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간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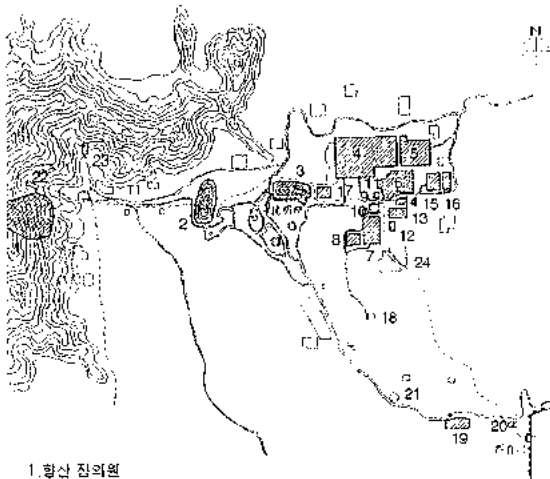
〈 연 재 목 차 〉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세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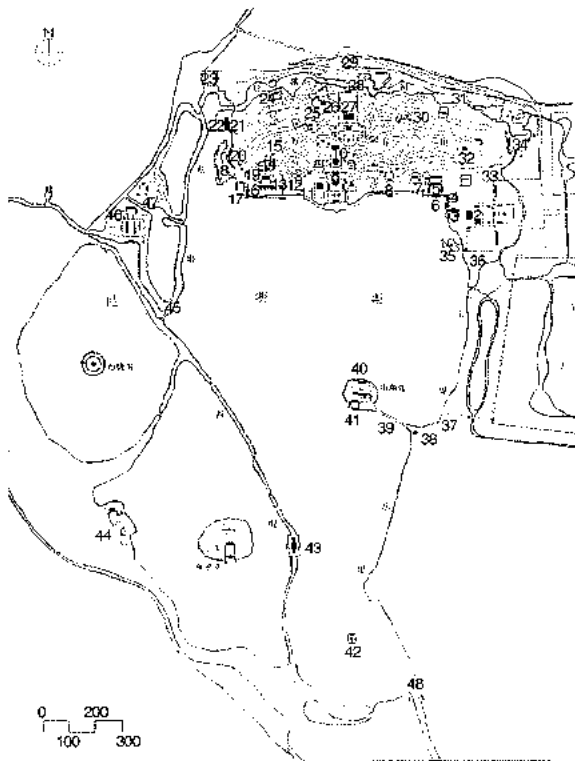
8.1 이화원의 역사변천

이화원은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대형 자연산수원림이자 황가원림의 하나로 294헥타르의 면적¹⁾을 점유하고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6.5km이다. 이 원림은 청대 북경의 삼산오원(三山五園)²⁾ 가운데 가장 늦게 조성된 원림으로서 3~4세기경부터 이미 풍경이 수려한 지역이었다.^(그림1) 건륭 15년(1750년) 황제가 모친의 60세 축수를 위하여 옥천산의 계류를 서호(西湖)로 끌어들이 근명호(昆明湖)로 이름을 바꾸고 웅산(熊山) 원정사(圓靜寺)의 옛터에 대보은연수사(大報恩延壽寺)를 세운 뒤, 웅산의 이름을 만수산(萬壽山)³⁾으로 개명하여 청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4)(그림2)}. 당시에는 호광산색(湖光山色)이 청아하고 대보은연수사 등 산위에 지어진 건축물, 날찍한 수면의 근명호에 만들어진 섬과 제방, 서쪽



1. 향산 잔의원
2. 옥천산 정명원
3. 민수산 창려원(이화원)
- 4-6. 원명원의 원명원, 장문원, 기운원
7. 향춘원
- 8-23. 기타 원림과 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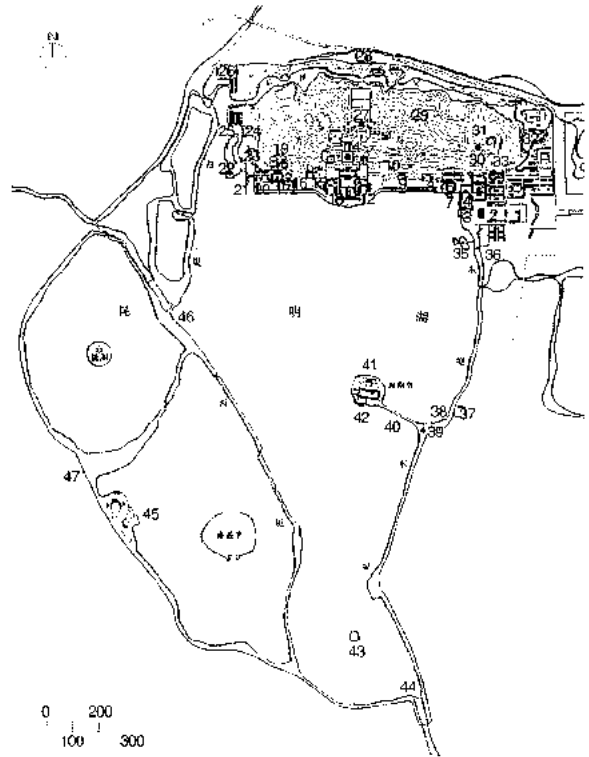
(그림 1) 건국 초기 시기 북경의 삼성오원 위치도



- | | | | |
|-------------|-------------|----------|----------|
| 1. 동공문 | 13. 청회원 | 25. 대선오 | 37. 선공문 |
| 2. 안수전 | 14. 화향각 | 26. 복서문 | 38. 돌우 |
| 3. 옥관당 | 15. 운송소 | 27. 수미원경 | 39. 옥여정 |
| 4. 외운관 | 16. 산색호광공일루 | 28. 복공문 | 40. 17공고 |
| 5. 낙수당 | 17. 청리관 | 29. 화송각 | 41. 함허당 |
| 6. 수목자친 | 18. 화종유 | 30. 경복각 | 42. 갑원당 |
| 7. 양운전 | 19. 호산전의 | 31. 익수당 | 43. 봉황문 |
| 8. 무진외현 | 20. 석정정 | 32. 해위문 | 44. 수기교 |
| 9. 대보은연사 | 21. 석방 | 33. 적성하기 | 45. 장관당 |
| 10. 불향각 | 22. 소서정 | 34. 동팔소 | 46. 옥대교 |
| 11. 운송소 | 23. 연창상 | 35. 지춘정 | 47. 서공문 |
| 12. 산색호광공일루 | 24. 패각 | 36. 문창각 | |

(그림 2) 청의원 시기의 전체 배치도

- 1) 명작에 관해서는 290책타이라라는 책도 있으나 여기서는 《中國古典園 圖典名圖》(劉策 외 편, 明文書局, 1986년)에 기재된 수치를 따랐다.
- 2) 삼성오원에는 청춘원(淸春園), 원명원(圓明園), 향산(香山) 정의원(靜宜園), 옥천산(玉泉山) 정명원(靜明園), 민수산(溇水山) 창려원(滄涼園)이 해당된다.



- | | | | |
|-------------|-------------|----------|----------|
| 1. 동공문 | 13. 청회원 | 25. 대선오 | 37. 선공문 |
| 2. 안수전 | 14. 화향각 | 26. 복서문 | 38. 돌우 |
| 3. 옥관당 | 15. 운송소 | 27. 수미원경 | 39. 옥여정 |
| 4. 외운관 | 16. 산색호광공일루 | 28. 복공문 | 40. 17공고 |
| 5. 낙수당 | 17. 청리관 | 29. 화송각 | 41. 함허당 |
| 6. 수목자친 | 18. 화종유 | 30. 경복각 | 42. 갑원당 |
| 7. 양운전 | 19. 호산전의 | 31. 익수당 | 43. 봉황문 |
| 8. 무진외현 | 20. 석정정 | 32. 해위문 | 44. 수기교 |
| 9. 대보은연사 | 21. 석방 | 33. 적성하기 | 45. 장관당 |
| 10. 불향각 | 22. 소서정 | 34. 동팔소 | 46. 옥대교 |
| 11. 운송소 | 23. 연창상 | 35. 지춘정 | 47. 서공문 |
| 12. 산색호광공일루 | 24. 패각 | 36. 문창각 | |

(그림 3) 최후로 개명 이후의 전체 배치도

으로 바라다보이는 옥천산과 서산의 경관, 드넓은 평야가 전개되는 일망무제의 동남쪽 경관, 민수산 동쪽 기슭에는 무석(無錫)의 기창원(奇昌園)을 모방하여 만든 원림 속의 원림인 혜산원(惠山園) 등이 원림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후 가경년간(嘉慶年間: 1522년~1566년) 부분적인 확장과 보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함풍 10년(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면서 북경 교외에 있던 청의원, 원명원 등의 주요 황가원림을 모두 폐허로 만들면서 이곳도 피해를 입었다. 6년 뒤인 광서 12년(1886년), 자희(慈禧) 태후는 해군의 경비를 동원하여 이 원림의 중간에 착수하였으며³⁾ 광서 14년(1888년) 현재의 명칭인 이화원으로 개명을 하였다⁴⁾. 그러나 1900년, 서방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이화원은 다시 한번 크게 파괴되었고 광서 27년(1901년) 자희 태후가 피난 갔던 서안에서 북경으로 환도하고 난 뒤, 또다시 하나둘씩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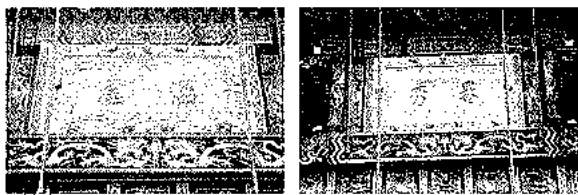
- 3) 민수산의 동서 길이는 1000m이고 높이는 60m이다.
- 4) 청의원관 10여년의 토목공사를 거쳐 건륭 29년(1764년)에 완성되었다.
- 5) 자희 태후가 추진했던 이화원 복원 공사는 광서 21년(1895년)에 중단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청대 황실 우대조건에 의거하여 폐위된 황제가 기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서 유람의 장소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십 년 동안에 걸친 군벌들간의 싸움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하여 원림의 경관과 건축물들은 참담한 지경에 빠졌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 지속적인 보수를 통하여 원래의 면모를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다.

8.2 주요 건물의 현판과 주련이 가진 의미

중국은 특정한 원림의 외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나무나 돌 등에 시 또는 특별한 의미의 글자를 새겨 걸어두는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이것은 오대 말기에 이르러 발달된 당대 시기문학의 기초 위에서 대련, 주련, 편액(또는 현판이라고도 함) 등의 예술형식을 낳았으며 점차 원림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화원은 주련과 편액, 판각이 비교적 많은 황가원림에 속한다. 주요 건축물의 편액을 위주로 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궁문 외곽의 패루 위에 걸려 있는 함허(涵虛)와 염수(靑秀)는 “공허하고 적막한 경지”와 “그림과 같은 풍경”이라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그림4). 따라서 이화원



(그림4) 동궁문 밖에 있는 패루의 현판

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이러한 현판을 건 것은 이화원의 규모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궁문을 들어서면 이화원이란 현판이 눈이 띈다. 이화원의 이화는 “천년을 보양하는 천하태평의 원림”이라고 풀이되는데 그것은 이 원림을 통하여 황제 자신이 오랫동안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다. 동일한 의미의 현판은 자금성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륭 황제가 퇴위 후에 머물렀던 이화원이 바로 그것이다.

궁전구역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건물은 인수전이다. 인수는 〈논어·옹아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어진 자가 장수하는 전각”이란 뜻이다. 다음으로 만수산 남쪽 구역의 중심 건물인 동시에 이화원 전체의 구도 중심이 되는 불향각의 불향은 “불타중향지각(佛陀衆香之閣)”에서 취한 명칭이다. 불은 범어 불타의 약칭이고 향은 불경 〈미힐경·향적품〉에 나오는 이상적인 국가 중향국(衆香國)의 줄인 말로서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청대에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므로

원림 전체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원림 자체가 부처님의 이상적인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곤명호 안에 있는 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큰 섬인 조감당은 “인재를 선발하는 당”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 큰 섬 남호도는 섬의 위치에서 그 뜻을 취했으며 치경각은 “정치를 똑똑히 살피는 각”이란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람을 하면서도 국가의 동향을 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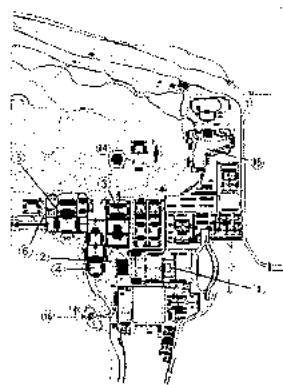
8.3 주요 경관 구역의 특성

이화원은 일산일호(一山一湖)의 광활한 면적을 점유한 황가원림으로서 크게 생활거주 구역을 포함한 궁원 구역과 만수산 및 곤명호의 경관구역을 포함하는 원림구역으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이것을 궁원구역, 곤명호 구역, 장랑, 만수산 남쪽 및 북쪽 구역, 매매가, 해취원 등으로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궁원구역

궁원구역은 이화원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궁문(東宮門) 안쪽에 있는 인수전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동궁문 밖의 함허(涵虛), 염수(靑秀)라는 현판이 붙은 패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동궁문, 인수문을 거쳐 인수전에 이르는 중추선의 좌우에는 일련의 전각이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원칙에 따라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5, 6). 이곳에서는 정사를 논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연극의 감상, 연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이화원 안에서 건축물이 가장 많이 밀집된 장소이다. 청대의 황제와 황후들은 대부분 여름철이 되면 이화원 내에 머물며 인수전에서 외국의 사절을 맞이하고 주요 행사를 집전했다. 인수전의 뒷편은 곤명호에 면하고 있는데 옥란당(玉蘭堂), 의운관(宜雲館), 낙수당(樂壽堂) 등의 건물은 회랑으로 형성된 각기 다른 3개의 대형 사합원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건물은 광서황제의 황후와 자회



(그림5) 궁원 구역의 배치도



(그림6) 인수전 앞에 잔설된 기물과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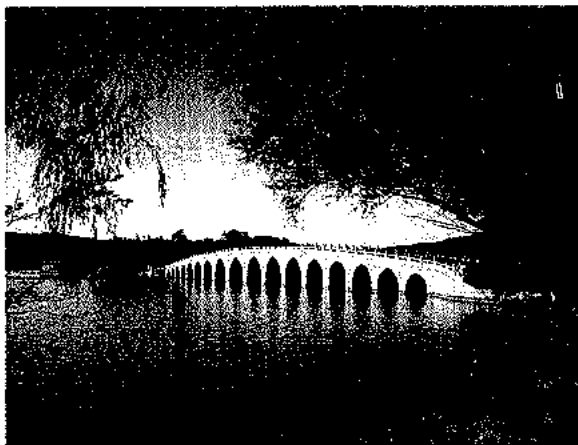


(그림7) 경극을 공연하기 위해 지어진 덕화원 안의 대희루

태후가 기거를 하던 곳이다. 특히 자희 태후가 기거를 하던 낙수당의 서쪽은 원림의 유람구역으로 진입하는 장랑(長廊)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정에는 청지수(靑芝岫)라고 불리는 높이 4미터, 폭 2미터, 길이 8미터 크기의 거대한 산석을 옮겨다 놓았다. 또한 이곳의 남쪽에는 호수에 면한 문청(門廳)이 있는데 문 밖에는 자희 태후가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아화원에 도착하여 하선을 하던 부두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인수전의 북쪽, 만수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덕화원(德和園)은 3개의 중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서, 남 3면의 건물들은 태감(太監)들이 일을 보는 곳이며 3층 건물의 대희루(大戲樓)는 경극을 공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그림7).

(2) 곤명호 구역

곤명호⁶⁾의 둘레는 1930m이고 호수면적은 200헥타아르에 달하는데 원림 전체의 4분의 3을 점유한다. 이곳에는 2개의 제(堤), 5개의 섬, 9개의 다리가 있으며 4개의 유명한 호수를 모델로 삼아 조성되었다. 다만 6개의 섬 가운데 소서령(小西泠), 지춘정(知春亭), 봉황봉(鳳凰墩)은 규모도 작고 동제의 경역에 속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러 보통 삼도라고 부른다. 이 삼도의 정연한 배치는 황가원림의 전통인 일지삼산(一池三山)⁸⁾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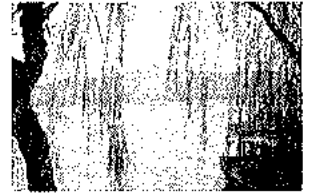
(그림8) 남호도와 동쪽 호안을 연결하는 17궁교

것이다. 우선 17개의 아치 석교로 동쪽 호숫가와 연결된 남호도(南湖島)를 살펴보면 삼도(三島) 가운데 두 번째로 크지만 곤명호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관제로 전체 원림의 가장 중요한 풍경지점을 이룬다(그림9). 타원형에 가까운 만월(滿月) 형

6) 궁원에 살던 천관 족, 내시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7) 곤명호는 건륭 16년(1751년) 만수산 행궁을 정의원으로 삼으면서 세워진 정의원 행궁지구가 주된 대규모 공심공사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준설할 때 나온 흙은 원림의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만수산의 동서 양측을 완만하게 하고 대청을 이루게 하기 위

태의 섬 위에는 용왕묘(龍王廟)인 광운영우사(廣潤靈雨祠), 망섬각(望嶼閣), 감원당(鑑遠堂), 담회헌(澹會軒), 월파루(月波樓), 운향각(雲香閣), 함



(그림9) 망섬각 앞에서 만수산을 바라 본 경관

허당(涵虛堂) 등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누각의 이름은 월궁선경(月宮仙境)을 주제로 삼아 표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망섬각에 오르게 되면 사방이 탁 트여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데 특히 북쪽의 만수산 전경과 서쪽의 옥천산 및 서산이 차경으로 이용되는 절묘함을 보여준다(그림10). 서제의 서쪽에 있는 2개의 수역은 비교적 작는데 그 중심에 각기 섬이 하나씩 있으며 남쪽에 있는 섬은 곤명호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그 위에는 조감당(藻鑑堂)이 있고 당의 앞에는 건물 황제가 배를 타고 와서 경치를 감상하고 차를 마시던 봉철명대(鳳喙茗臺)가 호수에 면해 있다. 북쪽의 호수면에도 섬이 하나 있는데 형태가 독특하고 섬 위에는 2층의 원형 성보(城堡)를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3층 높이의 치경각(治鏡閣)을 세웠다.

서제는 서궁문 안에서 수의교(綉漪橋)까지로 항주 서호의 소제(蘇堤)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는 도화가 피고 버들이 늘어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초봄의 경색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위에는 유교(柳橋), 빈풍교(蘋風橋), 옥대교(玉帶橋), 경교(鏡橋), 연교(練橋), 계호교(界湖橋) 등 모두 6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으며 연교와 계호교의 사이에는 원래 악양루를 모방하여 만든 경명루(景明樓)가



1. 곤명호 2. 만수산 3. 서제 4. 서호 5. 소제

(그림10) 정의원(좌)과 항주 서호(우)의 비교

있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그림10). 그리고 호수남단에 있는 봉황봉이라고 하는 작은 섬의 주변은 무석의 대운하 가운데 있는 황부돈(黃埠墩)의 경관을, 호수서쪽의 북쪽은 한무제의 곤명지를 각기 모방하여 조성한 것이다. 호수 북단 호안 가까이에 지춘정이 있는데 곤명호 전체를 감상하고 옥천산과 서산을 차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호수 남단의 숙기교(綉綺橋)

한 개조작업에 사용되었다.

8) 중국 역사상 황가원림에서 일지삼산의 배치는 서한시기의 건장궁(建章宮)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후에 많은 궁궐의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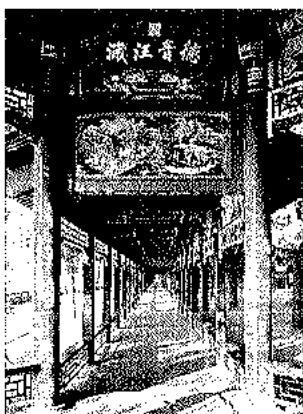
(그림11) 청동으로 만든 소 및 소와 대응관계
를 이루는 남문도.

는 다리의 수문으로 이곳을
빠져나간 물은 서남쪽으로
건설된 긴 운하를 따라 지금
성 외곽의 해자까지 도달한
다(그림3 참조).

그 밖에 곤
명호의 동쪽 호안에는 물이 범람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동
(銅)으로 만든 소 한 마리(銅牛)가 호수 서쪽의 건축군과 수면
을 사이에 두고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계획사상은 천인
감응(天人感應)의 사상과 건우적녀의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
다(그림11).

(3)장랑

장랑은 일명 천보랑(千步廊)이라고도 하는데
길이 약 1000m, 755칸의 규모로서 만수산 남쪽 구역의 주
요한 유람노선을 형성한다. 한쪽 편은 곤명호에 면하고 있
으며 다른 한쪽은 만수산의 기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동쪽의



(그림12) 장랑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

낙수당(樂壽堂) 요월문
(邀月門)에서 시작하여 서
쪽의 석장정(石丈亭)에서
끝을 맺는 이 긴 회랑은 산
문(山門)을 중심으로 동쪽
에는 유가(留佳), 기란(寄
瀾), 서쪽에는 추수(秋
水), 청요(淸遙)라고 이름
붙여진 팔각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 휴식

과 풍경감상의 장소로 제
공된다. 회랑 내부의 보와 도리에는 산수, 인물, 화조 등을 소
재로 삼은 1만4천여 폭의 소색채화(蘇式彩畵)가 그려져 있어
화랑(畵廊)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그림12).

(4)만수산 남쪽 구역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일명 전산(前山)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가장 두드러진 경관은 40m에 달하는 불향각
(佛香閣)이다. 곤명호에 면한 운회옥우패방(雲輝玉宇牌坊)에
서부터 북쪽으로 배운문(排雲
門), 배운전(排雲殿), 덕휘전
(德輝殿), 불향각, 유리패루(琉
璃牌樓) 중향계(衆香界), 무량
전인 지혜해(智慧海) 등이 산
세의 흐름에 따라 놓여져 있으며 그 양측의 대칭적인 위치에
전륜장(轉輪藏: 동쪽)과 동정(銅亭: 서쪽)이 있다. 이 일대의
중앙건축군은 원림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인 동시에 주축선을



(그림13) 배방 앞에서 불향각을 바라본 모습

이룬다(그림13).

이것은 산악이 층층이 겹쳐진 금수경관 속에
화엄 세계의 누대(樓臺)가 놓여진 경관을 상징하였는데 자연
미 속에 건축미를 표현한 뛰어난 경관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산세에 따라 수직적으로 배치된 건축군은 마주보고 있는 광활
한 면적의 수평적인 곤명호 수면과 강렬한 대비효과를 얻으면
서 주중과 리듬이 있는 공간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호수 전체
의 경관을 감상하는 중요한 장소의 역할을 한다.

(5)만수산 북쪽 구역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일명 후산(後山)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은 500헥타아르 정도이며 이화원 전체면적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 중간에는 후계하(後溪司)가 흐르며
수원(水源)은 옥천산에서 발원한다. 후계하의 양쪽 편은 만수
산의 전면과 달리 경물(景物)이 유심(幽深)하여 별유동천(別
有洞天)이라고 이름 만 하다.

후산의 중앙에는 10m에 달하는 붉은 색 기
단 위에 북향으로 앉혀진 수미
령경(須彌靈境)이라고 하는 대
형 사찰이 있는데 한쪽과 장쪽
의 양식이 섞인 혼합식 건축물
이다(그림14). 중심건물은 향엄종
(香嚴宗引之閣)으로 주위에 사대부주전(四大部州殿),
팔소부주전(八小部州殿), 일전(日殿), 월전(月殿), 사색탑(四
色塔) 등이 있다. 이것은 승덕(承德)의 보녕사(普寧寺)와 서
장지역에 있는 상야사(桑耶寺)의 형제(形制)와 유사하다. 여
기서 북쪽으로 더 나가면 패루와 후계하를 가로지르는 3개 아
치로 된 석교가 나오고 그 북쪽에 북궁문(北宮門)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축선상에 놓여져 있다.



(그림14) 후산 중앙부에 세워진 사찰 건축군

1860년 청의원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해멸될 때 이 지역의 경관도 모두 폐허가 되었다.
그 후 1888년 자희 태후가 이화원을 중간하면서 재정이 고갈
된 관계로 후산 일곽의 경관은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

(6)매매가

길이 270m,
둘레 700여m에 이르는 매매
가(賈買街)는 강남지역의 수상
도시인 소주의 거리를 모방하
여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일명
후계하 매매가, 또는 소주가(蘇
州街)라고 불리운다. 후계하의
양측, 장교(長橋)의 좌우측에
있는데 건륭 57년(1792년)에



(그림15) 복원 전의 매매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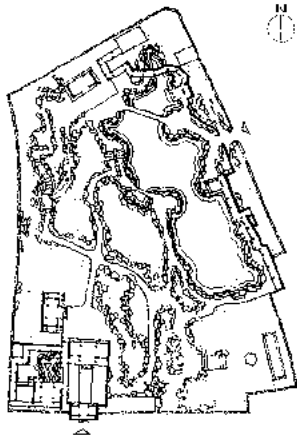
(그림 16) 국원 후의 매매가 전경

만들어졌다. 소주가의 주변은 각양각색의 점포 64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점포의 입면은 북경성에서 자주 보이던 패방(牌坊), 패루(牌樓), 박자(拍子)의 3가지 형식을 이용하였다. 당시 황제와 황후가 이곳을 유람하게 되면 태감(太監)들이 상인이나 고객으로 분장하여 실제 소주 거리의 변화한 상황을 연출하였다고 한다.

이곳 역시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그 이후 줄곧 방치되어 있다가 1986-1990년 북경 청화대학 건축학원에 의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른다.(그림 15, 16)

(7) 해취원 일각

해취원은 만수산 동쪽 기슭, 궁전구역 가까이 있는 독립적으로 조성된 원림 속의 원림이다. 원래 명칭은 혜산원(惠山園)으로 1751년 건륭 황제가 남방순시 때 무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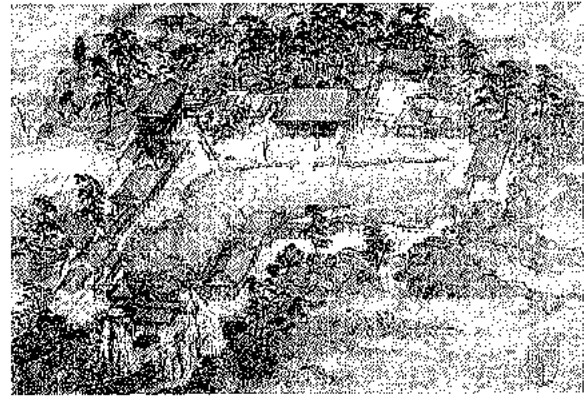
(그림 17) 무석 기상원의 배치도

혜산 아래 있던 기창원(寄暢園)(그림 17)을 보고 감탄하여 화공을 시켜 그 모습을 그림에 담게 한 뒤 북경에 가지고 와서 그림의 형상을 모방하였다. 가경 16년(1811년) 중수된 이후, "이물외지정취, 해촌전지중화(以物外之靜趣, 諧村田之中和)"와 홍력(弘曆)⁹⁾의 시구인 "일정일경, 족해기취(一亭一徑, 足諧奇趣)"에서 의미를 취해 해취원으로 바꾸었다. 함풍 10년(1860년)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 의해 파괴된 것을 광서 18년(1892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그림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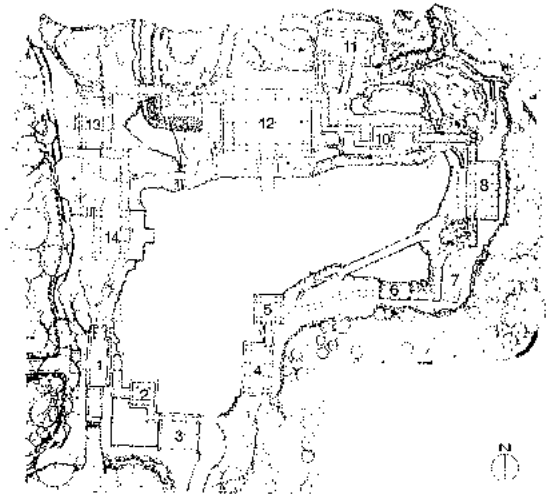
해취원의 궁문은 서남쪽에 설치되어 있고 문밖을 나서 남쪽으로 향하면 궁전구역으로 직접 연결되며 북쪽을 향해 서쪽으로 가면 만수산 북쪽 기슭의 후계호에 이르게 된다. 해취원은 비록 개문견산(開門見山)¹⁰⁾의 전통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궁문을 열고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호수가의 형상과 그 주변의 건축물이 은밀히 드러나면서 사람을 이끌어 유람을 시작하게 한다. 원림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치

9) 청대 고종연 건륭 황제의 이름이다.

10) 개문견산은 인도착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원림의 경우에는 원림 전체의 실재공간을 바로 드러나게 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18) 해취원의 조경도



- | | | |
|--------|--------|---------|
| 1. 궁문 | 6. 담벽현 | 11. 담청현 |
| 2. 지춘정 | 7. 지어교 | 12. 함원당 |
| 3. 인경현 | 8. 지춘당 | 13. 축신루 |
| 4. 세추현 | 9. 소유천 | 14. 징상재 |
| 5. 음죽현 | 10. 난정 | |

(그림 19) 해취원의 배치도

는 하지(荷池)의 수면은 서남쪽으로 꺾어진 "r" 형상인데 수면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는 세추현(洗秋軒)이 바라다 보이며 남쪽에는 지춘정(知春亭)과 인경현(引鏡軒)이 있다. 이들 3동의 건축물은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체감을 이룬다. 세추현의 북쪽으로 이어진 회랑은 음죽현(飲綠軒)으로 연결되고 이곳은 연못이 깎여지는 곡절점이 된다. 이 건물에서 고개를 돌려 연못의 수면을 사이에 두고 북쪽을 바라보면 원림의 중심인 함원당(涵遠堂)이 시선에 들어온다. 이 건물은 해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함원당의 오른쪽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축신루(鴈新樓)가 있고 왼쪽의 뒷편 언덕 기슭에는 담청현(湛淸軒)이 있어 함원당을 호위하여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한다.

해취원은 작은 면적임에도 가운데 부분을 연못의 빈 공간으로 크게 남겨두고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그 외곽을 다시 산언덕으로 감싸오면서 지척에 있는 높고 거대한 이화원의 외곽담을 감지하지 못하게 한 결과 대단히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圖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4

전시리뷰 / 120

회원현황 / 121

협회소식 KIRA news

2001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올 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 확정

우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의 200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8일 충북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각 건축사회별로 열렸다. 올 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과 임원개선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각 시·도건축사회별 정기총회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회 제35회 정기총회

▷일시: 2001년 3월 23일(금) 13:30

▷장소: 향군회관 대강당

▷참석인원: 3,002명 중 489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대의원 선출 및 개선의 건
→ 대의원 선출 및 개선 대상 대의원 수의 70%는 구건축사회에서, 30%는 집행부에서 선출키로 결의하였으며, 회비 미납으로 대의원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권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결의함. 다만, 선출시까지도 회비가 미납될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보선키로 함.

· 제4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 회장: 이철호 · 감사: 송평문

· 간사: 신임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부산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29일(수) 10:30

▷장소: 동래관광호텔 허심정 2층 대연회장

▷참석인원: 726명 중 312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조건부승인(협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집행하되, 신임 집행부에서 회원사무소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건축예산안을 수립해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재심의키로 하여 통과)
- 제3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회장: 강 신 · 간사4인: 집행부에 위임 · 감사1인: 집행부에 위임
- 제4호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집행부에 위임

■ 대구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20일(화) 10:00

▷장소: 대구파크호텔 1층 회의실

▷참석인원: 524명 중 145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계수 조정하고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 회장: 도무찬 · 감사: 최부영 · 간사: 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 회장에게 위임

■ 인천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20일(화) 11:00

▷장소: 로얄호텔 별관

▷참석인원: 245명 중 85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제1차 추경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임의적립금에서 15,000,000원을 감액하고, 경조비에 10,000,000원, 사업비에 5,000,000원을 증액키로 함.

· 제3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감사(1인): 홍상익
· 간사(2인): 회장에게 위임

· 제4호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광주건축사회

▷일시: 2001년 2월 29일(화) 10:30

▷장소: 광주건축사회관(5층 회의실)

▷참석인원: 254명 중 188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 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개선)의 건

→ · 회장: 박무길 · 부회장: 강찬수
· 간사: 김금진, 김주연, 김희현, 문출성, 박재홍, 양동협, 정태호

· 감사: 강석훈, 문성식

· 대의원: 박무길, 강찬수, 박성근, 김웅주, 김희현, 문성식, 박영희, 박임진, 박재홍, 송양식, 안태경, 양판식, 정원석, 정재경

■ 대전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20일(화) 10:00

▷장소: 신신예식원 2층

▷참석인원: 268명 중 123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결산 및 사용(안)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5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회장: 김공열 · 간사: 사회민, 이성희, 최재인, 김봉희, 이상훈
· 감사: 이길주

· 제6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

→ 박홍우, 류근열, 송승호, 임근수, 류성희, 이영순, 석종구, 오영치, 정인협, 박현배, 이철호, 김영배

■ 울산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27일(화) 15:00

▷장소: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

▷참석인원: 153명 중 82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 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

→ · 회장: 김규인 · 감사: 박홍동
· 간사: 박문용, 이병술, 윤승훈, 이태수

■ 경기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6일(화) 10:00

▷장소: 경기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278명 중 243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 회장: 한명수 · 간사: 정환철, 신형기, 황의웅, 조은수, 조성원, 하선호, 김중권, 나머지는 회장에게 위임 · 감사: 김태익, 황재성
· 대의원: 이일윤외 23명

■ 강원건축사회

▷일시: 2001년 3월 30일(금) 14:00

▷장소: 신협중앙회 강원도지부 5층 대강당

▷참석인원: 153명 중 55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회장: 박세진 · 간사: 하금현
· 감사: 이인호 · 대의원: 박세진, 김길창, 정상원, 김화영, 한광호

· 제4호의안: 도회 활성화 방안 위한 대책 협의의 건

→ 차기 총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 제5호의안: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관련 대책 결의의 건

→ 차기 집행부에 위임

· 제6호의안: 건축물의 설계·감리 용역입찰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 협의의 건

→ 차기 총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 충북건축사회

▷일시: 2001년 2월 28일(수) 10:30

▷장소: 명암파크호텔 2층 목련실

▷참석인원: 204명 중 118명

▷주요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00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회장: 박성인 · 감사: 정익현 · 간사(5명) 및 대의원(3명): 회장에 위임키로 함.

■ 충남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28일(화) 10:30
- ▷장소: 홍성 행복예식장
- ▷참석인원: 182명 중 63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정회원 월정회비 확정 의 건
- 월 3만원으로 결정(2001년부터)
- 제2회의안: 실적관리비 확정 의 건
-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간사회에 위임
- 제3회의안: 2000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제4회의안: 2001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제5회의안: 임원개선의 건
- · 회장: 권백순 · 간사: 이광춘, 조형식, 정용구, 서광원, 이정관 · 감사: 이상설, 최의영 · 대의원: 이천규, 권윤근, 신우식, 육이창, 이건설

■ 전북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13일(금) 10:00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210명 중 101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임원 선출의 건
- · 회장: 장기종 · 감사: 박일영

- 간사: 지역회장 · 대의원: 회장에 위임하여 선출하되 자문위원은 전주를 포함한 지역 회장 및 전,현임 감사와 협의하여 선출키로 함.

■ 전남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21일(수) 11:00
- ▷장소: 추산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120명 중 82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2000년도 경정 세출예산(안)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0년도 수지결산(안)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일부항목간 조정승인
- 제4회의안: 임원 개선의 건
- · 회장: 문순하 · 간사: 황영호, 강양구 · 감사: 김강수, 윤문곤
- 제5회의안: 대의원 개선의 건
- 최윤희, 조도인, 이명동, 김복환

■ 경북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13일(화) 11:00
- ▷장소: 포항 시그너스호텔 사파이어 볼룸
- ▷참석인원: 263명 중 200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경상북도건축사회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0년도 경상북도건축사회 결산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2001년도 경상북도건축사회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회의안: 임원개선의 건
- · 회장: 임병욱 · 부회장: 미선출로 인한 공석 · 감사: 김성태, 이진석 · 간사: 권정우, 임송용, 장학선, 고학림, 권오용, 금산순, 임영호, 김정겸

■ 경남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22일(목) 10:30
- ▷장소: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참석인원: 340명 중 172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2000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 회장: 이양원 · 부회장: 정응규 · 감사: 김상부

■ 제주건축사회

- ▷일시: 2001년 3월 22일(목) 15:30
- ▷장소: 하너크라운호텔 2층회의실
- ▷참석인원: 88명 중 66명
- ▷주요의결내용
- 제1회의안: 2000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총규모 163,800,000원에 변동 없이 장학사업비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일부 수정하고 원안통과
- 제3회의안: 회원상조회 규칙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회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 회장: 김한진 · 간사: 조길홍, 양창용, 허영주 · 감사: 강행생 · 대의원: 김한진(당연직), 김석윤(임기2년: 직전회장)

이사회

2001년도 제4, 5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3월 26일(제4회)과 4월 10일(제5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2001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회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서울건축사회장과 정희승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키로 함.
- 제3회의안 : 전문변호사 위촉의 건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4회의안 :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 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회의안 : 위임전결규정중 개정 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회의안 : 회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조정 승인의 건
- 서울건축사회 임대면적중 여성건축가협회 사무실 부분(3.5평)을 제외하여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재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제5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퇴회에 대한 정의 및 절차를 신설하고, 신고양식을 변경, 건축사법 개정규정에 맞게 용어 정리 등)
- 제2회의안 : 인사규정중 개정규정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징계위원회를 삭제하고 인사위원회로 단일화)
- 제3회의안 : 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일부 용어 변경 후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회의안 : 건축사보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1부당 2,000원)
- 제5회의안 : 협회 재산 처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200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5월 13일 시행, 전국 1,672명 접수

올 해 건축사자격예비시험이 오는 5월 13일로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 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았다. 총 접수자는 1,672명(서울1,036 부산105 대구73 인천72 광주61 대전45 울산12 경기64 강원18 충북31 충남14 전북39 전남14 경북38 경남32 제주17)으로 지난해 접수자 4,732명보다 3,06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표는 5월 2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관련 안내는 우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볼 수 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서울건축학교 sa 2001~2002 워크숍 프로그램

‘변화의 시작, 새로운 풍경’을 향하여

sa는 건축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삶을 성찰하고 그 성찰을 지속시키기 위한 장소이다. 그러한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sa에서는 끊임없는 실험들이 모색되고 오늘의 중요한 지해들이 논의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sa에서는 당대의 중요한 지해들을 논의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강좌들이 열리고 있으며 끊임없는 실험들이 모색되고 있다.

2001년 sa는 새로운 세기의 아침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2004년까지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이라는 연간 테마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시와 건축을 지향하며 건축가의 입장과 방향을 정리해 나가려 한다. 서울건축학교는 이제 사회의 변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도시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여러 위상에서 우리의 사고와 지해를 교류하며 발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개인적인 작업에 매달려 연주하기보다 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려한다. 새로운 시대, 올바른 건축의 지평을 열어 가는 이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01년의 주제 ‘움트는 모습들’

2002년의 주제 ‘세계속으로’

2003년의 주제 다시 오늘의 자리에서

2004년의 주제 '새로운 풍경'

sa의 활동은 2001년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 워크숍 과정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시스템의 워크숍은 sa건축가 개인의 관심사와 연구테마를 4주를 기본단위로 연간 5회(올해에 한하여 4회) 진행되며, 진행방법 혹은 기간 등은 스튜디오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스튜디오 마스터와 참가자들은 스튜디오 외에 세미나와 정기 강좌를 수강하며 기행, 전시 등 sa 이벤트에 참가한다. 이러한 워크숍 활동은 sa 홈페이지 www.saschool.or.kr에 올려지며 워크숍 게시판을 통하여 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워크숍의 결과는 평가회를 거쳐 전시회, sa 저널로 출판된다.

■ 일정

2001년 sa워크숍

2001 0416-0514 워크숍1

2001 0604-0702 워크숍2

2001 0804-0812 여름워크숍 코디네이터/권문성

2001 0831-0929 워크숍3

2001 1102-1130 워크숍4

2002년 sa워크숍

2002 0107-0202 워크숍1

2002 0304-0330 워크숍2

2002 0506-0601 워크숍3

2002 0803-0811 여름워크숍

2002 0902-0930 워크숍4

2002 1104-1130 워크숍5

■ 지원

국내외 건축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설계사무소 경력인 대상
포트폴리오 심사/면접

■ 2001 워크숍

스튜디오 별 주제에 따라 스튜디오 마스터 자율로 운영하며 5-6명의 참가자로 구성한다. 진행 프로그램은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여 미리 공고하며 스튜

디오 상호간의 진행은 코디네이터에 의하여 조정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스튜디오 외에 공개강좌 및 세미나, sa기행, 전시 등 행사에 참가한다.

■ 2001 스튜디오

김광수 스튜디오(연세대 건축과, 예일 대학학원, 팀반건축)

워크숍1/자치성의 극대화

김영준 스튜디오(서울대, 동대학원, 영국 aa school, 김영준 도시건축)

워크숍1-4/도시의 밀도와 복합기능
민현식 스튜디오(서울대, aa school, 기오현)

워크숍3-4/housing

송호상 스튜디오(서울대, 동대학원, 비엔나 공과대학, 이르재)

워크숍1-4/urban void

오섬훈 스튜디오(서울대, aa school, 공간)

워크숍3/경계의 인식

정기용 스튜디오(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동대학원, 빠리건축6대학, 빠리8 대학도시계획과, 기용건축)

워크숍1-4/반복과차이-건축, 문학, 철학, 음악

조성룡+김현 스튜디오(안하대, 동대학원, 조성룡도시건축 / 한양대, 미시 건대학원, 예다건축)

워크숍1-4/도시의벤더스

최욱 스튜디오(홍익대 건축과, 베너스 건축대학, 스튜디오 최욱)

워크숍1-4/mutations

한만원 스튜디오(홍익대 건축과, 파리 리블레트 건축대학, 한도시건축)

워크숍2-4/morphological study & decomposition of urban forme

■ 화요강좌 sa tuesday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0424 한국건축사 1

0522 한국건축사 2

0605 한국건축사 3

0612 한국건축사 4

강성원(미술평론가)

0515 미술사 1

0529 미술사 2

0619 미술사 3

0626 미술사 4

■ 금요강좌/세미나 sa friday

0420 김종규(건축가/m.a.r.u)/해이 리아트밸리

0427 강 혁(경성대학교 건축과 교수)

0518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0601 홍성태(상지대학교 사회학부 교양학과 교수)/생태학과 건축

0608 임재용(건축가/OCA건축)

■ 초청강좌

2001 04 05 06 07

2001 09 10 11 12

이상구/경기대교수 김진승/목수 이광모/영화감독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강충구/고려대전공학과교수 홍성태/상지대사회학과교수

■ 전시회

2001 03-11

04박수근기념판설계경기/이종호 김종규 김영준, 04문화재단연구소/서혜림, 06김수근문화재단상/송호상, 09여름워크숍, 11의재미술관/조성룡 김종규

■ 건축도시기행(진행 김봉렬)

2001 0421-22 기행1 호남권(전남 전북)

2001 0623-24 기행2 영남권(경남 경북)

2001 0922-23 기행3 중부권(서울 충청 강원)

2001 1124-25 기행4 외국

▷참고: 서울건축학교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문의: 02-763-0471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 전

월간 이상건축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전시회

〈월간 이상건축〉에서 제7회 이상건축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새롭게 마련된 이상건축 사옥의 지하 1층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기간은 5월 4일(금)부터 8일(화)까지 5일간이다.

이상건축 공모전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현 시기 우리의 삶이 여하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고자 '탈도시 주택'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 온 공모전으로 때로는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로, 때로는 도시의 경제선상에서 접근태도로, 그리고 다시금 도시와 주거에 있어서 '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까지 그 근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목조주택, 리노베이션의 측면까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금번 전시회의 대상이 되는 제7회 공모전에서는 근본에 대한 물음으로서 일상(reality)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금번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던 탈도시 주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상성의 가치 요소에 대한 탐구 및 분석, 그리고 그 실천적 대안으로서 건축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제7회 공모전의 입상작 30작품의 패널과 모형을 전시한다.

- 일시 : 2001년 5월 4일~8일(5일간, 개관시간 10:00~18:00)
- 장소 : 서울시 삼성동 (주)이상건축 사옥 지하 1층 전시장
- 오프닝 및 시상식 : 2001년 5월 4일 11:00
- 오프닝 프로그램(사회: 조용수/ 제7회 공모전 코디네이터,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11:00~11:10 테이프 절단식 및 개막

- 11:10~11:20 안내 인사 및 귀빈 소개
- 11:20~11:35 발행인 인사/이용흠
- 11:35~11:50 편집주간 인사/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11:50~12:00 공모전 브리핑
- 12:00~12:30 심사평/이성관(한울건축 대표), 서혜림(힘마건축 대표)
- 12:30~12:50 시상식
- 12:50~13:00 신임 코디네이터 소개 및 2001년도 공모전 안내
- 13:00~14:00 다과회 및 전시관람(당선자 프리젠테이션)
- 후원 : 우즈이십일주식회사
- 문의 : 전화 02-549-5383, 554-1923, 이메일 al1833@kornet.net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1학기 특강

5월 29일까지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1학년도 1학기 특강 일정이 발표돼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회 오후 6시에 진행된다. 문의: 02-450-3287
- 3/20 김종성(서울건축)/모더니즘의 태동과 전개
 - 3/27 신경숙(대진대)/살풀이의 숭사위
 - 4/6 강내희(중앙대)/근대성 경험의 충격
 - 4/10 이상구(경기대)/도시형태의 변화-서울
 - 4/17 김성기(한일장신대)/현대성의 시간과 공간
 - 4/24 전수천(한국예술종합학교)/표현으로서 이미지의 정체성
 - 5/8 강은일(국악가)/해금이 부르는 노래
 - 5/15 김정희(미술사가)/토속성으로 표현된 한국성
 - 5/22 전학섭(조각가)/나의 작업
 - 5/29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Land Space

이명호 중앙대교수 송공행사

제자와의 만남 가져



건축학회장을 역임한 중앙대 건축학과 이명호 교수가 정년퇴임 행사를 가졌다.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동문들이 지난 2월 28일 이명호교수의 퇴임을 맞아 송공행사를 마련했다. 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자와의 만남으로 조촐히 치르겠다는 이교수의 뜻에 따라 마련된 이 자리에는 260여명의 제자와 중앙대 총장, 정재철 건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36년간 건축학과에 봉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써온 이교수의 학덕을 기리며 제자들이 감사의 뜻을 모아 글모음집을 봉정했다. 「삶, 건축 그리고 교육」이라는 제목의 이 글모음집은 일반적으로 퇴임교수의 논문 등 연구업적을 정리한 딱딱한 형식의 논문집과는 달리 이교수의 경력과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은 물론, 그와의 남다른 추억을 회고하는 지인과 제자들의 글과 평소 주고받은 서신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명호 교수는 퇴임 후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해민연구소 02-599-7735)을 열고 계속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호 교수 약력

- 1936년 10월 생
- 1957년 서울대 건축학과
- 1974년 중앙대 대학원
- 1968년부터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 중앙대 대학원 원장 역임
- 대한건축학회 회장 역임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역임
- 국민훈장 목련장 및 서울시 문화상 수상
- 저서: 주택론(1967), 건축설계제도(1990), 건축학개론(1991), 주거론(1997) 등

**2001년 한국건축가학교(SAKIA)
여름학기(제3기) 학생모집 일정**

▷원서교부 : 4월 16일-5월 14일
▷원서접수 : 5월 15일-5월 28일(홈페이지에
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입학전형 : 5월 29일(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합격자 발표 : 5월 30일(개별통지, 홈페이지)
▷입학등록 : 6월 5일~6월 11일(건축가협회)
▷등록금 : 69만원-학생 부담금 59만원
-한국건축가협회 10만원 보조
▷기 간 : 6월22일-7월 27일(5주)
▷모든 강의(특강 및 스튜디오 강의)는 월,수,
금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AKIA 홈페이지를 방
문하면 항상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arick.or.kr)

■튜터

제1스튜디오-Critical Vernacular
Architecture
도창환/건축연구소 소소암
제2스튜디오-Architecture & Technology
함인선/인우건축 소장
제3스튜디오-Poetic Architecture
곽재환/맥 건축 소장
제4스튜디오-
김현태/딴원건축 소장
제5스튜디오-Wood & Environment
Architecture
김진희/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 원장
조남호/솔토건축 소장
제6스튜디오-인간/자연/건축
유태웅/터제건축사무소 소장
김도경/한옥문화원연구원
제7스튜디오-Art & Architecture
김한준/DeA KOREA 건축사무소

■이론강좌교수

Tectonic - 06/25, 06/27
김원식/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건축과 기술 - 06/29
이상현/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한국 집의 조명과정 속에 담긴 의미 - 07/02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비평초청교수

CRITIQUE - 7/21
김억중/한남대 교수, 김준성/샘건축 소장
오성훈/공간건축 소장, 정진국/한양대 교수

■특강초청교수

건축도면의 발달 - 07/04
이안/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건축의 이해 - 07/06
신영훈/헤라시아연구소 소장, 한옥문화원
건축기술사 - 07/09
함인선/인우건축 소장
Architecture & Technology - 07/11
박경수/POS AC 이사

※건축기행: 07/07-07/08 충청남도 서해안
개신사-해미읍성-수덕사-추사고택

건축가협회, 5월 금요토론회

5월 11일, '밀라노프로젝트와 건축'을
주제로

한국건축가협회 5월 금요토론회가 5
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
까지 대구건축사회관에서 열린다. 이
번 토론회는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에서 주관하며, 주제는 '밀라노프로젝
트와 건축'이다.
문의: 053-742-8734

UIA/IOC 공동세미나

스위스 로잔느에서 5월 5~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IA Work
Program "Sports and Leisure"에
서 주최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올림
픽게임과 건축: 올림픽 개최도시의 미
래'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교훈, 2004
년 아테네 올림픽을 위한 제안과 다른
올림픽 도시들의 경험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며, 참석은 제한이 없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02-744-8050)

제7회 세계 젊은 건축가포럼

오는 7월 16~27일까지 프랑스
페리피낭에서

세계 젊은 건축가연맹(FMJ)에서는
오는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페리피낭에서 제7회 세계 젊은 건축가
포럼을 개최한다. '도시의 경계들
(The City Boundarie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논제는 창의적 도
시 메카니즘의 이해, 정적인 빈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 논의, 도
시의 중심에 대응하는 도시외곽을 구
성하는 방법 연구, 도시간 연대를 고려
한 유동적이고 열려있는 도시의 새로
운 경계, 마을의 정체성과 도시집중의
해소를 고려한 도시외곽의 조화로운
개발 등이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춘계 실내디자인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

5월 11~12일, 'Neo Think'를 주제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는 5월 11일
부터 12일까지 국민대학교 본관 학술
회의장에서 'Neo Think'를 주제로 춘
계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한다. 21세기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특
징지어는 것과 맥을 같이 해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한국의 실내디
자인의 비전을 전망해 보고, 그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기 위하여 'Neo
Think'라는 주제어 아래 산·학·연
에 관계하는 전국의 모든 학회 회원들,
그리고 실내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Interior

Design Weekend in Seoul 2001을 개최한다. 제1회 사이버 인테리어 디자인 어워드 2001 시상식 및 수상작 프리젠테이션도 함께 한다. 발제강연은 윤영선(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가 '리모델링 개념과 관련산업의 발전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윤혜경(윤인테리어즈 대표), 배대웅(B&A INC 대표), 김정기(태두아키텐테리어 대표), 조남준(풍진아이디 대표), 이현수(연세대 교수), 박인학(가인디자인그룹 대표)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문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02-564-2598 <http://www.kiid.or.kr>, www.freechal.com/idw2001)

■ 제1회 사이버 인테리어 디자인 어워드 2001

▷출품주제: 생각의 전환/새로운 발상 (Neo Think)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원)생(팀당 3인 이내)

▷출품부문

- 2D 그래픽부문: 공간에 대한 디자인 전개과정 및 결과물을 2D상으로 제작하고 사용 소프트웨어 동영상 또는 웹(Web)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

- 동영상부문: 공간에 대한 디자인 전개과정 및 결과물이 동영상에 의해 제작된 모든 작품(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의한 작품)

- 웹(Web)부문: 공간에 대한 디자인 전개과정 및 결과물이 웹(Web)상에서 Link되어 작품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고 보여 줄 수 있도록 제작된 작품

▷출품접수: 4월 23일부터 5월 7일 15시까지

▷제출방법: 인터넷 접수 후 우편 또는 직접 학회로 접수(제작물이 수록된 CD, A4용지 10매 이내의 작품설명서)

▷심사위원: 참가 대학교 지도교수 전원

▷심사기준: 창의성과 표현능력 및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작품기준

현상설계경기, 한국까르푸 외관 디자인

5월 16~17일 신청접수

한국까르푸주식회사는 당사 할인점 외관 형태요소 디자인 설계경기 응모작을 모집한다. 까르푸 점포의 고유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설계경기 당선작은 추후 개발되는 점포 및 기 개점 점포에 표준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및 인테리어 사무소 또는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환경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관련 등록을 필한 자. 개인은 상기의 자격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응모 가능

▷응모신청서접수: 2001년 5월 16일~17일 (서울본사배부, 14:00~18:00)

▷응모 작품 제출: 2001년 6월 20일 (18:00 마감)

▷제출장소: 한국까르푸주식회사 본사

▷제출요령: 응모신청서, 설계설명서(A3 백상지)3부, 패널 1set(A1, 2매) 공동제출(영문작성원칙)

▷시상내역: 당선작 1점 : 상금 5,000만원(선정 시 1차로 2,000만원 지급, 2차로 매뉴얼, 시방서 작성 및 설계 적용 후 3,000만원 지급), 우수작 1점 : 상금 2,000만원

▷문의 및 접수처: 한국까르푸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삼성역삼빌딩 10층 건축부 고일석 부장) Tel (02) 538-0466 (내선 138) Fax(02) 539-8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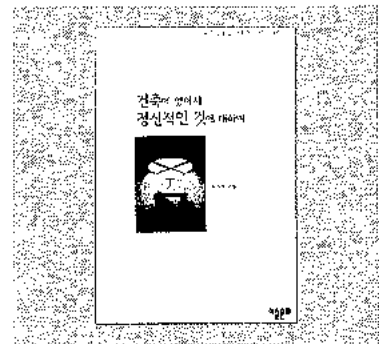
신간안내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연세건축2001

스틸하우스구조설계 요령집 건축의 사회적 차원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건축이 풍부해 지려면 반외부 공간이 많아야 한다. 풍부한 자연을 그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그 반외부의 여유공간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창으로 막고 지붕을 덮고 내부공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건축 속에 깃들여 있는 철학을 26가지 주제에 따라 사진자료와 자유스러운 해설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 책은 '주머니속의 건축'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서 건축이 문화와 예술로서 대중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부제 "건축의 정신적 요소에 대한 26가지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국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 정신적인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건축은 터잡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삼, 건축은 눈을 통해서 느낌으로 온다. 사, 비어있는 곳이 건축이다. 오, 의미는 건축이 됨을 말한다. 육,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축. 칠, 빛은 건축의 생명이다. 주제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다분히 감성적이고 선언적인 이러한 주제어들과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 쉽게 풀어쓴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책의 필요성을 후기에 밝히고 있다. "[주머니 속의 건축] 이 건축의 개관이라면 이 책은 건축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건축의 기초에 관한 책을 계속 쓰는 것은 그것이 이 시대 건축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수준의 향상 없이 건축가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건축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책이 그 중 일부의 작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최부득지음/206쪽/1만원/도서출판 미술문화
퍼냄(02-335-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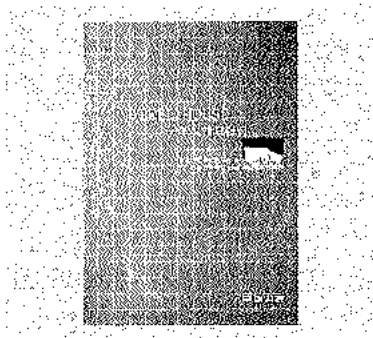
▷연세건축2001



이 책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총동창회에서 엮었다. 또한 이 책은 연세대 건축공학과 창립 43년만의 첫 기념 출판물로 연세대 건축공학과 출신 동문들의 활약상을 담은 포트폴리오형 디렉토리 앨범이다. 건축 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집대성함으로써 건축전공자에 대한 사회 진출의 영역을 알기 쉽게 정리되었으며, 대학내 건축문화 뿐 아니라 한국건축문화의 대외 홍보물로서 출판물의 업그레이드 실현이다. 이 책에서는 그 흔한 학연의 나쁜 냄새를 맡기보다 건축전공자들이 활개치는 건축영역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총 제작기간 3.5개월, 공동저자 152명이 참여한 이 책은 건축전문 기획편집자 전진삼(40, 건축비평가/건축발전연구소 소장)씨의 주도로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총동창회 엮음/384쪽/3만원/도서출판 (주)이색미디어 퍼냄(02-519-6520)

▷스틸하우스구조설계요령집



이 책은 경량형강으로 지어지는 스틸하우스(Steel Framed House)의 구조설계가 매우 간편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작성하고 대한건축학회가 감수한 스틸하우스 구조설계요령집은 설계의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과 구조재의 요소별로 풍부한 테이블을 제시하여 자재의 선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구조설계요령집은 2층 이하의 스틸하우스 구조설계용으로서, 1998-380호의 냉간성형강 구조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의 건축물 하중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냉간성형강을 골조로 사용하는 설계에 대한 구조설계방법과 설계결과를 목표로 제시하여 스틸하우스의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설계자는 기본적인 자재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설계변경에 대해 구조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장점으로 꼽는다. 이 책의 발간으로 포항제철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는 스틸하우스의 설계 및 시공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지음/222쪽/1만8천원/도서출판 구미서관 퍼냄(02-7389229)

▷건축의 사회적 차원



건축의 사회성 및 사회적 힘과 건축과의 관계를 화두로 하여 건축적 사고를 전개해 오던 저자가 지난 15년간 국내외의 여러 매체를 통하여 발표한 글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디지털 문화로의 전이가 예정된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건축에 관한 논의들이 몇몇의 단락으로 묶여졌다. 건축교육과 국제관계, 존재론적인 전통의 이해, 건축의 사회이데올로기, 정체성과 진성성 등의 주제들이 논의되고 우리사회에서 뜨거웠던 건축관련 논쟁이슈들이 망라되었다.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서 논의된 건축적 사고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전자책의 특성을 살려 심각한 형식을 요구하는 일부 논문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던져지는 건축적 사고의 편린들이 비쳐지는 수필 형식의 글들이 함께 묶였다.

이정근 지음/547쪽/4천원/booktopia.com
(02-393-1133)/http://www.bookt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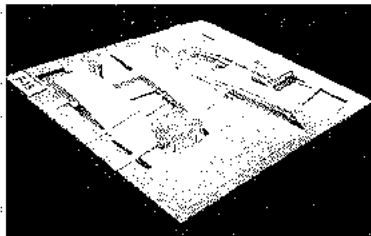
2001 지산학생건축공모전

대상에 'Inter-Textuality'
(황성환/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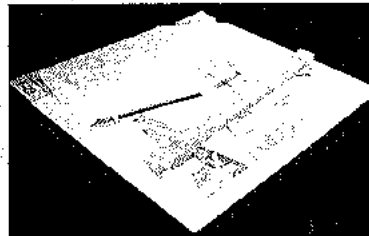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산학생건축공모전의 심사결과가 지난 3월 15일 발표됐다. 지산장학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주)한국건축사사무소가 지역의 유능한 건축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2년 지산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공모전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공모전에서는 3년간 연속된 시리즈로 문(門), 장(場), 관(關)을 기획하여 지난해는 「문(門), 문으로서의 정보센터」를 제시하였고, 올해는 「장(場), 장과 만나는 건축박물관」이 주제로 주어졌다. 이 주제는 2002년에 시행될 세 번째이자 완결주제인 「관(關)」으로 이어진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백75명이 응모하여 1백6작품이 출품되었다. 3월 9일 실시된 1차 예비심사는 이정호(대구대)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강혁(경성대), 구영민(인하대), 김철규(영남대), 이운석(경희대), 하재명(경북대), 현택수(경일대)교수 등 총 7인이 심사에 참여, 22점을 선정하였다. 3월 15일 실시된 2차 본심사에는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김억중(한남대), 이성관(한울건축), 이정호(대구대, 코디네이터), 최무혁(경북대), 키오시 세이 다케야마(교토대)교수가 심사에 참여해 장에 대한 해석, 작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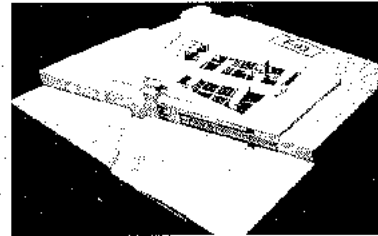
과 주변상황과의 연계, 건축적 프로그래밍, 현재 건축적 본질에 따른 리얼리티의 측면을 기본으로 장과 시리즈로써의 연작작업, 이 땅이 갖고 있는 이야기, 대지의 독특한 성격에 관한 언급 등을 기준으로 심한 결과 대상에 'Inter-Textuality' (황성환/동국대학교 4학년)를 선정, 발표했다. 금상에는 'Duplicated Layer' (송상근/경북대학교 4학년), 은상에는 'Vertical Ground' (정구호/연세대학교 4학년)와 'Place and Identity' (정민재/동국대학교 4학년), 동상에 'The Empty Space Filled with Images' (진규환/경희대학교 대학원), '99!(factorial)=99×98×97×...×3×2×1' (최순용/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작에 '건축, 예술? 혹은 퍼포먼스...' (박상현/한양대학교 대학원)외 14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Inter-Textuality'
(황성환 / 동국대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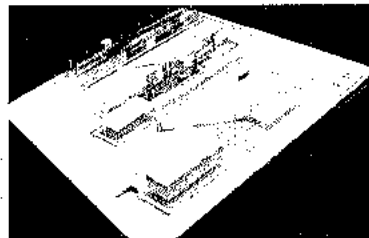
금상 'Duplicated Layer'
(송상근 / 경북대학교 4학년)



은상 'Vertical Ground'
(정구호 / 연세대학교 4학년)



은상 'Place and Identity'
(정민재 / 동국대학교 4학년)



동상 'The Empty Space Filled with Images'
(진규환 / 경희대학교 대학원)



동상 '99!(factorial)=99×98×97×...×3×2×1'
(최순용 / 건국대학교 대학원)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

(2001. 2. 28. 현재)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원입 회원수	7,670	3,001	722	532	240	256	270	153	910	179	206	184	212	120	264	338	84
금 별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전국 2급
회 원 수	7,665	2,997	721	532	240	256	269	153	907	179	204	180	212	119	264	338	84
회 원 변 동 사 항	입 회	18	5	2	3				4						3	1	
	재 입 회	2	1									1					
	진 입	10	2		4					1		2				1	
	복 권	0	0														
	전 출	-12	-3		-1		-1		-3	-2		-1			-1		
	폐 업	-21	-8	-1	-1		-3		-2		-3	-2	-1				
	재 명	0	0														
	사 망	-1	0								-1						
	등록취소	0	0														
근원입 회원수	7,651	2,994	721	531	245	256	265	153	906	178	200	180	212	119	266	340	84
계	7,665	2,998	723	531	245	256	266	153	909	178	201	183	212	120	266	340	8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회 원	건축사	7,651	2,994	722	531	245	266	265	153	906	178	200	180	212	119	266	340
	2급	14	4	1	0	0	0	1	0	3	0	1	3	0	1	0	0
	계	7,665	2,998	723	531	245	266	266	153	909	178	201	183	212	120	266	340
	비율(%)	100.0	39.1	9.4	6.9	3.2	3.3	3.5	2.0	11.9	2.3	2.6	2.4	2.8	1.6	3.5	4.4
준 회 원	13	6	5	0	0	0	0	0	0	0	1	0	0	0	1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유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5,197	2,449	19	7,665	
비율(%)	67.8	32.0	0.2	100.0	
사무소수	4,715	1,613	15	6,343	
비율(%)	74.3	25.4	0.2	100.0	